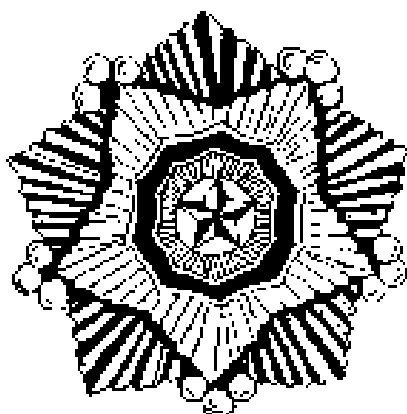




6

주제 95(200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5(2006)년 제6호

(루계 제 704 호)

◇◇◇◇◇◇◇◇◇◇

차 례

◇◇◇◇◇◇◇◇◇◇

봄비가 오니	3
보천보는 잠들지 않는다	3
불타는 도하장에서	4
통쾌한 전투	5
최고사령관기의 원수벌	5
약속의 세계	6
영웅되어 장군님께 기쁨 드려라	15
폭풍의 생애	16
생애의 순간순간을 수령의 충직한	21
전사로 값높이 산 혁명시인 (1).....	21
6.15 는 통일의 봄날	23
학당골의 봄	24
주체문학의 대강	25
건설과 전쟁에 대한 시의 철학	25
어느 일요일에	30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44
병사의 길동무	44
절세의 애국자	45
비둘기는 날았네	45
그리움의 노래	46

우리 당의 행군로.....	47
바래우시던 그날에...	47
백두의 길.....	48
백마-철산 굽이굽이 물길에.....	48
50 년전 그 날에.....	49
새세기의 강도.....	50
인생의 한 여름에.....	51
통일명절 큰 잔치 어서 펼치세.....	61
선군시대 인간들의 혁명적량심에 대한.....	62
철학을 깊이있게 형상한 명가사.....	62
옛 담임선생님의 사진앞에서.....	64
비석의 글발은...	64
인간학적풍격을 훌륭히 갖춘.....	65
시대의 명작.....	65
우리 장군님 펼쳐주신.....	66
내 나라의 푸른 하늘.....	66
경구, 격언.....	68
삼자연기슭에서.....	69
백마호언제우에서.....	69
나의 하늘.....	70
유모아.....	70
안해의 성격.....	71
장편소설 《리가장의 변천》과 조수리.....	78
상 봉.....	79
신중성, 침착성.....	79
바 독.....	80

봄비가 오니

리근지

비가 오니 봄비가 오니
수령님 생각으로 젖는 이 마음
농장에 오신 그날은 생신날
봄비가 내렸지

옷은 축축히 젖어드는데
질적한 발이랑 걸으시는 수령님께
휴계실로 들어가시자고
수원들 안타까이 아뢰고아뢰는데

보슬보슬 흠날리며 떨어지는 비방울
손바닥에 받으면서 그리도 기쁘시여
-보시오 약비요
곡식들이 자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소

발이랑에 허리 굽히시고
눅눅한 흙덩이 주물러보시며
파아란 보리싹 쓰다듬으시며
만시름 놓으시고 환히 웃으시던 수령님

아, 우리 수령님 농사가 얼마나 중하시면
생신날도 비내리는 발이랑 걸으셨을가
가뭇타던 땅에 비오니 근심이 다 씻긴다고
오늘에야 정말 생일을 원것 같다 하셨거니

수령님 신발에
매달리던 흙덩이
떨어드리지 못한 송구한 생각
내리는 비 막아드리지 못한 아픈 마음

비가 오니 봄비가 오니
더더욱 그리워지는 수령님
그날의 봄비 우리 가슴에 내리여
수령님 우리와 함께 들에 계시네

장군님 토지정리로 몰라보게 전변시킨
드넓은 벌에 비가 내리네
수령님의 환한 미소 정다운 그 음성을 싣고
끝없이 내리네 봄비가 내리네

보천보는 잠들지 않는다

서봉제

여기선 밤이라도
어둠을 모른다
여기선 낮이라도
그밤의 해불을 안고산다

아 보천보
력사의 땅이여
꺼져가던 겨레의 가슴에
식어가던 민족의 심장에
재생의 더운 피를 안겨준
그날의 화광 오늘도 꺼지지 않았거니

한껏 무성한 신록
고요와 정적속에 잠겼어도
황철나무아래 옛 지휘처는
아직도 격전전야의 그 우뢰를 품었는가

살아서 지지리도 밝히우고
숨을 쉬어도 깊은 한숨속에 잤아들던
암흑의 그 두터운 장막을 불태우며
저 하늘에 충천하던
너 보천보의 불길이어

백두장설을 녹이며 다져온 복수의 장약에
멸적의 불을 달아주신
빨찌산 김대장의 그 총성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 조국,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어찌 꽃피날수 있으랴

우리 수령님
총대의 불로
조선의 정신을 떨치였듯이
우리 장군님 번개를 치면
일심단결된 군민은 우뢰를 터치며
활활 하늘을 태우던 보천보의 그밤처럼
제국주의아성 재더미속에 파묻으리니

아 오늘도 보천보는 잠들지 않는다
암흑천지의 밤은 끝장나고
조선의 낮이 살아난 그날의 밤 10시는
강성번영의 내 조국에
흐르고흐르리라
백승의 분과 초를 가리키며
무궁세월을 선군승리로 새겨가리라!

불타는 도하장에서

권태여

남으로 남으로!
포차들과 탄약차들
장갑차와 탱크들...
모든것이 남으로만 달리고있었다

마치 전쟁의 속도가 도하장에 달린듯...
불타는 도하장의 길목을 메우며
진해, 마산으로!
부산, 제주로!
우리 병사들이 가달아야 할
승리의 종점에 점을 찍어주듯
도하직일관은 호각을 불며 길잡이 하는데

왈랑왈랑 소방울소리 ...
북쪽을 향해 달구지 한대 다가오고있었다
포성이 울리는 전선지구에 뜻하지 않았던
그 소리
집소식 궁금한 병사들에게
발같이하던 고향생각 불러주며 ...

문득 어둠속에 울리는 처녀의 쨍쨍한 소리
-직일관동지, 나무모바리 한차만 건네주세요
전쟁이 끝나면 첫 사과를 따야겠어요
그러자 직일관의 잘라매는 말
-땅크들을 멈추고 달구질 건네달란 말이요?

사정도 설복도 소용없는것
전쟁과 미래
현실과 꿈
처녀와 직일관은 말없이 섰는데

문득, 경적소리, 승용차의 불빛...
전쟁의 그 어느날
이름없는 한 도하장에
그 어떤 위대한 사변이 도래하는가

어느새 다가온 승용차에서
천천히 내리시는 장군님
아,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장군님을
여기서 외울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언제나 마음속에 우러러 흠모하며
그이를 단 한번만이라도 뵈옵기를
그처럼 바라던
처녀는 너무도 뜻밖의 일에 목이 메어
이슬 고인 눈 반짝이며 장군님을 우러르는데
그이께선 만면에 미소를 담으시고
사과나무도 한가지 손에 드시나니
아, 불구름도 사그라들고
땅크도 장갑차도 발동을 멈췄다

남으로- 남으로-
별적의 기세로 내닫던 조선의 마음들이
여기로 여기로 달려오는듯-

장군님께선 말씀하신다
- 장하오, 장해 ...
지금은 이 땅이 불바다로 되였지만
승리한 조국강산엔 온통 과일이 주렁질것ियो
동무는 벌써 그러한 미래를 가꾸고있소...

장군님께선
기특한 처녀의 어깨를 쓰다듬어주시며
준엄한 전쟁을 짓밟고 일떠선
인민들의 가슴속에서
온 조국땅에서
벌써 푸르게 무성하는 과원의 설레임소리를
듣고 계시는듯
조용히 생각에 잠기시나니

그 어느 농촌마을에 들리셨을 땐
원쑤놈들의 폭탄에 파헤쳐진 과원을 보시며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더 억세게 일떠설 과수동산을 설계하시더니

이밤엔 불타는 도하장에서
나무모바리달구지를 보시며
장군님께선 다시금 말씀하신다

- 자 어서 건느도록 큰길을 열어주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무모를 심어서야
언제 사과를 따겠소

아, 순간 길이 확 트인다
땅크와 장갑차들, 진군하던 대원들이
량옆으로 짹 갈라진 복판길로
행복의 수레바퀴는 구울러간다

이랴이랴...
얼룩이암소목에 눈물을 쏟으며
처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받들리어
설레는 미래의 과원속으로 걸어갔다

이 나라 과일기지의 새아침을 열어주신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해빛을 받으며
백화만발한 조선의 과원이
온 조국땅우에 뿌리를 내리며 펼쳐져갔다
봄, 여름, 가을...
벌써 전쟁이 승리한 땅우에
행복의 과수동산은 설레이고있었다

통쾌한 전투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인민들은 모여앉기만 하면 천출명장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곤 하였다.

그가운데는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순간에 일제〈토벌대〉의 눈을 멀게 하는 묘술로 놈들이 소경제 닭 잡듯이 제편끼리 싸우게 하신다.》라는 전설도 있었다.

고난의 행군시기인 주체28(1939)년 1월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분산활동으로 넘어간 그때 사령부직속부대는 추격해오는 일제《토벌대》를 뒤에 단체 장백현 홍토산자에 이르렀다. 홍토산자란 덩지가 큰 번대머리산이라는 뜻이었다.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자취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뒤따르면서 사방의 병력을 이 방향에 집중하고있었다.

적들의 기도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을 홍토산자의 깊은 눈속에 때버릴것을 결심하시였다. 부대가 그 산을 두바퀴째 돌고있을 때는 날이 저물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때 행군방향의 앞쪽 멀리에 많은 적들이 나타났다.

뒤에는 며칠째 뒤따르는 적이 있고 앞에는 또 새로운 일제《토벌대》가 마주오고있으니 정황은 참으로 위급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의도하신대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대에 진대나무들을 타고 옆으로 슬쩍 빠질것을 명령하시였다. 부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정된 방향으로 갑

쪽같이 사라졌다.

얼마후 부대가 행군하던 곳에서 몇방의 총소리에 이어 기관총, 보총의 맹렬한 사격소리가 들려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을 농칠세라 앞뒤에서 덤벼들던 적들이 서로 상대방을 혁명군으로 알고 총격전을 벌리기 시작한것이였다.

총소리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직속부대를 뒤따르던 적들이 먼저 났다. 이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바짝 뒤따르다가 뜻밖에 어둠속에서 저들을 향해 다가오는 《토벌대》 무리를 발견하자 깜짝 놀라 혁명군부대가 어둠을 타서 반격해오는것이 틀림없는줄 알고 선손을 썼던것이였다.

새로 나타난 일제《토벌대》는 첫 타격에 많은 손실을 당하자 악에 받쳐 피를 물고 대들었다.

적들은 거의 1시간동안이나 기관총까지 쏘대며 맞불질을 하였다. 서로 무리죽음을 낸 다음에야 제편끼리 죽일내기를 하였다는것을 알아차린 적들은 아연실색하였다.

한참후에야 제정신이 들어 서로 눈이 멀었는가 고 목청을 돋구던 적들은 이렇게 비명을 질렀다.

《이것이야말로 소경 제 닭 잡기가 아닌가?》

요행 살아남은 적들이 겁에 질려 한 말이 한입 건너, 두입 건너 마을에까지 퍼져 또 하나의 백두산전설이 태어났다.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겠다고 피눈이 되어 날뛰던 적들을 순간에 눈뜬 소경으로 만들어 제편끼리 죽일내기를 하게 만든 홍토산자전투는 참으로 통쾌한 전투였다.

○ 가사 ○

최고사령관기의 원수벌

김 석

해방된 봄날에 김정숙어머님
아드님의 장군복 지으시였네
아버님의 뜻을 이어 장군되여라
모자에 붉은별을 수놓으셨네

어머님 수놓으신 그날의 붉은별
오늘은 원수벌로 빛을 뿌리네
내 조국의 밝은 앞날 그려보시던
어머님의 념원이 별로 빛나네

위대한 령장의 기상을 안고
백승을 펼치는 최고사령관기
어머님의 념원이 꽃핀 강산에
장군님의 원수벌 찬란히 빛나네
아 빛나네 원수벌 원수벌
최고사령관기의 원수벌

약속의 세계



김준학

찰각 찰각...

연해연방 샤타누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기자회견장은 마치 명멸하는 변화가의 장식불처럼 쉽게 번쩍거리는 눈부신 백광으로 하여 어지럽이 날 정도였다.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심정학은 오연히 고개를 쳐들고 앉아 대답을 기다리고있는 30 대의 금발 머리녀성을 이윽도록 응시하였다.

서유럽의 어느 한 대중일간지의 특파기자라는 로젠, 그의 옅은 뺨에는 넓은 이마에 도전하듯 발끈 쳐들려있었다.

《단장선생, 우리 유럽에는 〈무지개가 15 분이 나 비껴있으면 벌써 그것을 올려다보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국민들의 지지와 환호속에 정권을 잡았던 적지 않은 당들이 오늘 시간의 흐름과 함께 〈무지개의 15 분〉으로 그 존재가치를 잃고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넘는 그리고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귀당의 영광을 세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진홍빛의 유표한 달린옷차림을 한 로젠이 방금 전에 던진 질문이었다.

유럽의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21 세기와 정당정치-그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토론회가 성대하게 진행되고있다.

서방정치체제특유의 다당제정치에 대한 이 토론회에 이례적으로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초청받은것은 곧 현세계의 정치기류를 가늠케 하는 하나의 척도이며 대사변이라고 회의시작전부터 언

론들은 이구동성으로 떠들어왔었다.

어느 신문에서는 그 주최국이 다름아닌 《풍차의 나라》라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덧붙여서 제 나름으로 대서특필하고있었다.

심정학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은 한여름의 폭양을 뚫고 이 나라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이래 련일 강연과 토론, 기자회견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기자회견만도 벌써 세번째였다.

그만치 이 나라에 온 우리 당대표단, 아니 조선로동당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기대는 상상을 초월할만치 자못 파격적이었고 열광적이였다.

하긴 권력쟁탈과 그 고수를 위해 이리떼같이 출몰하는 형형색색의 크고작은 정당들의 와류속에 하루아침에 정부가 침몰하고 정권이 표류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인류가 참다운 정당건설과 그 정치를 갈구함은 당연한 일일것이였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 대해 너무도 물리해한 그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줘야 족할것인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로젠은 심정학이 자기의 질문을 그 무슨 도발적인것으로 받아들인것이나 아닐가 하는 위구심에 사로잡힌듯 황급히 장식깃이 나떨어진 금빛투구같은 머리를 갑작 숙여보이며 동을 달았다.

《맹전이 종식된 오늘 세계는 일시적인 이데올로기의 대결보다도 최후의 승부를 대중할수 없는 무차별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전쟁의 시대로 돌입하고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사했다고 해도 물질생활상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집권자나 정치집단은 나중에는 〈국민의 적〉으로 지탄되어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는 웅성거리는 사위를 둘러보며 확신성있게 말을 계속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귀국은 최근 10 여 년간 미증유의 경제난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귀국을 보는 우리 서방의 시각이 아무리 편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요? 나는 그런 사상최악의 정황속에서도 어떻게 되어 귀당이 국민들의 항구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신뢰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또 굳건한 사회적안정과 단합을 과시하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산중의 호수처럼 그윽해보이는 로젠의 눈동자에서는 진리의 빛을 찾아 맴도는 한마리의 파란 반디불이 애처로이 날개를 파득이고있는듯싶었다.

기자회견이 진행될 때마다 늘쌍 앞자리에 앉아 오고가는 질문과 대답들을 주의깊게 들으며 반신반의의 표정을 짓군 하던 로젠의 그 질문을, 온 세계가 알고저 하는 그 세기적인 인류정치사의 수수께끼를 왜선지 그는 딱딱한 정치용어로 해명하고싶지 않았다.

《로젠선생.》

장내는 악사들을 향해 높이 쳐들린 지휘봉을 본 관람석마냥 삼시에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여러분!

나는 로젠선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불미스럽게도 내가 〈재판석〉에 나섰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정학이 뜻밖의 말을 하자 웅성웅성 놀람과 의혹의 물결이 일었다.

재판을 받다니?! 무엇때문에 그가 재판을 받았을가? 휘둥그레진 사람들의 눈앞에는 망측하고 해괴한 상상들이 저마끔 떠오르는듯 했다.

일본총리류의 퇴물추문건? 혹은 미국대통령류의 성추문? 하다면 그것이 로젠의 질문과는 어떻게? ... 아리송하고 긴장된 호기심은 시간을 재촉한다. 목적이 중합을 빙자하여 비렬한 동기와 수단을 고상한듯이 미화분식하는것이 이른바 《정치》요, 등치고 간빠먹는 사기협잡군들과 쌍둥이라고 비양을 받는 족속들이 《정치가》들이라지만 그래도 고양이뿔같은 그들의 추문으로 하여 출판보도업계가 호경기를 맞게 되니 모두가 달팽이처럼 촉각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심정학은 조리있게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펴나갔다.

《...이렇게 되어 나는 〈재판〉을 받았고 생선현장에 내려가 로동으로 죄를 씻게 되었습니다.

로젠선생, 나의 이 체험담이 당신의 그 〈무지개〉의 15 분)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할가요?》

《감사합니다. 단장선생!》

그날밤, 심정학은 례의 그 금발머리녀기자와 응접실에서 다시 마주앉게 되었다.

《나는 단장선생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듣고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나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의혹의 안개가 더 짙게 서린듯싶은 로젠의 눈, 탐방기자다운 모험적인 정열과 집착심, 진실추구의 강렬한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그 눈빛, 심정학은 거절할수 없었다.

《로젠선생을 위해 별수없이 짧은 밤에 긴 노래를 불러야겠구만.》

거리의 네온등빛이 색색으로 엇바뀌며 물드는 연회색창가림에 추억의 눈길을 보내며 심정학이 말했다.

1

1980년대초 어느해 9월말이었다.

몇해전부터 토포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일하고있던 심정학은 급히 평양으로 올라오라는 당중앙위원회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는것일까?)

딱히 짚이는데가 없었다.

무슨 긴급한 새 과업이 제기되어 부르는것이라고 생각한 심정학은 바빠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평양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다.

《방학에 집으로 달려가는 어린 학생과도 같이 그렇게 환희에 찬 심정》으로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도착한 그는 경건한 몸가짐을 하고 김정일동지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하지만 다음순간 그는... 당황했다.

마치 방을 헛갈려 불쑥 뛰여든 사람처럼,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한동안 그를 쳐다보시다가 창문가로 머리를 돌리시었다.

무거운 정적.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달긴 양복의 옷단추를 하나 벗기시더니 단도직입으로 그에게 물으시었다.

《5월 1일광산에 가본 일이 있소?》

《?!》

너무도 뜻밖의 물으심이었다.

그는 한순간 당혹했다가 이내 온몸이 굳어졌다.

《예...》

기여들어가는 목소리,

《그렇다면 동무는 그곳에 있는 흑연건조장에 대해 잘 알고있겠소?》

그제서야 그는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우리 수령님께서 원철로를 폭파해치우신지가 언제적 일인데 동무는 아직도 그런 한심한 작업장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으면서도 그냥 속수무책이었던 말이요?》

애써 분기를 누르며 하시는 그이의 책망에 심정학은 고개를 꺾었다.

침묵 그리고 시인.

어떻게 되어 5월 1일광산 흑연건조장문제가 문득 불거지게 된것인가?...
사연은 이러했다.

어제 아침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년간 대중적운동으로 더욱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문제를 료해하시기 위해 수도에 판정을 나갔던 한 일군을 집무실로 부르시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5월 1일광산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를 위해 내려와있는 수도인민병원의 한 의료일군이 광산에 대한 중앙판정을 보류해달라고 제기했다는것이였다.

《왜 자각이 없다는겁니까?》

사뭇 의아하여 차분히 물으시었다.

《예... 그 광산에는 아직 먼지가 나는 흑연건조장이 있는데 문제는 그곳 작업장의 노동자들 가운데서 호흡기질환환자가 발생하고있다고 합니다. 그 의료일군은 그런 작업장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기술혁명과제를 수행했다고 볼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의료일군의 한사람으로서, 또 당원으로서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중앙판정을 보류해줄것을 제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언제인가 수도에 있는 흑연건조장을 개조했다는 소릴 들었었는데 그렇게 한심하단 말이요?!》

선뜻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셨다.

《한데 심정학도당책임비서동무는 5월 1일광산에 그런 작업장이 있다는걸 모르고있습니까?》

《책임비서동무는 매일이다싶이 그 광산에 내려와 본답니다. 광산이 계획을 드리게 되면 나라의 경제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혀 그 일군의 말이 들리지 않으셨다.

(정말 심정학이 그렇게 일하고있단 말인가?)

수령님앞에서 심정학을 보증하여 수도당책임비서로 추천하신 그이의 심증은 무등 착잡하고 번거로웠다.

몇번이나 루루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오신 문제였던가,

수도는 공장, 기업소들이 밀집되어있는 공업도시고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있는 도여서 뭐니뭐니해도 그들의 생활에 선차적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떠나는 그에게 다시금 간곡히 당부하셨던 문제였다. 그런데 심정학은?!
절대 소홀히 경시할 문제가 아니였다.

즉석에서 보건부문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5월 1일광산에 내려가있는 의사를 통해 그날중으로 흑연건조장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저녁에 받으신 보고는 자못 놀라운것이였다.

근 10년전, 당시의 수준에 맞게 흑연건조장을 개조해놓았지만 그후 설비들이 낡고 성능이 떨어져 작업장에 먼지가 떠돌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을 내버려두면 앞으로 노동자들속에서 난치성호흡기질환환자가 발생할 우려조차 있다는 엄중한 사실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송수화기를 내려놓으시었다.

(이것은 중대비상사건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시려고 고요한 정원길을 거니시었다.

눈앞의 열려진 소로길우에서는 때를 지어 압전한 잡자리들이 오선지우에 그려진 경쾌한 곡조의 소리표처럼 물동적으로 공간을 오르내리며 저들나름의 음악을 펼쳐보이고있었다.

허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줄곧 생각에 음하여 눈앞에 동화상으로 즐겁게 흐르는 신비한 악보의 세계를 전혀 감득하지 못하신듯 정원길을 걸으시었다.

(나는 무엇을 보고 그러도 심정학을 사랑했던가?)

그이의 뇌리에는 불현듯 황해제철소를 자동차의 본보기단위로 꾸릴데 대한 어려운 과업을 받아안고 밤낮으로 뛰고 또 뛰어 1년반 남짓한 기간에 완전무결하게 끝내고 돌아온 심정학의 기쁨에 넘친 수척한 얼굴이 떠올랐다.

새 일감을 달라고 무작정 때를 쓰는 그를 억지로 휴양지로 떠나보내시던 일이며 또 휴양기일을 절반도 못채우고 돌아온 그를 호되게 질책하시면서도 짧은 일군다운 패기와 정열이 못내 대견하고 미더우시여 밤깊도록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던 별많은 그 밤이 가물가물 떠오르시었다.

그 애모쁜 회억속에 메아리처럼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 예닐곱살소년의 안타까움에 젖은 목소리,

《정순아, 울지 말어. 오빠가 이제 꼭 하늘의 별을 따올게 응, 그러니 울지 말어. ...》

소년 심정학이 누이동생을 달래이며 했다는 어린시절의 토막대사, 그밤에 들으셨던 심정학의 과거이야기가 그이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비행사였다.

그들 오누이에게 있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아버지는 곧 하늘이였고 하늘은 또한 황홀한 꿈의 트랙이였다.

어느날 《이건 하늘나라에서 가져온 선물이다.》고 하면서 희귀한 당과류들을 가져온 아버지에게 4살잡이 정순이는 다음엔 하늘의 아기별을 따라달라고 졸라댔다.

아버지는 꽤히 어린 딸과 애기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지만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별을 따가지고 돌아오지 못했다. 며칠후에 전쟁이 일어났고 아버지는 첫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던것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철없는 정순이는 밤이 되면 아버지가 손가락까지 걸고서도 별을 따다주지 않는다고 어머니에게 성화를 먹이였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바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는 오누이에 대한 옛말을 들려주었지만 앵돌아진 정순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했다. 쿵쾅쿵쾅 눈물까지 쥐어짜는 어린 동생을 달래며 정학은 별을 자기가 따다주겠다고 했었다. 전쟁은 그들한테서 어머니마저 빼앗아갔다. 그들은 고아가 되었다. 란리통에 그는 동생 심정순과도 헤어져 그 생사조차 모르게 되었다.

별많은 밤이면, 그 별들을 올려다 볼 때면 동생에게 끝내 별을 따다주지 못한 그 마지막약속만이 가슴속에 고드름처럼 맺혀 때없이 마음이 괴롭다고 언제인가 추억의 그밤에 심정학은 그이에게 무릅없이 속마음을 펼쳐보였었다. 가셨던 길을 되돌아 발길을 옮기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홀연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섬광처럼 눈부신 빛을 발산하며 뚜렷이 안겨오는 하나의 화폭을 보고계셨다. 어린 누이동생과 애기손가락약속을 하는 심정학의 숏되고 천진란만 한 모습!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맑고 푸른 가을하늘을 이윽히 올려다보시였다. 도시에서는 거의나 보기 힘든 매 한마리가 하늘꼭대기에 높이 떠서 파득이고있는것이 보였다.

그이의 주위를 날아에는 잠자리들이 공중에 그려놓는 악보의 선들은 그 어떤 비장한 곡처럼 안겨왔다. ...

하여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아침 첫시간에 당사자인 심정학을 급히 부르도록 하시였다.

그한데서 5월1일광산의 실태에 대해 정확히 확인한 다음 차후의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고 싶었던것이다. 한초한초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정적 그리고 침묵. **김정일**동지께서는 뒤집을 지신채 하냥 창밖을 바라보고계시였다. 그를 어떻게 할것인가?

심정학이 무척 측은해보이시였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저려나셨고 번거로우셨다.

《정학동무, 돌아가서 기다리오. 동무문제는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본 다음 결론을 주겠소.》

마침내 그이께서는 무거운 어조로 이렇게 말씀 그때 나는 그 우연한 일치를 두고 얼마나 기뻐

하시였다. 심정학은 자신이 어떻게 그이의 집무를 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때 심정학은 알수 없었다. 바로 문제의 그 불집을 터뜨린 의료일군이 다름아닌 **최도인**민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과장으로 일하고있는 자기의 동생 심정순이라는것을.

2

숙소로 돌아온 심정학은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며 그런듯이 결상에 앉아있었다. 그는 가슴 가득 차오르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번민의 물결 위에 떠있는 쪽배가 되어 출렁출렁 어딘가로 흘러가고있었다. 그는 각오했다.

등골에 섰하니 서리가 낄 정도로 무자비하고 원칙적인 동지들의 비판, 그리고 회의끝에 내려지는 무거운 당적처벌! 그런것을 각오하고나니 대낮인데도 눈앞이 새까맣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의 귀전으로는 오로지 동지들의 추상같은 목소리만이 들려왔다.

《그곳 사람들이 <탄적재장>이라고 말할만치 막후한 흑연건조장을 왜 동무는 개조할 생각조차 안했는가? 너무도 무책임하다... 파오면 이보다 더 엄중한 정치적파오가 또 어디 있겠는가!》

잠못들며 몸부림치던 그날 밤,

심정학은 **김정일**동지께서 찾으신다는 전갈을 받게 되었다. 그는 불밝은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달려갔다. (이밤 왜 나를 다시 찾으시는걸가?)

심정학은 한바탕 소나기가 내린 뒤이면 하늘에서 땅위로 다리를 놓는 무지개가 비끼듯이 한밤의 부르심이 자기를 향해 비쳐오는 그 어떤 따뜻한 사랑의 빛임을 막연하게나마 의식하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원등이 환히 켜진 파릿한 소로길을 거닐며 심정학을 기다리고계시였다.

얼마 안있어 투닥투닥 재우쳐건는 발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가로등불빛에 심정학의 모습이 환히 드러나보였다. 가로등을 등지고 선 탓인지 그의 얼굴이 그늘음이 낀 등갓처럼 꺼멥게 보였다.

(흑연건조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얼굴도 저렇지 않을가?...)

이 시각에도 흑연건조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얼굴이 삼삼히 밝혀오며 환영처럼 얼른거렸다.

(내가 심정학을 **최도**에 보낸데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었다. ... 그의 누이동생이 **최도**로 옮겨와 살고있다는것을 나는 그가 떠나기 며칠전에야 알게 되었다.

했던가, 오래동안 헤어져있던 그들 오누이의 친

동기간의 정이 더 유별해질거라고.)

심정학의 남다른 과거사를 알게 되신 그때부터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의 동생을 찾기 시작하시었다. 사진도 없고 생사조차 묘연한 그를 오직 이름 하나만으로 찾는다는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였다. 그때로부터 수년간 세월이 흘러서야 **김정일** 동지께서는 심정순의 행방을 알게 되시었다. 그를 찾기가 그토록 어려웠던것은 그가 지내 어린 나이에 오빠와 헤어지다니 자기의 성을 《심》가가 아니라 《신》가로 알고있었던때문이었다. 그 녀인이 분명한 심정학의 누이동생임을 증명해준것은 어릴적의 모색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신하여 하늘의 별을 따주겠다고 애기손가락을 걸었던 오빠에 대한 회상이었다.

믿는 도끼에 발잔등 찍힌다고 것처럼 믿고 정을 기울여온 심정학이 그런 융화목과할수 없는 파오를 범했으니 어찌 꾸짖음으로 자신의 그 속타는 마음을 다 표시하랴.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인 정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속과 책임의 끊임없는 엮바뀜이라고도 할수 있다.

단순한 체육경기를 하고도 그 성과와 교훈을 총화하거늘 엄중한 정치적손해나 실책을 놓고 그 누구한테도 책임을 따져물을수 없고 죄에 따른 벌을 적용할수 없게 된다면?

김정일 동지의 마음은 그 시각 더 피롭고 고통스러우셨다.

《심동무, 그래 동무가 그전에 황해제철소의 자 동화를 책임지고 완수한 그 심정학이란 말이지요? 행정일군도 아닌, 그것도 한개 도당의 책임비서 가 어쩌면 그럴수 있소. 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너무도 리해가 되지 않아서 이밤 동무를 다시 찾은거요!》

저도모르게 높아진 그이의 음성이 어둠속에 공명을 일으키며 들려왔다.

삼라만상이 조마조마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듣는듯싶었다.

《우리 노동자들은 나라사정이 것처럼 어려웠던 전후시기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면서 오히려 우리 당을 위로하고 받들어준 고맙고 훌륭한 동지들이요. 그래 동무는 그런 우리 로동계급에게 정이 가지 않소? 사랑이 가지 않는가 말이지요.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라도 더 안겨주고 돌봐주고 위해주고싶은 생각이 심장에서 저절로 우러나지 않는가말이지요? 로동계급이 혁명의 령도계급이라는것은 결코 종이장우에서만 올리춰주는 빈말이 아니요. 우리 당이 것처럼 아끼는 로동계급을 잘 돌봐주지 못했으니 이보다 더 큰 죄악, 재판정의 재판관은 5월 1일광산의 전체 노동자들,

더 큰 배신행위가 또 어디 있겠소?》

근엄하신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리고 동무는 몇년째 광산당위원회와 도당의 결정서에 올라있는 흑연건조장개조에 대해 관심을 돌려달라는 제의도 어느 회의에선가 받은적이 있었는지? 동무는 그래 도당의 결정이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제강인줄 아는가?》라고 하시었다.

머리를 수그리고 차렷자세로 선 심정학은 마침내 《제가... 일을 잘하지 못하여 ... 정말... 면목이 ... 없습니다.》 하고 뼈를 깎는듯 한 아픔을 감수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동무는 아직도 내 앞에 면목이 없단 말이지. 아니,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는 회의에서나 비판하고 당적으로 처벌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요. 흑연건조장문제는 응당 법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동무는 마땅히 〈재판정〉에 나서야 하오!》

무척 준절하신 어조로, 무거운 낮빛으로 마디마디 력점찍어 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비단 추호의 용납을 모르는 엄한 처벌의 말씀만이 아니었다. 인민을 위한 일, 우리 로동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법이 아니라 칼날우에라도 나서실 그이의 드팀없는 의지의 분출이었고 결단이었다.

《심동무, 이제 날이 밝으면 모든 도당책임비서들과 정무원위원회 부책임일군들과 함께 5월 1일광산에 가야겠소. 그곳 로동자들앞에서 동무는 〈군중재판〉을 받아야겠소!》

심정학은 저도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를 기다리고있는것은... 재판이었다.

3

그날 아침 일찍 5월 1일광산으로 내려갔던 심정학은 밤이 깊어서야 그이의 집무실에 당도했다.

그와 함께 5월 1일광산에 내려갔던 당중앙위원회 회의 한 일군으로부터 그곳에서 진행된 류다른 《재판》에 대해 **김정일** 동지께서는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었다.

...로동자들로 꼭 들어찬 광산문화회관에서 심정학은 《군중재판》을 받게 되었다.

방청으로 중앙과 지방의 책임일군들이 참가했다.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내려온 일군이 사회발언을 하였다.

《오늘 여기서는 도당책임비서 심정학동무의 사업상과오를 놓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바로 동지들입니다!》

《재판》의 시작을 엄숙히 선포하자 장내는 잠시 죽가마 끓듯 했다. 그 웅성거림속을 뚫고나선 심정학은 불명예스럽게도 《피고》석에 나서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광산로동자들의 로동보호문제를 소홀히 했던 잘못에 대해 솔직히 자인하였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물을 뿌린듯 조용하던 만장이 수림에 한줄금 소나기가 쏟아져 내릴 때처럼 소연해졌다.

먼저 구레나룻이 희숙희숙한 로동자가 객석이 온데서 일어났다.

《여러분, 나는 20 여년을 흑연건조장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책임비서동지의 자기비판을 듣고 열적은 마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두 번이나 개조한 흑연건조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얼굴에 검댕이가 조금 묻는것이 무슨 그리 야단스러운 큰일이겠는가. 우리들은 그걸 농민들의 손에 흙이 묻고 어로공들의 몸에서 비린내가 나는것만치나 당연하고 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지금껏 여겨오지 않았소. 난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을것이 아니라 한시바삐 작업장으로 달려나가서 흑연을 더 많이 생산하고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는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우리를 위해주시는 그이를 더 잘 받드는 일이 아닌가고 생각하웁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시오. 옛적부터 재판이란 거야 판가에 아무개의 죄를 고소하는 원고가 있어야 피고도 있게 됐은즉 그래 우리 로동자들중 그 누가 원고란 말이요.

난 오히려 나라에서 흑연건조장을 또다시 개조해줄 때까지 울방자를 틀고앉아 투정질하는 로동자가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재판정〉의 피고이고 역적같은 시러베아들놈이라고 생각하웁니다. 그렇지 않소?》

그러자 객석 여기저기서 《아바이 말이 옳소!》, 《옳소!》 하는 고향소리가 이구동성으로 울려나왔다. 이때였다.

장내 뒤구석쪽에서 누군가가 엉거주춤 일어났다. 관공이 약간 두드러지고 류달리 코등이 덜름하게 큰 무척 인상적인 얼굴, 게다가 《도당책임비서동지,》 하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뜨적뜨적 말을 때는 석싹한 목소리, 금시 그의 온몸은 짜늘해졌다. 얼추 짙이는 생각, 아 그때 그 사람이 아니던가?

《책임비서동지는 아마 저를 잊고계실수도 있을겁니다. 저는 작년말에 책임비서동지를 찾아가 회의때에는 우리 흑연건조장문제에 대해 떠들지만 회의만 끝나면 왜 모두 취중에 한 소리처럼 감감 잊고있는지 모르겠다고,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고 제기했던 그 로동자입니다.》

그렇다. 바로 그 사람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

자 심정학의 가슴은 느닷없이 물레 나쁜짓을 하다가 들킨것처럼 세차게 활랑거렸다.

그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리란것이 너무도 명백했기때문이었다. 그는 《원고》였고 심정학은 분명 《피고》였다.

무딘 낫으로 후려친 풀대마냥 고개를 푹 꺾고 서있는 심정학이, 평소예 남보다 체격이 배나 더 우람해서 한다하는 씨름장사로 보이던 그의 온몸이 마치 해별에 세워놓은 눈사람처럼 시시각각 줄아만 들었다.

《저는 그때 책임비서동지의 말을 듣고 경솔하게 행동한 자신을 두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는 얼떠름해졌다.

《이곳에서 일한지 3 년도 채 안되는 내가 감히 그런 제기를 할 자격조차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당에서 우리 로동계급을 나라의 만아들로 내세워주었으면 웅당 그 구실부터 잘할 생각을 해야지 대접부터받으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만일 우리들때문에 나라의 강철생산이 지장을 받게 된다면 그 후과는 얼마나 엄중할것이며 설사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공기맑은 작업장에서 일한다 한들 그 마음이 가벼울수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컨으로는 제 어머니앞이니 그런 투정질도 마음놓고 하는게 아닌가고 자신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좀처럼 속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이든 책임비서동지를 다시 찾아가 저의 그 철없는 행동에 대해 사죄하려고 했었는데 책임비서동지가 우리의 작업장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으니 마치 제가 말생을 일으켜 그렇게 된것 같아 바늘방석에 앉아있는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더는 우리들을 걱정하지 말아주시십시오! 우리 도당책임비서동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절절한 호소를 듣는 순간 심정학의 두눈에서는 건잡을수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얼굴, 그의 온몸은 그 눈물에 즐벅하니 젖어들었다. 그의 흑- 하는 흐느낌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여기저기서 로동자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저저마끔 언권을 요구했다.

《중앙에서 내려오신 간부동지들! 우리 광산로동자들의 자그마한 불편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더는 우리들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올려주십시오. 우리 광산로동자들을 위해 얼마전에는 도에서 제일 유능한 의사선생님들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이제 더 무엇이 모자라고 또 무엇이 요구된단말

입니까?)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자리에 앉은 젊은 노동자의 옆에서는 한 녀인이 얼굴을 가리우고 어깨를 들먹이고있었다.

그는 바로 심정순이었다

언뜻 누이동생의 모습을 띄여본 그는 수치와 피로움으로 하여 금시 쥐구멍에라도 얼굴을 틀어박고싶은 심정이였다.

아버지를 욕되게 한 불효자, 동생보다 똑똑치 못한 부실한 오빠! - 무자비한 단죄가 무작정 그의 이마뺨을 절구공이처럼 내리쳤다.

《재판》은 계속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재판이 아니였다. 노동자들의 심장마다에서 터져나오는 열화의 그 웨침과 진정의 분출, 사뭇치는 걱정 of 물결은 도도히 한쪽으로 지향되였다.

그것은 오늘의 이 《재판장》에서 굳이 격식을 갖추어 《판결문》을 채택해야 한다면 거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더는 자기들의 노동조건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주실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조항도 꼭 박아넣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일치한 제의였다.

크나큰 사랑의 파도가 외진 산골에서 소문없이 살던 그들의 흥벽을 광광 두드렸던것이다.

그 제의는 장내의 한결같은 호응을 받았고 즉시에 실행되였다.

일이 이렇게 번져지다나니 《재판》은 자연 **김정일**동지께 다지는 이곳 노동계급과 일군들의 결의모임으로 뒤바뀌게 되였다.

감동적인 일은 그뿐이 아니였다.

《재판》이 끝나자 오빠의 파오를 씻기 위해 5월 1 일광산진료소에서 의사로 일하겠다고 심정순이 단원했다.

흑연건조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김정일**동지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나가겠다고.

그이께 드리는 일군의 보고를 통해 그때의 감개무량한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 심정학의 눈에는 저도모르게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라 눈곱이 축축해났다. 자기의 죄과를 다지는 《군중재판》이 광산노동계급의 심장마다에 혁신의 불을 지켜주는 계기가 되리라고 어찌 꿈엔들 생각할수 있었으랴!

심정학은 자신이 무엇을 물랐던가를 돌이켜보았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저는 그 어떤 법적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에게 더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는 공손히 머리를 숙이였다.

이루 말할수 없는 감격을 체험한 뒤의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그들을 위해서라면 웃으며 물과

불속에라도 뛰어들 그런 만만한 기백과 호협한 의기에 충만되어있었다.

더 큰 벌을 내려달라고 한 그의 청은 결코 그 어떤 여유를 바라고 한 말이 아니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멀리 어둠이 짙게 서린 창밖을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드숫아오르는 걱정을 바이 억제하기 어려우신듯 닫긴 창문을 활 열어젖히시였다.

그이의 뜨거운 심장의 열기를 심정학은 온몸으로 속속들이 체감하고있었다.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몇걸음 집무실을 거니시던 그이께서 우뚝 멈춰서시였다.

《얼마나 좋은 우리 노동계급이요! 그들의 정신세계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정신세계와 대비조차 할수 없을만큼 높소. 이번일도 그렇지. 그대 바로 조선의 노동계급이요!》

김정일동지께서는 함뿔 정에 젖어 빛나는 눈길로 그를 굽어보시였다.

《심동무, 그대 그 흑연건조장을 언제까지 개조할수 있겠소?》

당연한 물으심, 그러나 심정학은 그이의 물으심에 총망중 《예?》하고 반문이나 하듯 놀란 표정을 지어보였다. 이런 그를 의아하게 바라보시는 **김정일**동지의 눈길에는 점차로 엄한 빛이 서렸다.

열결에 새어나온 그의 작은 입소리를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무슨 청천벽력으로 느끼시는것 같았다. 그이의 얼굴에는 마치 11 메터벌차기를 한 공이 왕청같은데로 날아가는것을 기가 막혀 바라보는 그런 실망의 빛이 어려있었다.

정적을 깨뜨리며 들려오는 음성은 높지 않았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소. 정신이 덜 들었던 말이요! 동무는 오늘 노동자들앞에 자기의 잘못을 사죄하려갔댔소 아니면 자기 변명이나 하자고 갔댔소? 똑똑히 대답해보오!》

그이께서는 대노하셨다.

심정학이 오늘 노동자들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는 용서란것이 서훈짜리 거짓말이었던말인가?! 그는 우리가 현지의 노동자들앞에서 재판을 조직한것이 한갓 순박한 그들을 감동시켜 그 무슨 《만세!》나 함창하며 일하게 하자고 교안해낸 《연극》으로 알고있는것은 아닌가?

그는 지금껏 이처럼 진노하신 **김정일**동지를 처음 보았다. 그이께 차마 말씀드릴수 없었다.

광산노동자들에게 성능이 좋은 마스크를 속히 공급해줄 대책을 세우려고 한데 대해 심정학은 아뢰이지 못했다. 못내 민망스럽게 그리고 죄스럽게 그는 서있었다.

마치 서리를 기다리는 마가를 초목이런듯,

《내가 지금껏 동무를 잘못 보았구만. 철없는 누이동생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은 그렇게 가슴에 맺혀하면서도 왜 우리 로동계급과 한 약속은 헌신짝 채버리듯 할수 있는가 말ियो?》

그는 두눈을 꼭 감았다. 모래알이 들어간듯 무척 짙어지고 화끈 달아오른 두눈속에서는 쇠물같은 눈물방울이 똑똑 떨어져내렸다.

그는 사실 5월 1일광산 로동자들앞에서 용서가 아니라 쇠뿔이찌질질을 청했어야 했다.

심정학은 자신이 너무도 어리석고 소심하며 다소 정직하지조차 못한 놈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듯 했다. 그렇다. 방금전까지만도 나는 새로운 결의에 넘쳐 그이앞에 나서지 않았던가.

이번 기회에 로동자들의 비등된 열의를 총발동하여 올해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기쁨을, 만족을 드리자고, 그 사랑에 우리모두 보답해야 한다고 굳게 벌려왔었다. 아, 그런데 나는 정녕 무엇을 몰랐던것인가?

아직은 다 깨닫지 못한 혹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수도 있는 그런 산같은, 그런 하늘같은 그 무엇이 있는듯했다.

파연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심정학은 소리없이 울고있었다.

그를 말없이 바라보시는 김정일동지의 마음은 무척 아프고 쓰라리셨다.

그이께서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담배팩에 손을 가져가시었으나 곧 단념하시었다.

《전…전 … 책임비서자격이 …》

말라버린 눈물자욱과 굳어진 눈동자로 하여 심정학의 얼굴은 비장하게조차 보였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었다.

용서를 비는 자식에게 더 매질하는 어머니가 어디있으랴!

《정학동무…》

속삭이듯이 조용히 부르시었다.

젊은 아들의 머리맡을 짚어보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살뜰한 정의 부름.

김정일동지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이건 그 무슨 자격문제가 아니요. 인민과 로동계급을 자기의 친혈육으로 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우리 일군들의 심장에 관한 문제이지.》

심정학을 여겨보시던 그이께서는 《그래 5월 1일 광산흑연건조장을 한달후나 석달후 혹은 반년후에 개조해도 무방한것이라면 내가 왜 동무를 <군중재판>에 내세웠겠소? 동무는 우리 당에 대해, 우리 수령님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있소.

1947년 9월,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기 1년전 강재 한톤이 그리도 귀했던 그때에 수령님께서 원철로를 폭파하도록 하시었소. 그래 그것이 그 아무리 호되게 후려쳤다해도 어머니가 든 때는

무슨 정치적이었는가말ियो?》하시며 어이없어하는 낯빛을 지으시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었소. 우리 당, 조선로동당은 당의 강령으로도 위대하지만 그 강령의 드팀없는 실천과 구현으로 더 위대하오. 우리 당은 인민에게 행복을 약속했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심호흡을 하시었다.

《세계를 둘러보오. 얼마나 많은 당들과 정치 집단들이 있소? 그들이 내건 공약과 강령은 또 얼마나 많고… 그러나 우리 당이 인민과 한 약속, 그것은 그 무슨 집권의 수단이 아니라 최종목적이며 본령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인민에게 술책이나 책략을 모르는 진실하고 솔직한 당,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따뜻한 정으로 일관된 당,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해주신 우리 당, 조선로동당이란 말ियो!》

이미전에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선득선득한 밤공기가 흘러들고있었다.

김정일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일한다고 하여 곧 일군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하늘에 높이 떠서 태양의 빛과 열을 제 한몸에 더 많이 받아안으면서도 땅우에는 그들을 드리워주는 그런 새털구름처럼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가까이에서 남달리 받고도 보답을 따라세우지 못한 자신이 어떻게 일군이란 말인가?

부지중 이런 생각이 갈마들었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그 태양의 사랑과 정을 인민에게 고스란히 안겨주는 해발이 되지 못하고 구름이 된 자신, 한방울의 단비도 주지 못하는 비단구름에 불과한 자신을 발견한 순간 그는 털썩 주저앉고싶었다.

그를 부축하여준것은 김정일동지의 신심에 넘친 말씀이었다.

《정학동무, 난 이미 결심했소. 우리 로동자들을 그런 건조장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게 할수 없다고말ियो. 몇년째 미루어온 도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의미에서도 그래 만사를 제쳐놓고 매일 부터 당장 흑연건조장개조를 시작하자는것이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요.》

김정일동지께서는 굳게 주먹을 틀어쥐시었던 손을 그의 어깨우에 얹으시었다.

《정학동무, <군중재판>이 끝났는데도 내가 왜 동무를 다시 부른줄 아오? 나는 동무가 비록 파오는 범했지만 흑연건조장개조를 책임지고 일할새 파업을 주려고 생각했었소. 그러나 내가 오산한것 같소. 그러니 동무는 래일부터 그 개조공사장에서 로동의 땀으로 파오를 씻어야겠소. 그곳 광산로동자들이 용서했다고 해도 나의 량심은 그걸 허락치 않누만. 이번 기회에 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시오.》

아프지 않으며 그것은 한점의 흔적도 남기지 않

는 법이다. 왜냐면 어머니의 매는 증오와 환멸이 아니라 사랑중의 참사랑이며 정가운데서도 가장 진실한 정이기때문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세관게 잡아주시었다. 심정학의 온몸에 맥맥히 굽이쳐흐른것은 온기만이 아니라 생명의 힘이었고 신비한 사랑의 넋이었다.

《알았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겨운 시선으로 이윽히 심정학을 바라보시었다.

잠시후 심정학은 그의 집무실을 나섰다.

4

흑연건조장은 불과 한달남짓한 기간에 전부 개조를 끝내게 되었고 광산은 방대한 년간계획도 완수했다. 그러던 어느날 심정학은 5월 1일광산진료소 소장으로 일하고있는 동생과 함께 평양으로 올라오라는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순동무가 보고싶다고, 우리 로동자들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매일 매시각 애국으로 뛴뛰는 그들의 심장의 박동을 듣고 살아온 당의 참된 보건일군이였기에 것처럼 우리로동계급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껴줄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당을 위해 좋은 제기를 해준 그의 동생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하였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실에서 그들 오누이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시었다. 오래간만에 헤어졌던 부모와 만난듯 한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그들 오누이는 시간이 가는줄도 몰랐다.

창밖에는 벌써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처럼 기쁜날에 함께 정원을 거닐자고 말씀하셨다.

언제나처럼 맑고 선명하고 풍만한 밤하늘이 머리위에 쭉 펼쳐졌다.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별술아래로 기러기떼가 허공에 노래를 가득 채우며 줄지어 날아갔다.

바람에 불린 잉겔불처럼 별들은 유난히 밝았다.

《언젠가 이런 밤에 정학동무가 나에게 행방을 모르는 정순동무의 이야기를 했던 일이 생각나누만.

하늘에는 저렇게 별들이 많은데도 난 아직 동생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던 동무의 그 고백이 말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정학동무는 우리 당이 인민에게 한 약속에 언제나 충실한 그런 일군이 되리라고 보았소.》

가슴속에 품고계시던 그의 뜨거운 심회를 읽으며 심정학은 입술을 꼭 감쌌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아득히 흘러가버린 옛일을 회인 사랑, 그 자체이기때문이요. 그래서 대가를 바

고하실적부터 별스레 그의 심장이 쿵쿵 뛴뛰었다.

그이의 말쑥에 심취된 심정학의 눈앞에는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꿈으로 충만된 그 시절, 그는 밤이면 때로 하늘나라로 올라가 별을 따다 동생에게 주는 꿈을 꾸곤 하였었다.

그런 꿈을 꾸는 날 아침이면 그는 마치도 자신이 별나라를 정복한 장수처럼 생각되곤 했었다.

그때처럼 심정학의 마음속 깊은곳에서는 불가사의한 힘과 용기가 불끈 솟아올랐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즐겨 말씀하시곤 하시었소.

〈인민이 바란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고, 하늘의 별을 따다준다는것은 바로 자기의 심장을 통채로 다 준다는 말이요.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들처럼 자기의 심장, 자기의 사랑함과 애정을 깡그리 다 바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수 있소. 나는 우리 인민을 아버지의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그리고 수령님의 당인 우리 조선로동당만이 인민을 위해 저 하늘의 별을 따올수 있다고 굳게 믿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색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이마가 도도룩한 정순을 바라보시었다.

《그래, 이제 광산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했다는데 동무네 진료소에서 준비한 예술소품에 정순동무는 뭘 가지고 출연했소?》

《예, 저는 새로 나온 서정시 〈어머니〉를 랑송했습니다.》

《시 〈어머니〉라...》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자리에서 한번 읊어보라고 하시었다.

무대에 나선 배우처럼 그이앞에서 몸자세를 바로잡은 정순은 이내 자감세계에 빠져든듯 했다.

그는 감정을 잡아 시를 랑송하기 시작했다.

정순의 목소리는 시의 절정부분에 이어 절구에 더욱 격조높이 울렸다.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시랑송은 끝났으나 시는 계속 흐르고있는듯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는 영원히 아이적목소리로 부르고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하고 나직이 절구를 따라 읊으시었다.

별들의 속삭임도 들려올듯 사위는 고요했다.

《나는 정순동무의 시랑송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소.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구태여 자식들과 하는 그 무슨 약속이란 말이 필요없지 않는가 하고 말이요.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한 모든 약속, 그것은 그대로 어김없는 실행이요.

왜냐면 어머니의 약속은 의무이기전에 헌신적라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엔 약속이란 따로 없는

거요.》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리 당의 강령과 정책, 모든 결정, 그것은 우리 당이 인민 한사람, 한사람과 한 어머니의 사랑의 언약이요. 우리 당과 인민의 금강석같이 굳건한 그 결합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소.

우리 당이 인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려는 사소한 편향에 대해 친오빠라 해도 타협이나 양보를 모르고 투쟁할줄 아는 정순동무같은 이런 진실한 당원, 이런 인민의 참된 충복들이 많으니 말이요.》

정순은 가볍게 어깨를 떨었다.

두손으로 감싸지 않은 그의 얼굴로는 주르르 눈물이 반짝이며 흘러내리고있었다.

그것은... 별들이었다.

가을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그러나 심정학은 자신의 온몸이 그 어떤 거룩한 사랑의 빛에 휩싸여있다고 생각했다.

눈부신 빛의 손길로 하늘에 총총한 못별들을 모두 따서 땅우에 뿌려놓은 다음에야 하늘에 떠올라 대지의 아침인사를 받는 태양의 그 품에 이 밤 그들 오누이가, 아니 온 나라 인민이 안겨있었다. 영원한 사랑의 그 세계에!

×

심정학의 이야기는 끝났다.

길고도 짧은, 아니 짧고도 긴 이야기였다.

로젠이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타는듯이 빨갭게 익어있었다,

《단장선생!

나는 오늘 밤, 그렇듯 감동깊은 이야기를 통해 참으로 위대한 세계를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단장선생앞에 다짐해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과 위대한 조선의 참모습에

대해 언제나 공정하게 보고 온 세계에 널리 소개 선전하겠다는것을 말입니다.》

심정학과의 단독기사회견은 다음날 석간신문에 실려 대파문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얼마후 조국에 돌아온 심정학은 로젠이 보낸 편지를 받게 되었다.

《...날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태양이 솟아올라 빛과 열을 주는것은 땅에 대한 하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과 그 약속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엄청난 그 룰리가 있어 우주에 순리와 질서가 있고 삶이 약동하는것이 아닐가요? 태양이 있는 한 삶의 환희로 충만된 그 세계는 영원무궁할거예요.

그런 영원의 세계가 이 행성우에 현실로 존재하고있음을 나는 뒤늦게나마 지금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인류와 미래를 위해 그 얼마나 다행한 일일가요? ... 인류정치사에는 실현할수 없는 화려한 정치공약을 수많은 내흔들며 그것을 하나의 책략으로 삼고 생존을 꾀하는 정당은 많았어 도 어머니의 진실된 사랑과 정을 본태로 하는 그런 어머니당은 오직 귀당 하나뿐이라고 확신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무구하고 진실하고 고상한 인간본연의 사랑의 세계, 말이 곧 실천으로 되고 당의 구상이 인민의 행복으로 무르익는 정치 룰리의 참세계를 나는 굳이 〈약속의 세계〉라는 말로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군요. ...

아, 우주의 태양과도 같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세계는 그이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으로 하여 사시장철 백화가 만발하고 〈젖과 꿀이 넘쳐흐르는〉 행복의 세계로 반드시 이 행성우에 우뚝 솟아오를거예요. 그 세계가 아마 당신들이 말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 이겠지요. ...

나의 작은 이 가슴속에 사랑과정이 넘치는 거대한 약속의 세계를 알게 해준 **김정일**장군님께서 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가사 ◎

영웅되여 장군님께 기쁨 드리려

김래옥

만나면 어머니라 찾고부르며
모두들 반가이 나를 둘러싸누나
잘있었느냐 보고싶은 나의 아들들아
마음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아 안아보자 미더운 돌격대 아들들아
언제를 안은듯 마음도 든든하구나

잠간만 헤어져도 보고싶어 왔으니
해별에 탄 얼굴 부끄럼 말아라
잘 있었느냐 보고싶은 나의 딸들아

마음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아 안아보자 미더운 돌격대 딸들아
발전기를 안은듯 마음도 뜨겁구나

산악같은 언제 쌓는 건설장에서
위훈을 떨친다니 어머니는 기쁘구나
다시만날 그날에는 영웅메달 빛내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 드리려
아 안아보자 미더운 돌격대 아들딸들아
완공된 그날인듯 마음도 기쁘구나

폭풍의 생애

김만영

2월이 왔다
첫봄의 서정
서리꽃을 피우며
이 나라 이 강산에
뜻깊은 2월이 왔다

바라노라
경사로운 이 아침
2월의 주인
우리 장군님의 생애를 삼가 우리르며
내 부르는 노래에
따사로운 봄빛이 가득 넘치고
청신한 훈향이 끝없이 흐르기를

바라노라
간절히 바라노라
유정한 소백수 산버들개지
양지바른 언덕 나무가지끝에서 떨어지는
깨끗한 물방울 그 하나
가슴에 젖어드는 봄의 속삭임이
내 노래에 고요히 비끼기를

하여 내
2월의 첫 숨결을 고이 안고있는
백두산밀영고향집
소중한 그 작은 문을 열고
삼가 들어서니

노래하기조차
서슴어지는구나
바라보는 눈시울조차
뜨거워지는구나

집이여
고향집이여
이 땅의 보통집과는 다른

밀림속의 집
빨찌산의 집이여

창밖엔 무성한 원시림이 설레이고
눈보라 세차게 불어치는
백두산빨찌산의 집
우리 장군님은 태어나 첫걸음부터
폭풍치는 백두의 광야를 걸어가셨거니
아, 장군님의 생애엔
아늑한 아래목이 없었구나

내 뜨거운 마음으로
안아보노라
고향집 작은 프락을 거쳐
백두산야에 찍혀진 발자욱
혁명의 준령들과 친구들에 새겨진
거룩한 그 발자욱을

세기와 세기를 이어
긴긴 세월 혁명의 먼길에
장군은 무수한 자욱을 남기시였어도
그 발자욱은 하나같았거니

그 자욱엔 있어라
10대에
혁명전통의 만년초석을 굳건히 지키려
백두산에로의 첫 행군길을 열어놓으시며
맨 앞장에서 힘차게 걸어가신
강철의 신념과 의지가

그 자욱엔 있어라
20대에
당중앙의 계단을 밟으시며
우리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영원한 투쟁의 기치로 선언하신
거창한 심장의 그 고동소리가

그 자욱으로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
우리 당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신분

백전백승의 선군기치 휘날리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분

오,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그 어떤 시련도 난관도 박차며
앞으로 앞으로만 전진하는 발자욱

걸음걸음
제국주의의 포위와 압살을 짓부시며
한치도 예돌아감이 없이
오직 곧바로 곧바로만 내짚은 발자욱

보라
강계의 눈보라속에 찍으신 그 자욱
이 나라의 철령과 오성산
눈비내리는 벼랑길에 찍혀진
자욱, 자욱을 더듬어보라

거기선 순간의 안정도 찾을수 없으리
우리 혁명에
역경이 모질면 모질수록
시련이 겹치면 겹칠수록
더욱더 큰 보폭으로
용기백배 앞으로 나아간 그 자욱

장군님의 그 발걸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치도 전진하지 못했으리
고난의 나날
세차게 불어치는 제국주의의 광풍에
우리의 세월은 휘감겼으리

넓으신 품에
인민의 운명을 안고
찬바람 눈비를 다 막아주며
오늘로 오늘로 걸어오신분
위대한 손길로
내 나라 내 조국을 이끌고
시대의 한복판으로 존엄높이 걸어오신분

아, 김정일장군
그이의 생애는
백두의 눈보라였다
세기의 폭풍이었다
력사의 폭풍이었다

낯고 침체하고 어지러운것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세계질서의 교란자, 인간정의의 원수들
력사의 그 오물들을 말끔히 쓸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인민의 새 세계를 태동시키는
혁명의 폭풍이었다

그이의 생애는
세상에 잘 알려진것
백두의 그날부터 오늘까지
언제나 군대와 인민들속에 계시며
생사고락을 함께 해오셨기에
그이의 생애는
지 하늘의 태양처럼 누구나 잘 아는것

허나
어느 문필가
어느 역사가가
그이의 생애를
다 수록할수 있었으랴
내 오늘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의 사연만을 이야기하노라

류달리 눈바람이 세차게 불어치던
어느해 겨울
전선길을 달리던
우리 장군님의 야전차
벼랑길 중턱에서 발동을 멈추었다

앞에는 태질하는 눈바람 눈바람
소리치며 무너져내리는 눈사태
온통 천지가 눈속에 묻히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거니

더는 한자욱도 옮길수 없는 길
더는 앞으로 갈수 없는 길
오직 하나 갈길은 차를 돌려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것뿐

침묵
무거운 침묵
그러나 그것은 짧은 한순간
동행한 일군들도 운전사도
장군님께 안타까운 심정을 아뢰였다

-장군님
더는 앞으로 갈수 없습니다

눈바람이 멎고 길이 열린 다음
아무 말씀없이
한마디 말씀없이
차에서 내리신 그이
병사들이 있는 최전연고지의 정점
눈바람 울부짖는 80리길을
이윽히 바라보시여라

-저기엔 나의 병사들이 있다
나는 그들의 최고사령관
병사들을 찾아가는 이 **김정일**에겐
넘지 못할 험산준령이 없다

그 뜨거운 말씀에 가슴이 젖어
수행한 일군들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나직하나 힘있게 울리는
그이의 음성
눈바람을 멈춰세우는가
-군마를 가져오라!

단호하신 명령
높이 드신 채찍
쥼 -
열어든 대기를 깨치며
막혔던 가슴들을 열며
하늘땅 공간에 메아리쳐가는
말발굽소리 말발굽소리 ...

흰갈기를 날리며 룡마런듯 호용하는
한필의 백마우에 몸을 날려
눈보라를 이끌고
천만산악을 거느리고
앞으로 앞으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장군의 그 기상이어

산악도 징검돌처럼 딛고 넘으시는
백두의 그 용맹
백두의 그 우뢰소리를
자욱자욱에 펼치며
번개같이 치닫는
김정일장군을 따라
조선혁명이 달렸다
선군조선이 나아갔다

그 기상
그 용맹앞에
천만봉우리들도 머리숙이고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천고밀림도 숨을 죽였거니
그이는 혁명을 위해
가셔야 할 길은
하늘이 무너져도 가시는분
그이는 조국의 존엄을 위해
하셔야 할 일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들이닥친다해도
기어이 하시는분

하늘이여 땅이여
우리 다시 새겨보자
산천초목이여
우리 다시 우러러보자

그이는
우리와 닮없는 인간
허나
그이는 인간이시면서도
우리와는 다른 전설적인간

그이는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태어나시여
거창한 산줄기의 대기를 호흡하시며
달리는 말잔등에서 성장하신분

백두광야가 그대로
그이의 고향집뜨락이었고
백두대밀림이 그대로
그이의 요람이었고
이 세상천지가 그대로
그이의 활무대였다

그때문에 그이는
한평생 아래목을 모르신다
그때문에 그이는
한평생 아늑한 정원을 모르신다

선행시대에 명망높은 고전가들은
서재의 깊숙한 의자나
조용한 정원에서
사색하기를 좋아하였다
잔잔한 파도가 감미롭게 발목을 스치는
하얀 백사장을 거닐며
새로운 착상과 구상을 무르익히기도 하였다

허나 그이는 다르시다

그이의 사색은
어제와 오늘 래일까지도 다 안고
격랑치며 노도치며
폭풍치는 사색

야전복을 입고 줄기차게 행군하시며
잠시 피워놓은 우등불가
그리고 달리는 야전차가

그이의 서재였고 정원이었나니

하기에
혁명을 밝히고
인생을 가리키는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자주위업을 위해 투쟁하고 전진하는 철학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민의 앞길을
영원히 정의의 한 방향으로만 가리키는 라침판

그런분이시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고
낮이나 밤이나
병사들을 찾아 전선길에 계시는
우리 장군님

우리 다 알고있지 않느냐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폐기발들을
무연한 사회주의대지로 전변시킨 그 구상이
어디서 무르익혀졌는지
굽이굽이 자연흐름식물길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공장들과
최첨단과학기술을 점령해갈
인재양성의 대전당들이
어떻게 이 땅우에 솟아올랐는지

말해보자
말을 해보자
혁명의 행진곡으로 불리우는
그 힘있고 아름다운 명곡들의 선율이
어느분의 손길아래 태어나 울려퍼졌는가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혜택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강성대국의 휘황한 래일이
어디서 밝아왔는가를

아, 우리 장군님
핵무기보유선언으로

력사의 어느 한 기슭이 아니라
원썩들의 정수리에
벼락을 내리시여
적들의 포위환을 산산이 짓부신
천리혜안의 그 지략이
질풍같이 달리는 전선길의 야전차안에서
착상되고 세워진것임을
사람들이여, 가슴에 새기시라

위대한 선군정치도
전선길에서,
필승불패의 군력과 국력을 다지신것도
전선길에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역전시키신것도
전선길, 전선길에서

정녕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이 나라 전선길은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폭풍치는 생애의 길

그때문에
눈보라와 우등불
산악과 풍랑
하늘과 땅이
그이의 생애와
그리도 잘 어울리는것 아니더냐

그때문에
그 폭풍의 생애에서 태어난
그이의 창조물 모든것이
그렇듯 새롭고 거창하고
그렇듯 생기발랄하고 희한한것 아니더냐

력사와 세계를 종횡무진하는것이
그이의 성격
하늘땅 바다를 휘어잡고
천변만화하는것이
그이의 지략
난관을 맞받아 짓부셔버리는것이
그이의 기질

나는 안다
그 어떤 위인도

조국과 민족의 존엄
혁명의 최전선에
이렇듯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세운
고귀한 생애를 가질수 없음을

오직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시고
오직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헌신하시고
오직 혁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한평생 온몸을 불태우는
김정일장군의 생애

그이의 빛나는 안광엔
무변광대한 이 세계가 다 비껴있고
그이의 어깨우엔
천만인민의 운명
인류의 자주위업의 장래가 다 놓여있거니

하기에
고지에서 작전도를 펼치고
전 전선을 굽어보실 때
환호하는 군대와 인민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실 때
장군님의 그 모습을 보며
세상사람들은 얼마나 경탄했던가
조용히 서계시는 그 기상도
천만대적을 제압한다고

그이의 폭풍치는 생애는
지구우에 우뚝 솟은 산악같이
강철의 성벽같이
제국주의의 광풍을 막아
세계의 평화와 안정
세계의 질서를 수호한다고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거니

세계의 벗들이 경모하며 환호하고
노래하며 우러르는
인민의 친근한 아버지의 생애
그 이름만 들어도 원썬들이 벌벌 떠는
최고사령관의 생애
야전장군의 생애

이 세상 가장 밝고 뜨거운
빛이 있고 열이 있는 생애
탁월한 사상과 이론

인민의 자주위업을 위해
정의와 진리가
황홀한 광채를 내뿜는 생애
군대와 인민에 대한 사랑이
아름다움과 숭고함으로 정수를 이룬
절세의 애국자의 생애

아, 위대한 그 생애는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번영이었고
혁명의 전진과 승리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로정이었고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 수령님의 혁명력사이나니

그래서 우리는
그이의 생애를 사랑한다
소백수 물소리 정다운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사랑하고
서리꽃피는 2월을 사랑한다

그이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를 사랑하고
그이 하시는 말씀
그 한마디한마디를 귀중히 새기며 사랑한다
그이 걸으시는 전선길
그 한자육한자육을 뜨거이 안으며 사랑한다

그이 안으신 모든것
그이 사랑하시는 모든것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것은
오직 하나
폭풍치는 생애를 지니신 그이께서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언제나 안녕하시기를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아, 세상에 단 한분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동지
세월의 끝까지
그이 한분만을 모시고 따를 일편단심으로
우리 조국에 만복을 주는
성스러운 생애를 인민은 노래하노라
백두의 혈통을 이어주고
후손만대에 무궁번영을 주는
위대한 생애에 조국은 영광을 드리노라

주체95. 2. 9

생애의 순간순간을 수령의 충직한 전사로 값높이 산 혁명시인 (1)

박춘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품은 가장 값높은 삶을 빛내이게 하는 은혜로운 요람이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지니게 하는 태양의 품이다.

주체 63(1974)년 겨울 어느날 시인 리찬이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그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잘 아시는 동무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재능있는 작가를 아깝게 잃었다고 하시면서 그 동무는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많은 일을 하여온 당에 충실한 동무이므로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뜨겁게 강조하시였다.

1910년 1월 15일 함경남도 북청군 읍에서 출생한 리찬은 주체 19(1930)년 6월에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 문과에 입학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문학을 지향하여 《카프》도끼지부조직에서 활약하다가 일제놈들의 박해로 주체 22(1933)년에 귀국하였으며 끝내는 《카프》사건으로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였다.

출옥후 그는 주체 26(1937)년부터 북청, 상수, 해산 등지로 다니면서 창작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해방전에 《대망》, 《분향》, 《방향》 등 세권의 시집을 냈다. 해방후에 그는 《화원》, 《승리의 기록》, 《리찬시선집》과 《태양의 노래》를 출판하였다. 그 가운데서 《태양의 노래》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일성장군찬가**》를 비롯하여 조국해방전후를 통하여 그가 창작한 작품들가운데서 우수한 작품으로 묶여진 시집으로서 그의 개성적면모를 특징짓는 시집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나 〈백두산〉은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동지들과 인민의 절절한 소원, 시인의 가슴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온 충동과 열망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시인 리찬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일성장군찬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누구보다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민감하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작품에 옹골치게 반영하였다. 그만큼 그의 시는 격동적이고 열정적이며 자유분방한 감정으로 특징지어진다.

《**김일성장군찬가**》만 놓고보더라도 거기에 비

끼인 시인의 모습은 참으로 격동적이며 열정적이다. 이 시에는 해방전 《눈내리는 보성의 밤》에서 것처럼 마음의 등불로 우러르던 민족의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신 시인의 열화와 같은 흠모와 신뢰, 존경의 감정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그 열정과 격정의 정서적감정은 진실하고 소박하며 생활적인것이다. 이처럼 해방후의 첫 작품들에서 리찬은 벌써 시대정신을 생활적인 감정으로 꾸밈없이 소박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높은 열정으로 노래하는 시인으로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하였다.

해방후 시인은 생활에 대한 탐구를 심화하면서 평범한 생활감정을 통하여 새 시대의 벽찬 숨결과 랑만을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시인으로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인 리찬을 알게 되신것은 해방의 첫 봄이 무르녹던 주체 35(1946)년 4월 함흥시민주회관에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 함흥지구를 현지지도하고계시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처음으로 맞이하신 생신날도 새 조국건설위업에 바치신 수령님께서 인민들의 환영을 굳이 사양하시고 소문없이 밤차로 함흥에 도착하신 그길로 현지지도의 빛나는 자욱을 이어가시였다.

시인으로서 함흥에서 기자생활을 하고있던 리찬은 그 영광의 나날에 매일, 매시각 감동없이 는 대할수 없는 수많은 사실들에 접하고있었다.

새벽공기를 마시시며 동홍산에 오르시여 함흥시건설전망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 시 흥남지구의 로동계급을 찾아 떠나시였다

시인은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고싶은 간절한 생각으로 줄곧 가슴을 태우고있었다.

그러던 4월 19일 저녁 시인이 것처럼 절절히 바라던 소원이 그렇게도 빨리 이루어질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는 뜻밖에도 도안의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크나큰 감격을 안고 소박하나마 정성다해 마련한 연회에 참가하라는 초청을 받았다. 심장의 흥분을 누르며 시인이 연회장으로 지정된 민주회관에 달려가니 거기에는 도안의 각 정당, 사회단체 일꾼들과 기업가, 상인, 종교인들이 많이 모여있었다.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누리를 비치는 태양의 모습으로 소박한 연회장에 나오시였다.

순간 연회장은 만세의 환호로 떠나갈듯 하였다. 이 세상만물에 소생의 빛을 안겨주는 파사로운 해빛이런듯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답례하시였다.

아, 민족의 앞날이 밝게 비친 그이의 미소!

그이는 또 얼마나 젊고 튼튼하신가!

불타는 청년의 심장으로 자유를 부르짖은 《죄》로 형무소의 차디찬 감방에서 덩굴 때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전설같은 이야기로 얼마나 가슴을 불태웠던 그였던가.

시인에게서는 백두산에 태양을 그려넣은 조선지도를 가슴에 품고 혁명의 총성이 울려오는 압록강반을 헤매이던 해방전 방랑의 그 시절이 떠올랐다.

보천보에서 울리던 총소리를 지척에서 듣고 허둥지둥 달려가던 그밤이 떠올랐고 압록강반의 스러져가는 귀틀막 광술불아래서 재생의 광명을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연설을 전해 듣고 감격에 목메여 《눈내리는 보성의 밤》을 청년들 앞에서 읊던 잊지 못할 그밤이 떠올랐다.

아, 그런데 그 위대하신 전설적영웅을 이렇게 뵈게 되다니 이게 정녕 꿈아닌 사실이란 말인가!

시인은 자기 가슴에 끓고있는 숭고한 감정을 한껏 터뜨리고싶었다.

이 나라 만백성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시인은 우리 인민에게 새 생활의 참된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감사를 드리고 그이의 건강을 삼가 축원하고싶었다.

그래서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회참가자들앞에서 강력적인 연 설을 마치시자 그이앞으로 다가가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장군님! 설움했던 식민지청년시인이였던 리찬이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문안드립니다.》라고 하며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이윽고 인사를 마친 시인은 연회참가자들을 향해 《김일성장군찬가》라고 웨치더니 한손을 번쩍 쳐들었다.

시인의 입에서는 불을 토하는듯 한 헌시의 구절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였다.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

감격에 젖은 시인의 열기 띤 목소리가 정숙해진 연회장을 울렸다. 우렁찬 박수갈채가 련이어 터져올랐으나 시인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다. 시인은 하나로 고동치는 겨레의 뜨거운 숨결을 담아 계속 소리높이 웨치였다.

...

아, 장군의 씩씩한 보무를 따라

바야흐로 무르녹으려는 북조선의

란만한 봄을 보아라!

장군은 바쁘다, 바빠야 한다

기억하자 장군은 우리만의 장군이 아니다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아, 아, 삼천리 전 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헌시랑송이 끝났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장내에서는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와 우렁찬 박수갈채가 폭풍같이 터져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회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요고나서 시인의 앞으로 걸어오시여 그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는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시인 리찬은 그만 수령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흐느끼는 청년시인의 어깨를 다시한번 뜨겁게 잡아주시고는 천천히 자리를 뜨시였다. 뚫어넘치는 감격의 열풍속에 연회가 끝났을 때였다.

참가자들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노래한 시인을 둘러쌌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시인을 축하해주고 그에게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불멸의 혁명송가를 창작해줄것을 절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였다. 청년시인의 가슴은 활화산처럼 타번지기 시작하였다.

(자나깨나 그리고 그리던 태양의 노래를 지어 수령님께 자기를 다 바치고 떠나간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간절한 념원, 우리 인민의 념원을 풀어주리라.)

시인의 결심은 굳어졌다.

그는 그로부터 일신의 정력을 모아 불멸의 혁명송가 가사창작에 전념하였다.

동홍산기슭에 자리잡은 그의 작은 집 창가에서는 밤새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젊은 시인 리찬을 처음으로 만나셨던 함흥의 그밤을 잊지 못하시고 건국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그에게 거듭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주체 35(1946)년 초여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방에서 평범한 기자로 활동하고있던 그에게 광활한 문학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평양으로 불러주시였다. 어느날 시인은 김책동지로부터 혁명가요집을 받아안게 되었는데 그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항일혈전을 헤쳐오시며 애용하시던 가요집이였다. 그 가요집을 한장한장 번져가는 시인의 눈앞에는 조국해방의 피어린 길을 헤쳐가시는 어버이수령님

의 불멸의 영상이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떠올랐다.
...

시인의 붓끝에서 드디어 인민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불멸의 혁명송가의 가사가 시대의 힘찬 메아리가 되어 구절구절 장엄하게 꽃피어났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후렴)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

주체 35(1946)년 여름 드디어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완성되어 뜻깊은 첫 연주회가 진행되었다. 연주회에는 항일혁명투사들과 당, 정권기관 일군들을 비롯하여 수백명에 달하는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에 대한 뜻깊은 연주회의 시작을 알리자 장엄한 선율이 장내를 진감하며 울렸다. 우리 인민이 그토록 부르고 싶어하던 노래,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를 이어 길이 불러 갈 노래, 불멸의 혁명송가는 조국땅의 맑은 하늘로 그리고 세계로 힘차게 메아리쳐갔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우리 인민이 얼마나 부르고 싶던 흠모의 노래, 심장의 노래인가!

그 뜻깊은 연주회가 있는 때로부터 여러날이 지난 어느날, 집무실에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젊은 시인이 지은 불멸의 혁명송가를 씩씩하게 부르며 창밖으로 흘러가는 학생들의 행렬을 보시었다. 한동안 그들의 행렬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곁에 선 일군에게 기어코 동무들이 노래를 내보냈구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나무람하시는데 어조로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다시 학생들의 행렬로 시선을 옮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일군들에게 노래를 들으니 조국과 인민앞에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정색하셔서 말씀하시었다.

그날 밤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들은 시인은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실린 신문을 가슴에 붙안고 목메여 부르짖었다.

(**김일성장군님**, 영명하신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모든것을 다 베푸시고도 인민이 삼가 드리는 한편의 노래앞에서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십니까! ...)

이것은 시인만의 심정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성품앞에서 뜨겁게 목메이는 우리 인민모두의 심정이었다. 동서고금 그 어느 위인들이 지닌 사랑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고결한 사랑에는 비기지도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올 때마다 리찬은 그이의 인간에 대한 고결한 사랑을 가슴사무치게 느끼었으며 눈물겨웁도록 깊은 감동을 받아안곤 하였다.

리찬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푸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 불멸의 혁명송가, 태양의 노래를 지은데 뒤이어 《흘러라 보통강, 력사의 한복판을》, 《새 소식》, 《달밤》과 같은 수많은 시편들을 창작발표하여 투쟁의 나팔수로서 인민들을 힘차게 고무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신 궁지로 하여 무한히 행복스러웠고 그가 노래한것처럼 《마음 하냥 밝기만 하여 뛰놀기만 하여》 언제나 끝없는 창작적열정에 넘쳐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가사

6. 15는 통일의 봄날

조성남

눈물속에 헤여져서 지나간 세월
온 겨레는 꿈결에도 통일을 그렸네
6.15는 단일민족 통일의 봄날
분별장벽 무너지는 봄날입니다

백록담에 망울졌던 천만꽃들도
선군태양 향하여 활짝 피었네
6.15는 우리 민족 영원한 봄날
북과 남이 하나되는 봄날입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 만발한 땅에
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리리
북남겨레 일싸안을 통일 6.15
아름다운 우리 나라 봄날입니다

아 6.15는 통일의 봄날
아름다운 우리 나라 봄날입니다

학당골의 봄

한찬보

봄이 왔다 봄이
유서깊은 학당골에
너는 하많은 사연을 안고
세월의 언덕을 넘어
멀리도 흘러왔구나

내 조용히 걸음 멈추고
사적비 글발 가슴속에 새겨보면
눈앞에 어려오누나
잊지 못할 력사의 그 봄날이

바로 그날
압제에 짓눌려 신음하는
겨레의 운명 구원하시려
몸소 김형직선생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성스러운 기
조선국민회를 무어주시었어라

정녕 잊을수 없어라
김형직선생님의 그날의 목소리
-2천만동포여 독립의 성전에 떨쳐나서자!

빼앗긴 내 나라 피타게 불러찾는
강인담대한 그이 모습
새움트는 이 봄날
사무치게 이 가슴에 안겨오누나

가물거리는 등잔불밑에서
한자 또 한자 조선국민회활동강령을
회원들 피뎀는 가슴가슴에
투쟁의 불씨로 심어주신 선생님

감격과 격동에 휩싸인 열혈청년들
눈시울 뜨거이 서로 부여안고
선생님 우러러 철석같이 다진

혈서로 붉은 불같은 맹세여
아 지원의 높은 뜻이여

그것은 민족의 숨결, 조선의 넋이었다
이 강산에 숨배인 그 불멸의 넋은
어둠던 삼천리강토에
민족재생의 숨결이 되어
혁명의 불길로 높이 타올랐어라

이 나라 인민들을
투쟁으로 부르신 선생님 호소여
-동포여 일어나라
끝까지 뭉쳐싸워 나라를 찾자!

그 부름안고 그이 두리에 뭉쳐
인민들은 잃었던 양춘 다시 찾으려
애국의 성전, 무산해방의 성전에
투쟁의 기치높이 떨쳐나섰거니

아 감회도 깊어라
그이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력사의 그 봄날이여
우리 수령님 광복의 새 아침 불러오셨고
우리 장군님 선군의 새 시대를 펼치시여
오늘은 이 땅우에
주체강국의 위용 누리에 떨치여라
강성대국건설 총진군의 북소리
선군의 기치높이 힘차게 울리여라

아 봄이여
학당골의 봄이여
너는 력사의 새벽길 불려온
이 나라 혁명의 봄
진정 너는 영원한
승리의 봄, 영광의 봄이여라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위대성과 함께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 수행에 이바지할 사명을 지닌 우리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며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것은 우리 당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

우리 당은 혁명위업의 계승성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한 전도양양한 당이며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가장 견결한 당이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당의 고유한 특성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여야 한다.》

《문학에서는 우리 인민을 힘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인민으로 키운 당의 업적에 대하여서도 생동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문학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해놓은 당의 업적에 대하여서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당을 형상할 때에는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대중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당으로 그려야 한다.》

《송가창작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력을 무게있게 노래하는것이다.》

〈평론〉

건설과 전쟁에 대한 시의 철학

-장편서사시 《건설과 전쟁》을 펼치고-

리동수

시인의 탐구정신과 열정의 세계를 엿보게 하는
장편서사시 《건설과 전쟁》 (강인철 작).

시줄이 흘러갈수록 의도와 사색의 세계가 헤아
려지고 형상세계와 견인력에 끌려들게 된다.

건설의 영재이시며 선군령도의 거장이신 경애
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철학사상과 특출한
위인상이 참신한 형상속에 감명깊게 재현되고있
기때문이다.

시인은 웨치고있다.

하거늘 전쟁을 무서워하는자

건설을 할수 없으리

전승을 법칙처럼 믿는 인민만이

건설의 포성 멈추지 않으리!

우리의 위대한 건설은

위대한 전승을 상징한다!

우리의 막강한 물리적억제력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담보한다

고백하노라 세계여

무릇 건설이란 재부의 창조

전쟁은 재부의 파괴

그렇다!

《우리의 위대한 건설은/ 위대한 전승을 상징
한다!》 때문에 래일 당장 전쟁이 터진다 해도

오늘 밤 12시까지의 건설을 해야 한다,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철학이며 담력이며 의지이다.

작품에서는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위대한 철학사상을 핵으로 삼았다. 무엇이 무서워 건설을 중단하겠는가, 전쟁이 두려워 건설을 중단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런 배짱을 지니시고 건설을 령도하고 전쟁을 대하신다. 건설도 인민을 위해 하고 전쟁도 인민을 위해 한다. 오직 인민의 안녕과 행복, 자주적인 삶을 위해 건설도 하고 전쟁도 한다는 인민대중위주, 인민대중중심의 지론이 우리 장군님의 뜻이며 작품의 종자가 밝혀주는 심오한 사상이다. 작품에는 이런 뜻깊은 종자와 사상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과 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을 통해 생동한 형상으로 밝혀지고있다.

장편서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력사의 한 단면을 깊이 파고들어가 만수대에술극장을 세계1등급의 예술전당으로 건설할것을 맡기시고 건설전과정을 빛나는 예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불멸의 령도사적을 통하여 건설과 전쟁에 대한 장군님의 심오한 철학사상을 감동깊은 화폭으로 펼쳐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서사시가 거둔 특출한 성과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품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위대한 인간인것으로 하여 주체문학의 제일주인공으로 높이 내세워져야 한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작품의 운명을 주도하는 중심지위에서 정중하고 격이 있게 형상하면서도 위대한 인간답게 그리는데 성공함으로써 작품의 감화력과 견인력을 높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은 만수대에술극장설계도안을 지도해주시는 작품의 첫 장부터 인상깊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극장건설을 책임진 당 중앙위원회일군인 정운혁과 설계실장 리호를 비롯한 건설일군들이 품을 들여 만든 3개 안으로 된 설계도면을 보아주신다. 형식에서 완전히 새롭고 예술성에서 완벽한 극장을 최단기간에 《속도전》으로 건설할데 대한 기본방향을 받아안고 설계된것이였으나 꺾꺾하고 촌티가 나서 어느 하나도 그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시였다. 수도 한복판에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극장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을 담았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 2, 3안 모두를 통채로 부정하시고 새 설계를 다시 완성해주시려 전연초소를 다녀오신 그길로 현장에 나오시여 우리 식

으로 통이 크게 설계를 완성할 명석하고 신비로운 묘안을 밝혀주신다.

두 청사를 헐지 않고 하나의 지지점으로 하여 전혀 새로운 형의 대예술극장안을 얻게 된다.

정녕 꿈인가 신비경인가, 너무도 뛰어나신 착상, 명석하신 론리, 원대하신 상상, 담대하신 일판에 놀라움만 커질뿐이다.

한점에서 열점, 백점을 찾되 인민을 위해 백번 사색하고 한번 선택하는것이 《나의 사색원칙!》이며《건설묘안!》이라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 안은 일군들은 《매혹의 열화》, 《경탄의 폭발》로 녀트를 잃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극장주변엔 우리 식의 분수공원을 만들고 분수못가엔 이끼입은 금강산천연바위를 옮겨오고 인공폭포도 쏟아지게 하여 평양에 금강산을 통채로 옮겨와 인민들에게 안겨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인민사랑의 위대한 천품을 안으시고 천년세기를 내다보시며 인민위주의 철학으로 만년재부의 주추돌을 없으시는 《시대의 개척자》, 《행복의 창조자》 이시다.

이렇듯 장편서사시에서는 일군들과 전문가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담을 키워주시면서 오직 인민을 위해 낮과 밤의 계선이 없이 정열적으로 사색과 활동을 이어가시는 《희세의 정열가》, 《희세의 애국자》로서의 위인적품모를 감동깊게 형상하고 있다.

아버이수령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한몸을 다 바쳐 헌신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무한대한 열정의 세계는 일박에 모르는 운혁의 건강을 넘려 하시여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를 자신의 곁에 부르시여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고 편한 잠자리까지 마련해주시고도 자신께서는 전사들이 단잠에 든 그 시간에 또다시 일감을 잡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더욱 감명깊게 밝혀지고있다.

그때 그 시간은 3시, 한밤중의 3시였다.

시인은 그 3시를 두고 격동에 겨운 내적충격을 이렇게 토로하고있다.

...

이 나라 전사들이
백두산장군의 슬하에서 목격한
로고의 3시
사색의 3시
예지의 3시
열정의 3시

이러한 혁명의 3시들은
천이런가 만이런가
뜻시선에는 아니 기억된채
조국의 력사에 다 기록되지도 않은채

오, 하거니
 이 나라의 집집에 걸린 시계들이여
 손목에 시계를 찬 길손들이여
 부디 한밤중 3시를 무심히 대하지 말자
 이 나라의 물을 먹고
 이 나라의 공기로 숨쉬는 사람들이여
 부디 한밤중 3시에 잠을 깬다면
 그대들은 기꺼이 보게 되리라
 이 나라의 단 하나 꺼질줄 모르는 불빛을

시에서는 또한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으시면서 전선시찰과 현지지도로 끝없이 이어가시면서도 전사들의 수고와 건강을 먼저 헤아려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화신으로서의 고매한 품모를 감동깊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언제봐야 늘 공사현장에서 침식을 하며 일에 묻혀있는 윤혁에게 원심을 써오시던 그이께서 휴식도 명령이라 하시며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를 부르시여 자신의 곁에서 휴식하게 하시는 이야기는 참으로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영문을 몰라 작업복차림 그대로 몇시간을 급히 달려와 회의에 늦어서 죄송하다고 아뢰는 전사 앞에는 뜻밖에도 오붓한 식사가 기다리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나는 동무에게 새 과업이 아니라 휴식을 시키려고 불렀다고 하시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실 때 윤혁은 걱정에 목메어 끝내 흐느끼고만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이 고장 인민들의 지성이 담긴 따끈한 잉어탕도 안겨주시고 새로 나온 영화도 함께 보아주시면서 즐거운 휴식을 마련해주신다. 특히 새날을 알리는 0시에 들어온 동그랭이동지죽에 대한 세부장면은 육친의 정 넘치는 그이의 사려깊은 은덕의 세계를 뜨겁게 전해주면서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준다.

작품에서는 또한 아버지장군의 사랑과 믿음은 전사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한없이 너그럽고 웅심깊은 세계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는것을 그이의 내면적인 체험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묘사를 통하여 섬세하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정윤혁이 지붕공사에 쓸 강재가 걸려 제철소에 내려갔다가 지방당조직으로부터 신소문건을 받게 되었을 때 아버지장군님께서 한 일군의 작품문제를 두고 못내 가슴아프시여 깊이 마음쓰시는 장면은 참으로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일박에 모르는 사람이 왜 신소를 받게 되는가, 개인영웅심인가 아니면 소총명인가, 그럼 그사이 변질되었는가, 거칠어지면서 당세도를 썼는가, 긍정도 해보시고 부정도 해보시며 처벌이나, 용서나 운명의 천평은 예리하게 오르내리는데 장군

님께서서는 판단하시었다.

한때 있었던 관료주의독버섯이 머리를 쳐들었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사를 위해 그날 일정을 바꾸시고 아침식사도 미루신채 그를 찾아 건설현장에 나가신다.

벌써 여러차례 관료주의말을 들었으니 《3중관료주의》 딱지가 붙을수 있다고 유모아도 써가시며 《강한 요구성》이 당세도와 관료주의독을 쓰면 인민은 당을 외면하고 당은 인민을 잃게 된다고, 정치사업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사상론이야말로 우리가 주장하는 군중정치철학이라고 준절히 일깨워주신다.

작품에서는 일군들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면서도 낯은 작품과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으시며 실천투쟁속에서 그들을 키워나가는 너그러운시면서도 엄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령도의 거장, 불패의 선군령장으로서의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는 전쟁의 위험이 닥쳐온 일촉즉발의 시각에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강의한 의지와 담력으로 공사를 잠시도 중단함이 없이 즐기치게 밀고나가도록 이끄시는 여유작작하고 대범하신 품모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되고있다.

8.18관문점사건으로 적아간에 초긴장상태가 조성된 엄중한 시각이 닥쳐왔다.

온 나라가 전선탄원으로 불비고 온 세계의 이목이 불안과 초조감에 쌓여 우리 공화국을 주시하고있었다. 당은 적들의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보복》에는 보복으로 대답할것이라고 선언하고 전당, 전군, 전민을 조국수호의 결사전에 불렀다.

당장 전쟁이 터질판인데 공사가 났말인가, 윤혁은 극도의 긴장속에 공사를 중단하고 비상조치를 세우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원산까지 운반해 온 금강산천연바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윤혁이 결심을 못해 대답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건설현장에 몸소 나오신다.

밤마다 불야경을 이루던 건설장, 창조의 불꽃이 치솟던 공사장은 숨죽은듯 고요하다.

장군님께서서는 모든것을 일별해보시었다.

그러니 당장 전쟁이 터지겠는데 건설이 다 뭐가 그거겠지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신다.

일군들이 놀라움에 어쩔바를 모르고있을 때 그이께서 《도끼사건》이나 《전쟁예고》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으신듯 결연히 선언하신다.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오늘 밤 12시까지/ 건설을 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폭탄같은 선언은 《백두산형의 장군》, 《김일성형의 령도자》의 거인적심장에서만 터져나올수 있는 불같은 선언이다.

시인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친다.

오, 전설적위인 **김정일!**

어쩌면 그리도 여유작작하신가!

어쩌면 그리도 결연담대하신가!

파시 조선이 쳐다보는

백두산형의 장군

김일성형의 령도자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철의 의지와 용단으로 숨죽
있던 공사장은 다시 활기를 띠고 들끓기 시작하
였으며 철의 포신과 장갑차들이 전선으로 향하고
있을 때 금강산천연바위를 실은 자동차행렬은 군
중의 환호를 받으며 수도 평양을 향해가고있었
다.

이 기적같은 현실은 승리한 조선이 폭풍쳐가는
모습이었고 승리한 인민이 우뢰쳐가는 소리, 영
원한 전승교향곡이 굽이치는 소리였다.

이 모든것은 건설과 전쟁에 대한 하나의 철학
이었다.

그이의 철학은 건설도 전쟁도 인민을 위한것
이며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것이다.

이것을 떠난 건설, 이것을 떠난 전쟁이란 있을
수 없다.

시에서는 억만금의 재부나 원자탄도 아닌 위대
한 사상과 담력, 붉은기의 혁명철학으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김정일**, 그이이시야말로 《인민-만
능》의 정치철학, 《인민-선생》의 령도리념으로 건
설을 대하시고 전쟁에 림하시는 《현대력사의 백
전로장》이시라는 심오한 철학사상을 소리높이 노
래하고있다.

극장준공이 선포되던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너무도 만족하시어 극장도 만점, 공원도 만점이
라 하시며 《세계적인 대예술전당》, 《안광으로 절
색인 〈1등미인〉》이라 높이 치하하실 때 그이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여기
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은 최상의 높이에서
부각되고있는것이다.

이렇듯 작품에서는 건설의 영재, 군사의 거장
으로서의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화폭의 중심위
치에서 손색없이 형상함으로써 건설과 전쟁에 대
한 심오한 철학을 생동한 생활로써 감명깊게 보
여줄수 있었다.

작품에서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정중하고 품위
있게 형상하면서도 격식화하지 않고 생활적으로
친근하게 안겨오도록 형상하고있다.

시인은 생활을 세부적으로 깊이 파고들어가 엄
격하면서도 부드럽고 다정다감하시며 눈물도 있
고 인정도 깊고 유쾌한 유모아로 사람들을 매혹
시키면서 간격없이 대하시는 소박한 평민으로서
의 그이의 소탈하신 인간적풍모를 생활적으로 진

실하게 보여주는데 성공하였다.

장권서사시가 거둔 성과는 또한 측근인물인 정
운혁을 개성이 있는 성격적인 인물로 인상깊게
형상하면서도 장군님의 위인상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보조인물로 훌륭히 형상하고있다는데 있
다. 특히 작품에서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매
혹되면서 시시각각 그이의 위대한 풍모를 가슴
뜨겁게 절감하는 내면적인 심리체험세계를 깊이
있게 그리고있다.

그는 비록 거칠기는 하였지만 손탁이 세고 내
밀성이 강했으며 오직 일밖에 모르는 일군이였
다. 오죽하면 가정에서 《돌심장》, 《광포쟁이》,
《가정의 탈퇴자》라는 딱지까지 붙였겠는가. 로
동자들속에 돌아가는 말을 들어봐도 그는 밥도
안먹고 잠도 안자는 무섭고 돌격밖에 모르는 목
석같은 사람이였다. 원래 군대에서 땅크병이었던
그는 제대되어 탄광에서 일하다가 당학교를 거쳐
오늘은 장군님의 신임속에 당중앙위원회 일군으
로까지 자라났다.

그에게도 사랑이 있었고 열과 정도 있었다.

탄을 캐던 시절엔 《나의 땅크》라는 자작시도
써가지고 열심히 애송하던 그였다.

일만 일이라고 처자들 생각을 까마득히 잊군
하던 나날에도 오직 수령님명령앞에 떳떳할 그
신념만을 리해해줄것을 믿고살던 그였다. 운혁은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장군님을 받들어나갔으며
만수대예술극장을 만년대계로 건설하여 어버이수
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작품에서는 특히 그의 내적체험세계에 대한 섬
세하고 깊이있는 묘사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 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도덕의리의 세계와 탁월
한 위인상을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시인은 공사현장지도로 밤을 모르시는 장군님
을 우러르는 운혁의 체험세계를 이렇게 터치고
있다.

잠, 잠을 잊으시는 그이
일, 일밖에 모르시는 그이
정녕 그이는 무죄이신가
정녕 그이는 강철이신가

강철도 쓰면 닳게 되고
무죄도 달면 휘게 되는 법
언제봐도 무한대한 정열과
비상한 힘과 기백 온몸에 확확 내뿜치는
김정일 그이는 정녕 어떤분이신가!

작품에서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격동을 금치 못
하는 운혁의 내적체험세계를 여러 계기들에서 격
조높이 토로함으로써 장군님의 위인상을 감동깊
게 돋구어주고있다.

례를 들면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노동자들을 땅크처럼 내몰기만 한 자책의 세계를 보여주는 심중체험, 지붕공사때문에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헌신을 두고 체험하는 심리세계, 관료주의를 범한 일군보다 일군이 범한 과오를 두고 더 가슴 아파하시는 장군님앞에 제자의 도리를 못다한 후회의 세계를 파고든 장면, 당장 전쟁이 터질가봐 공사를 중단한 자신에게 철의 담력을 키워주시는령장의 모습에 눈굽을 적시는 극적인 체험세계를 보여주는 장면 등을 통하여 장군님의 위인상을더욱 풍부하게 돋구어주고있다.

장편서사시가 거둔 성과는 또한 사건선과 감정선을 조화롭게 밀착시켜나간데 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선과 그이의 품속에서 성장하는 정운혁의 생활선을 통하여 수령과 전사사이에 오가는 사랑과 믿음, 보답의 정을 사건과 장면의 흐름속에 융해시켜 일관성있게 끌고나감으로써 커다란 정서적효과를 얻고있다.

또한 작품에는 운혁의 가정선과 청년돌격대장 정훈의 사랑선을 사건선과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나가면서 인정론리의 숭고한 세계를 펼쳐보여줌으로써 풍부한 생활정서가 차넘치게 하고있다.

작품에서 서사적요소와 밀착된 주정토로, 정서적으로 채색된 시적묘사와 대사같은 형상요소들도 사건과 장면들에 담겨진 시적의미를 풍부하게 돋구어주면서 작품에 서정적색채를 짙게 물들여준다.

특히 시인의 내적심리체험의 분출로 주어지는 주정토로를 서정성을 돋구어주기 위한 필수적수단으로 효과있게 활용한것은 시인의 열정과 적극적인 창작태도를 엿보게 한다.

시에는 시인의 고조된 주정토로가 적중한 계기와 정황들에서 풍부하게 주어지고있다.

운혁과 사랑을 속삭이던 처녀시절의 선회의 내면체험세계를 밝혀낸 주정토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담긴 은정어린 술잔에 대한 시적토로, 전사들에겐 휴식을 주시고 자신께서는 또다시 일감을 잡으시는 밤 3시에 대한 걱정의 토로를 비롯하여 군사와 건설의 영재이신 30 대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을 두고 격조높이 노래한 시적토로 등은 작품의 정서적흐름에 기복을 주고 시적감정을 승화시켜나가면서 강한 정서성을 부여한다.

이렇듯 작품에서 서정토로는 정황과 장면을 정서적으로 고조시켜나가면서 강한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련이어 걱정을 터칠수 있는 새로운 정황과 계기를 조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작품에서 정서적으로 채색된 시적묘사와 대사같은것도 짙은 서정미를 돋구어준다.

허리를 굽히시고
퍼드린 도면종이를 한손으로 누르시고
그이는 쥐셨다, 연필 한자루!
나라의 중대사, 자그마한 일까지도
달필로 결론하시던 그 명필휘지로
하이얀 종이우에
휘그어 날리시는 그 손길의 끝에선
모나는 번쩍거림! 모나는 서리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사장에 나오시여 새 설계도안을 완성시켜주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이다.

활기차고 약동적인 화폭이 눈앞에 그려지면서 그이의 모습을 방금 보는듯 하다.

시에서 인물의 생각과 행동, 정황같은것을 보여주는 서술이 단순한 설명단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정서적인 색채를 띠고 시적으로 묘사될 때라야 생동한 화폭으로 안겨지면서 시에 서정미를 돋구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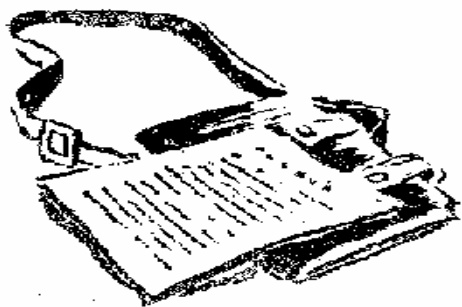
이밖에도 어제날의 땅크병출신 전우들인 정운혁과 김철혁장령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복선으로 설정하고 대조와 반복의 수법으로 기본 줄거리와 병행시켜나가면서 거기에 건설과 전쟁에 대한 철학을 상징시키고 작품을 립체감이 나게 꾸민것도 좋은 시도였다고 본다.

또한 이국의 한 명망있는 교수가 위대한 수령님을 건설의 대가로 칭송한 일화를 삽입하여 장군님의 특출한 위인상을 격찬한것도 서사시의 결말을 인상깊게 결속짓게 한 의의있는 설정이었다.

장편서사사에서 탄력있고 참신한 시적표현들과 기발하고 대담하게 착상된 발견적인 시어들을 찾아내여 특색있게 활용한것도 시인의 개성적면모를 엿보게 한 몫이었다고 본다.

물론 이 장편서사시가 손색없는 작품이라고 말할수는 없다.

장편서사시는 일정한 줄거리를 가진 사건서사시로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안목에서 형식을 투시해보아야 할 여지도 주고있으며 전반적형상구성과 시어표현 등에서 세련되지 못한 부분적인 부족점들도 있다. 그러나 장편서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력사의 한 단면을 깊이 파고들어가 형상의 폭을 넓혀 크고 뜻깊은 사상을 밝혀낸 수령형상서사시로 품위있게 형상된것으로 하여 성과가 크다.



어느 일요일에

한웅빈

일요일, 일년에 천번도 더, 주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일요일에 대하여 무슨 류다른것을 말할수 있을가. 일요일이란 어느 일요일이나 서로 엇비슷한것인데...

그러나 토요일 저녁은 어느 저녁이나 제나름의 칠색무지개같은 아롱다롱한 여러가지 휴식에 대한 공상으로(물론 공상으로만 끝나는것이 더 많지만) 더할나위 없이 흥겹고 그 어떤 미지의 즐거움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곤 한다.

때문에 나는 21세기의 다섯번째 해에 반세기도 더 전인 1950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에서 쓴 병사의 편지를 《받아보던》 그 놀라운 일요일, 내 개인적으로는 나의 생활에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물한 일요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날저녁인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1

토요일 저녁은 참으로 좋다!

우리는 한주간 고스란히 바친 충실한 로동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안겨주는 토요일저녁을 좋아한다.

물론 우리가 토요일 저녁을 좋아하는것은 그 어떤 요란스러운 이유에서보다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이유에서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덤벼치며 출근할 걱정이 없으니 밤늦도록 마음놓고 책을 읽거나 영화구경을 할수도 있고 이방저방 다니며 장기나 주패를 놀수도 있으며 실컷 자고나면 또 일요일이라는 웅근 하루가 《자유처분》을 기다리고있다는 때문이다. 얼마나 대단한가!

또한 일요일을 어떻게 보낼것인가, 이렇게 또

는 저렇게 술한 계획을 세워보는것, 하루가 아니라 한주일을 통채로 바쳐도 모자랄 화려한 휴식 계획을 세워보는것도 토요일 저녁에만 가질수 있는 흥겨움이다. 한주일에 한번씩 어김없이 토요일 저녁이 있다는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

《이건 생각해볼 문제야. 토요일 저녁을 이렇게 좋아한다는건 우리가 어찌고어찌고 해도 일하는것보다 노는걸 더 좋아한다는게 아닌가 말아야.》

하는 경찰의 말에 나는 뜨직뜨직 대답했다.

《그런데 어떻다는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에서 남보다 뒤지기라도 하나?》

경찰이와 나는 저녁을 먹고 호실에 돌아와 두 발을 바닥에 드리운채 침대에 벌렁 누워 천정을 쳐다보며 생각나는대로 한마디씩 던져보고있었다. 이웃호실들에서는 제나름대로 흥에 겨워 불려대는 노래소리들이 들려오고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있었다. 비만 아니라면 밖에 나가서 뽀이라도 차며 떠들었을것이나 비때문에 호실에 들어박혀 노래를 불러대고있는것이다.

불타는 눈동자로 처녀의 맹세 한마디
승리의 그날까지 시집을 안간다네

하는가 하면

분홍손수건 분홍손수건 필필필 오래 나뭇거
해질녘 샘터에서 인민군가 들려와라

하기도 하고

제대군인 그 총각 제대군인 그 총각

인상도 깊었네

하는 소리도 들리고있었다. 호실마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거의가 다 군대 노래이면서도 사랑에 대한 노래, 처녀들에 대한 노래라는것이다. 그럴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제대군인들이며 총각들이것이다. 게다가 그날은 월계획을 앞당겨 끝낸 토요일 저녁이었다. 비가 내리는것이 좀 유감스럽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하여 흥겨움이 덜어질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침대에 《길게 앉아》 천정을 올려다보고있었다. 우리는 한 호실에 셋이 있었는데 한 친구 성철이가 병원에 독감으로 입원하는 바람에 둘만 남아있었다.

성철이가 있었으면 천정을 쳐다보며 경찰의 《영터리철학》이나 듣고있지는 않았을것이다.

성철이에게는 참으로 수다한 장점이 있었다.

노래 잘하고 쾌활하고 통신병출신이어서인지 새로운 소식을 잘 물어들이는 놀라운 재간도 가지고있었다. 안테나가 이만저만 높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여, 공병》, 《여, 보병》하고 군대복무 병종으로 부를 때가 많지만 그만은 《지휘통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일보다 더 열성적으로 뛰어다니는 성미였다. 어쩌나 열성적인지 주인을 사갈릴 정도였다. 어떻게 그의 그런 수다한 장점을 덕분에 경찰이는 수다스럽고 급한 성미이고 나는 반대로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좋아하고 무사태평한 축이지만 한 호실에서 아무 불협화음없이 지낼수 있었다. 그런데 성철이가 병원으로 가고 둘이만 남게 되자 나는 경찰이가 시끄러운 정도로 수다스러우며 경찰은 또한 내가 《입에 거미줄이 쏘》 정도로 답답한 친구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날 저녁에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영화할 시간을 기다리며 천정이나 쳐다보고있을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나를 화재에 끌어들일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수다스러운 사람들은 지긋은 법이다.

《여 인석이, 토요일 저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본적이 있어?》

그가 나를 《공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석》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는 한바탕 《연설》을 시작하려 한다는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나는 수자 7과 8사이에서 머물거리는 시계바늘에 더 관심이 가있었다. 그 바늘이 8과 9사이에 이르러머는 아직 한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했다.

《없지, 없단 말이야!》

내가 침묵하고 얼마든지 있을수 있듯이 경찰은 말하지 않고는 한시도 견디기 어려워한다.

《로력혁신자도 토요일 저녁은 좋아해!》

그 말만은 그럴듯 했다. 멀리서 실례를 찾을것도 없었다. 토요일저녁을 좋아하는 우리 호실의

세명부터가 갱적인, 아니 전 광산적인 혁신자들이기때문이다.

《그게 일하기 싫어서겠는가? 아니지. 그럼 왜 서인가?》

나는 한숨을 쉬었다. 뻔드륜한 말에 맞장구치는 싫지만 그냥 입을 다물고있으면 그가 화를 낼것이였다. 그때 손기척도 없이 문이 벌컥 열리며 우울한 얼굴이 불쑥 들어오는 바람에 나는 《글쎄》하고 맞장구쳐주는 수고를 덜수 있었다.

기척도 없이 뛰여든 얼굴이지만 우리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환성을 올렸다.

《성철이!》

성철이, 독감으로 병원에 《끌려》갔던 바로 그 성철이였다. 한손에는 꽤 큼직한 꾸레미를, 다른 손에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우산을 들었다.

《퇴원했어?》

《퇴원? 흥! 퇴원시켜줄게 뭐야? 날 무슨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것 같애, 젠장! 숨막혀죽을것 같아서 도망쳐왔어.》

병원생활이란 답답할수밖에 없다. 병원생활도 오래 하면 재미있어진다고 하지만 우리들중에는 그런 재미를 아는 《바보》가 아직 없었다. 성철은 우산을 호실구석에 동댕이치듯 내던지고 다른 손에 든 큼직한 꾸레미도 내던질듯 하더니 우리를 번갈아보며 툭 내뱉듯이 말했다.

《왜들 이리 싱글벙글 대? 잠잘 궁리도 않고...》

《벌써 자? 토요일 저녁인데두?》

《토요일? 그런데 왜 ...》

나와 경찰은 어리뻑뻑해져서 서로 마주보았다.

토요일 저녁이라는데도 왜라니? ... 성철은 말을 툭 끊더니 우리에게 분개한 시선을 던졌다.

《입원실이란 어느 요일이나 다 마찬가지로인데야!》

아하, 그 말에 우리는 문득 휴식일이란 일하는 사람에게만 차례지는 《표창》이라는 새삼스러운 의미를 발견했다. 성철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로동일을 잃어버렸고 그러다보니 휴식일까지 잃어버린것이였다. 우리와 만나서야 《병원식사고》에서 벗어났다. 그러고보면 우리가 토요일 저녁을 좋아하는것은 노는것을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보람있는 로동의 한주일을 보낼때문인것이 다!

《도망쳐 왔다구? 그건 잘한 일이야. 그런데-》

하고 경찰은 나에게 눈을 찡긋했다.

《영옥선생이 잡으러 오지 않을까? 〈연구대상〉으로 하루라도 더 붙들여두고싶을텐데 ... 혹시 영옥선생하고 어떻게 된게 아니야?》

성철이와 병원의사 영옥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것은 우리 호실에서는 이미 공개된 비밀이였다. 함숙생활이란 원래 호실내에서는 비밀이란것이 있을수 없는 생활이다. 《흥!》

성철은 사납게 코소리를 내며 손에 들었던 꾸

레미를 침대우에 내던졌다.

《병원에 처박힌 사람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한번씩 다 알아봐야 해!》

그 말에 우리는 저으기 미안해졌다.

열흘이 되어오도록 그에게 한번도 면회를 가지 못했던것이다. 경팔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름어름 물었다.

《그런데 도망쳐온 사람의 보따리가 왜 그렇게 커? 환자복까지 다 꾸러들고 온게 아니야?》

병원에 《끌려》갈 때 성철은 새면도구만 달랑 들고갔던것이다. 그런데 그 말에 성철은 더 화를 냈다. 병원에 있으면서 신경질만 잔뜩 배워가지고 온것 같았다.

《풀어볼게지 뭘 자꾸 물어봐?》

경팔이 침대우를 엄금엄금 기어 꾸레미에 다가갔다. 우리 호실에서는 침대 세개를 벽을 따라가며 따로따로 놓지 않고 모두 나란히 붙여놓았다.

군대시절의 병실침대와 비슷했다. 우리는 아직 말도 군대때의 말을 거의 그대로 썼다. 사물함은 《배낭고》라고 했고 《기상》, 《식사》, 《취침》하는 말도 그대로 썼다. 간부들을 만나도 머리가 숙어지는것이 아니라 머리를 곧추 들며 차렷자세를 취하는 버릇도 고치지 못하고있었다. 꾸레미를 풀어헤친 경팔의 입에서 환성이 터져나왔다.

《먹을거다!》

핑장했다. 떡, 빵, 기름튀기, ... 저런! 과일까지 있었다.

《이거 어디서 생긴거야?》

성철은 또 눈을 부라렸다.

《먹기나 할게지 그건 알아서 뭘해?》

나와 경팔은 시선을 의미있게 마주쳤다.

보나마나 영옥의 《위문품》일것이었다. 이럴 때 모르는척-하고 먹어주는것이 좋다.

《맛있는데!》

합숙생활이란 늘쌍 궁금하다. 게다가 우리 호실은 모두 대식가들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았다. 우리는 《먹은 소 힘쓴다》는 말을 좋아했다.

성철이도 마치 다른 사람이 가져온것인듯 끼여 앉아 열심히 먹어대며 감탄했다.

《정말 맛있는데! 젠장 병원에선 맛있는데 하나도 없더니 ...》

잠시후에는 침대우에 패랭이꽃인지 채송화꽃인지 알수 없는 작은 꽃송이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화려한 보자기만 남았다.

《배가 부르구만.》

나의 말에 경팔은 핑장한 발견처럼 결론을 내렸다.

《결국 사람이 많이 먹는것 같아두 사실은 얼마 못먹는다는거야!》

아마 영옥이 우리 말을 들었더라면 새별눈을 반짝거리며 가르르하고 그 독특한 웃음소리로 모

두를 웃게 했을것이다. 커다란 음식꾸레미를 말짱 처리하고도 얼마 못먹는다고 했으니 말이다.

한창 먹어댈 때에는 우리의 위속에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것처럼 보일지도 몰랐다.

《왜 한번도 안왔어? 이걸 보내려구 그냥 기다렸는데.》하고 성철은 사과속, 배속들만 남아있는 빈보자기를 가리켰다.

경팔은 변명처럼 생각되는 말을 또 중얼거렸다.

《너무 일이 바빠서- 어데 틈을 낼수 있어야지. 또 농촌지원도 나가야 했구...》

모두 사실이었다. 월계획을 마무리 해야 했고 이웃에 있는 농장으로 지원도 나가야 했다. 올해의 주타격전선은 농업전선이니 전당, 전국, 전민이 지원해야 하는것이다.

당창건 60돐을 온 나라가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 이달 계획은 했나?》

나는 대답대신 시계를 쳐다보았다. 말하는것은 경팔이가 말아나설것이었다. 시침은 8자를 넘어서고있었다.

《하지 않으면? 102프로야!》

경팔의 재빠른 대답에 성철은 너그럽게 머리를 끄덕여주었다.

《그래서 못왔구나.》

《그럼!》

나는 시계바늘만 쳐다보았다. 8자에서 9자로 움직이고있는 시침이 나에게는 시계와 하등의 인연도 없는 기이한 하나의 현상을 불러일으키고있었다. ... 바람부는 잡관목 덮인 산비탈에 한 늙은이가 앉아있다. 그의 시선은 발밑으로 흘러간 꼬불꼬불한 소로길과 그 주위의 잡관목숲을 하염없이 더듬고있다. 그에게로 한 어린 소녀가 달려온다.

《할아버지, 할아버진 왜 매일 여기 나와 있나?》

늙은이는 조용히 대답한다.

《할아버진 여기서 귀중한걸 잃어버렸단다. 옛날에 ...》

《옛날에?》

《그래. 너희 어머니가 너만 할 때다.》

《그런데 할아버진 뭘 잃어버렸나?》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걸... 잃어버렸지.》

《할아버지, 그럼 나도 같이 찾을래.》

《그래, 그래라.》

어린 소녀의 까만 머리칼에서 해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바람에 조팝나무, 개암나무들이 설렁거린다.

조그만 파란 잎사귀우에 올라앉았던 메뚜기가 놀란듯 후닥닥 튀어올라 날아간다.

한 처녀가 개암나무를 헤치며 소로길을 걷고있다. 그의 시선은 소로길과 잡관목속을 어루머듬고있다.

《없구나. ... 정말 없어지고만걸가?》

한숨처럼 흘러나오는 안타까운 속삭임 ...

《그래서 말이야. 큼직하게 일판을 벌렸지》

경팔은 작업반과 갯에서 있는 일들을 성철이에게 열성적으로 이야기하고있었다. 압축공기가 시원치 않아 공기배관을 몽땅 재정비한것, 운반선로를 다시 뽑은것, 또한 우리가 지원나간 농장의 모내기를 완전히 끝내준것 ...

성철은 욕심스레 물었다. 마치 한두달나마 떠나있었던 사람같았다. 경팔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당창진 60톤대축전장으로 또 큼직한 한걸음을 내짚었다고 말할수 있었다.

《갱장아바이 래일은 낚시질 가겠구나.》

《거야 물론, 지금쯤은 미끼를 만드느라 야단일거야.》

갱장은 낚시질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사람이였다. 토요일 저녁과 밤은 낚시미끼를 준비하는데다 보낸다고 했다. 로친네까지 그런 날은 밤잠을 제대로 못잔다던지 ...

그는 제대군관이였다. 그러나 우리가 《〈퇴역〉 대위》라고 부르면 벌칙 화를 내군 했다.

《〈퇴역〉 이라구? 내 그저 네 녀석들을 군대서 만나기만 했더면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놓는건데.》

그는 우리가 배짱을 쓰며 맞설 때면 코웃음을 친다.

《우들렁거리긴 잘해두 사내같은건 한명두 없어! 마음에 드는 처녀를 보고 〈난 동무가 마음에 드오!〉 하고 말할 용기도 없는 녀석들, 망신을 당할가봐, 창피를 당할가봐 지시거리는데 무슨 남자야?》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면 그런 《사내대장부》가 되어 볼 용기를 가다듬군 했다. 그러나 진작 마음에 드는 처녀와 마주서면 웬걸, 가슴부터 후둑후둑거리 할말을 찾지 못한다. 우리 호실에서 제일 용감한 성철이조차 자기 일이어서인지 놀랄만큼 소심해져서 영옥이와 제대로 말하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지원속에서도 두석달이나 걸렸다.

영옥이 《마주 와주지》않았더라면 아직도 그 모양 그대로일지 모른다. 그런 때는 처녀들이 더 용감한것 같기도 했다.

《〈래일 낚시질가겠지요?〉 했더니 〈벌써 팔따시만한 놈들이 눈앞에서 얼른거린다!〉 하더구만.》

《그건 그거구. ... 래일은 뭇들 할려구 하나?》

성철의 물음에 경팔은 별로 흥심없이 대답했다.

《군에서 평양교예단 소원대가 공연한다기에 그걸 보러갈가 했더랬는데 ...》

《그런데?》

《저 〈공병〉 이 뜨직해하누만.》

성철이 나를 획 돌아보았다.

《그게 정말이야? 왜 안갈려구 그래?》

나는 좀 당황하여 어물어물 대답했다.

《30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갔다온다는게 도 무지 ...》

나는 성철의 집요한 시선을 피하려고 애썼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기때문이다.

여늬때라면 30리 아니라 40리길도 마다하지 않았을 나였다.

그때 복도에서 갑자기 소란스레 울리기 시작한 신발소리와 문소리, 말소리들이 나를 궁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시계의 시침이 8과 9의 중간을 넘어서고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왜 그래?》

성철이 의아하여 나를 보았다.

《영화시간이야. 텔레비에서!》

《영화? 텔레비?》

성철은 더욱 의아해했다. 그럴수밖에, 우리 호실은 원래 《영화광》이 아니라 《체육광》들이였다.

경팔이도 나를 따라 덤벼치며 일어섰다.

《가야지.》

그는 분주히 거울앞에 서서 머리를 쓰다듬고 옷차림을 바로잡았다.

성철은 우리를 놀랍게 보며 눈을 껌벅거렸다.

《왜들 이래? 텔레비나 보러 가면서 ...》

경팔이 대답대신 그의 어깨에 양복을 던져서 걸쳐주었다.

《여- 세상에 처녀가 영옥선생만 있는게 아니야, 그러니 총각망신, 호실망신 시키지 말고 옷을 바로 입으라구.》

《...》

성철은 영문을 알지 못해 그냥 눈만 디룩거렸다.

2

문제는 한주일전 바로 성철이 병원에 간 때로부터 이틀후에 생겼다. 우리 남자호동과 나란히 옆에 있는 처녀들의 호동 텔레비존이 고장났던것이다. 그런데 처녀들 호동의 자그마한 텔레비존 고장이 우리 남자호동에 《천지개벽》을 가져왔다.

원래 우리 남자호동에서는 텔레비존을 보러 모여들 때면 모두 형형색색 제멋대로였다.

내의바람에 오지 않나 하면 작업복차림, 여름에는 런닝그바람에 기웃거리는 축들까지 있었다.

머리도 세면을 하고 난 그대로 또는 자다 깬 그대로 수세미처럼 푸시시한채로였다.

합숙책임자아바이가 그것때문에 매일같이 술한잔소리를 늘어놓고 생활위원회회의, 호실장회의, 합숙생모임들에서 입아프게 강조했으나 별반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자기네 텔레비존이 고장난 처녀들이 우리에게로 텔레비존을 보러오기 시작하자 단박에 모든것이 변해버렸다.

작업복차림이 없어진것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반제품》 옷차림도 말짱 없어졌다. 양복에 머리를 빗고 구두까지 신고 텔레비존을 보러오게 되었다.

합숙책임자는 이 《천지개벽》에 눈이 휘둥그

래질만큼 놀랐고 마침내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어느 한쪽 텔레비는 고장나는게 더 좋겠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처녀들 호동의 텔레비존이 될수록 오래동안 고쳐지지 않기를 은근히 바랐다. 내가 시계바늘만 지켜본것은 바로 이 시간을 기다려서였다. 그렇다고 하여 나는 《영화광》도 아니며 처녀들만 보면 빙글대는 《바람난 총각》은 더더욱 아니다. 나에게서 여직껏 이런 일은 있어본적이 없었다. 다만 ... 합숙호실 서너칸만한 방이 합숙회의실이었는데(강당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텔레비존칸》이라고 부른다.) 맨앞에 24인치짜리 텔레비존이 높직하게 놓여있고 그앞에 긴 걸상들이 한끝을 벽에 붙이고 두줄로 갈라져 놓여있었다. 성철은 복도에서 마주치는 《멋쟁이》들을 보고는 《어데 가나?》하고 헛되이 묻다가 텔레비존칸에 들어와서야 《아!-》하고 긴 감탄사를 내뿜었다. 여기저기 걸상들에 말쑥하게 단장하고 암전하게 앉아있는 처녀들을 보았던것이다. 텔레비존에서는 화면음악이 나오고있었다.

처녀총각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 텔레비존에 나오는 처녀총각들은 별스레 밀려다니기를 좋아하는것 같았다.

행복이 오는 길을 우리는 알아

봄날이 오는 길을 우리는 알아

...

나는 긴걸상 행렬의 가운데 공간에 서서 앉을 자리를 찾는척하며 처녀들을 결눈질로 살펴보았다. (왔는가, 안왔는가...)

그때 복도에서 때까거리는 좁은 구두뒤축소리와 말소리, 웃음소리들이 들려오자 나는 룡감으로 그속에 바로 《그》가 있다는것을 느꼈다.

그러자 가슴이 후두둑 뛰여 얼굴에 피가 확 물리는듯도 하고 반대로 온몸의 피가 썩그리 심장으로 몰려 얼굴이 싸늘해지는듯도 했다. 그 소리의 주인공들이 마침내 들어왔다. 나는 텔레비존만 바라보며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척했다. 자리들을 찾아 조심스레 앉는 소리들이 들렸다. 어데쯤 앉았을가...

《왜 이렇게 전주대처럼 서있어? 앉지 않구!》

성철이가 나를 뒤로 끌어당기더니 긴 걸상안으로 밀쳐넣고 자기는 바깥쪽에 털썩 앉아버렸다.

《앉으라구.》

이런 반갑지 않은 관심이랴!

별수 없이 나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안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다 와뜰 놀랐다. 이럴수가 있는가. 바로 《그》가 옆에 앉아있는것이 아닌가.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의 옆에 와 앉은것이였다.

나는 갑자기 온몸이 굳어져버린듯 한 감을 느

끼며 곳곳이 앓아 텔레비존화면을 지켜보았다.

그쪽을 돌아볼 엄두는 내지도 못했다. 성철의 《실수》가 아니었으면 어찌 감히 여기에 와서 앉는단 말인가.

선이 지나치게 예리한듯 한 얼굴, 머리칼이 몇오리 흘러내린 거의 투명해보이는 귀바퀴와 창백한듯 하면서도 홍조가 어린 볼, 꼭 다물고있는 입과 옆으로 보아서 더 뽀족해보이는 턱, 옆으로 보이는 눈동자에는 텔레비존화면이 조그마하게 비껴있었다. ... 어떤 눈으로 보면 처녀가 너무 가냘프게 보이고 창백해보이며 미간이 지나치게 넓은듯 하다고 하겠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더 아름답게 균형잡힌 얼굴이 없는듯 했다. 수수한 천으로 지은, 어쩌면 언니의것을 그대로 물려입었을지도 모르는 양복조차도 그만이 가지고있는 류다른 미처럼 느껴졌다. 그의 모든것이 언제부터 나에게 류다른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것은 아니였다. ...

어느날 나는 합숙앞의 휴식장에서 처녀들이 동그랗게 모여앉아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녀들은 모여앉으면 한시도 재잘거리지 않고는 건디지 못한다.

새들처럼, 모두 평범한 얼굴들이였다. 특별히 눈에 띄는 얼굴은 없었다. 나는 처음에는 무심히 들었다.

《남의 편질 뭐 그렇게 봉투터진것까지 붙여주며 그러니? 그냥 편지통에 넣어놓으면 주인이 찾아갈텐데 ...》

《그렇지만 찾아가기전에 봉투가 터져 속지가 빠져버리면 어쩌니?》

우리 합숙의 두 호동사이에는 채양달린 속보관이 서있었고 그곳에 편지함도 붙어있었다. 합숙에 오는 편지는 모두 그곳에 꽂혀진다. 아마 그 처녀가 편지들을 받아다 꽂아놓다가 봉투가 터진것을 발견한것 같았다.

그때 처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할아버진 옛날에, 전쟁때 우편통신원이었어. 그런데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도 늘쌍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괴로와 하셨어.》

전선에서 온 편지들을 배달해주며 여러 마을들을 다니다가 한두통 남았을 때 그만 미제놈비행기를 만났대. 여기서 멀지 않은 산길에서 말이야. 비행기는 기총사격을 퍼붓고 폭탄을 막 떨어는데 할아버진 그만 폭풍에 날려 정신을 잃으셨대.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라. 우편가방은 어데간지 없고...

할아버진 퇴원후에 쌍지팡이를 짚고(그때 할아버진 한쪽 다리를 잃으셨어.) 우편가방을 찾으려고 그길을 수십번도 더 헤매다니셨대. 하지만 종시 찾지 못했어. 길이 있던 곳에 폭탄구멍이들이 생기고 바위돌이 무너져내려서 ...

할아버진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도 때때로 그곳에 나가보시곤 했어. 그러면서 나에게 말해주셨어.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편지를 기다리며 살았는지 너는 모를게다. 그때는 어느 마을, 어느 집이나 다 전선으로 가장 귀중한 사람들을 떠나 보낸 때였다. 편지나 기다리며 살았지. 편지를 받는 날이 제일 기쁜 날이었고. ...내가 마을에 나타나면 어느집에서나 자기집에 오는 편지가 있나 하여 나를 지켜보곤 했다. 혹시나 하여 나를 지켜보던 눈길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그런 편지를 잃었으니...

내가 잃어버린 편지를 받을 집에서는 얼마나 기다렸겠나? 편지를 써보낸 전선군인은 또 그 편지가 어머니나 안해에게 가닿았으리라 믿고 회답을 기다렸을거구...

나는 그 군인의 어머니나 안해가 지금까지도 그 편지를 기다리고있을것만 같구나... 기다릴거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으니...>

그때부터 난 편지라면 무심히 보게 되지 않아. 어데 떨어져있는 편지를 보면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앉아계시던 소로길이 떠오르며 가슴이 아프고 ...>

봉투가 터져서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편지가 어느 행복한 친구의 것이었던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때부터 그 처녀는 나의 눈에 특별한 존재로 되어갔다. 어느 장소, 아무리 많은 사람들속에서도 나는 그의 존재를 느꼈고 첫눈에 알아보았다. 전에는 왜 그를 몰랐을가 하는 의문조차 들었다. 그 나날에 나는 깨달았다. 처녀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눈여겨 볼 때에야 알게 되는 것이며 눈여겨 볼수록 더 풍부해지는것임을...

그런데 그것을 느끼게 되자 나는 어찌된셈인지 그에게 말을 걸기는커녕 마주 바라볼 용기조차 짱그리 사라져버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갱내 압축기운전공이었다. 교대도 같았다. 갱에서나 밖에서나 마주치는 기회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나의 눈길에서 엉큼한 내 속심을 말짱 꿰뚫어보기라도 한듯 나와 마주치면 입을 꼭 다물고 곧추 앞만 보며 총총히 지나가버리곤 했다. 성철이와 경팔이는 나에게 그와 말할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나는 여러 번 만들어진 그런 기회를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지나보내어 <에이, 무슨 공병이 그래? 철조망은커녕 풀발도 못지나가겠어.> 하는 탄식도 들었다. 나에게는 꼭 다물린 그의 입에서 <흥!> 하는 뽕소나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거예요?> 하는 말외에는 다른 소리란 나오지 않을것처럼만 생각되었다. 이때도 그는 부자연스러울만큼 꺾은 자세로 앉아 텔레비죤화면에만 시선을 박고있었다. 그 모습은 날카롭게도 또는 엄하게도 보였다. 나의 련치없는 자리차지와 결눈질에 모욕감을 느낀것이나 아닐가, 얼음장처럼 차가워보였다.

무릎을 감싼 치마우에 놓여있는 두손은 마치

격분을 가까스로 참고있는듯 주먹으로 꼭 쥐여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만 그렇게 느껴진 것인듯 했다.

《분옥동무!》

하고 내옆에 앉아있던 성철이 불쑥 내앞으로 하여 그에게로 상반신을 가져가며 기탄없이 그를 불렀던것이다.

《오래간만이구만!》

젠장,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말을 던질수 있을까. 얼마전까지는 나와 다름없이 처녀들앞에서는 할말을 못찾고 쭈뼛쭈뼛거리던것이 이제는 조금도 거침없었다.

영옥이와 어찌고저찌고 하는 사이가 되더니 갑자기 년장자가 된것같았다. 영옥이 그를 며칠사이에 어른으로 만든것이였다.

《아이, 언제 퇴원했어요?》

분옥은(바로 그 처녀의 이름이였다.) 이제까지의 굳어진듯 하던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벗어나 눈을 반짝거리며 물었다. 《얼음장》은 사라졌다. 성철은 굉장한 자랑거리라도 되는듯 호기있게 대답했다.

《도망쳤소!》

《어마나, 그래도 돼요? 영옥선생이 야단할텐데 ...》

분옥은 영옥이와 한호실에 있었다. 둘의 사이에 끼운 나는 걸상등반이처럼 말한마디 못하고 잔뜩 뒤로 몸을 젖히고있느라고 잔등이 저려들고 목고대가 뻗뻗해지는데 성철은 나따위는 진짜 걸상등반이쯤으로 여기는듯 상반신을 분옥이쪽으로 더 가져가며 엉뚱한 소리로 물었다.

《래일 어떻게 휴식할 작정이요?》

나는 일순간 잔등이 저려들고 목고대가 뻗뻗해 오던것을 잊었다.

《글쎄요. 할일이 많아서 ...》

《할일? 일요일에야 휴식해야지 무슨 일을 한다는거요?》

《할일이 좀 많아요? 빨래도 해야 하고...》

《빨래? 흥!》

성철은 나팔이라도 불듯 요란스레 코방귀를 뀌었다.

《너자들은 빨래밖에 모른다니까! 그저 빨래, 빨래, 물만 보면 빨래할 생각부터 하고, 오리한가지라니까! 그까짓 빨래는 후에 하기로 하고 래일은 본때있는 휴식을 해보지 않겠소?》

《어떻게요?》

《음에 평양교예단소원대가 왔는데 기막히게 잘한다는거요. 하도 인기있어서 하루 2회공연을 한다는구만. 우린 래일 음에 나가서 닛공연을 보고들어오자는거요.》

나의 귀는 분옥의 입을 향해 향아리만큼 열렸다.

《그런데 음에 어떻게 가요? 그 먼델... 비까지

오는데 ...》

《아, 그건 걱정마요. 래일 아침엔 청청하늘일 테니까. 그리고 래일아침 읍에 나가는 차가 있소. 화물차이지만 모래를 한 반차실고 타면야 연석차 보다 더 편안하지. 그 차를 타고 나가 우선 동무네는 미용원에 가서 좋은 일을 하고 우린 그 사이 충실하게 기다렸다가 동석식사로 점심을 푸짐히 먹고 다음은 교예관람을 하고 또 차에 척 올라타서 돌아온단 말이요. 적재함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 멋들어지지 않소?》

성철은 청산류수로 엮어대는데 실로 화려하기 그지없는 일요일 휴식이다. 얼마나 멋이 있는가.

《래일아침 아홉시에 차가 떠나니까 소문내지 말고 창문으로 내다보고있다가 우리 호실이 외출복을 펼쳐입고 지나가면 제격 따라서란 말이요.

우리가 동무네 호실 창문앞으로 지나가줄테니까!》

《그 호실에선... 다 가요?》

《물론! 우리 셋은 일심동체니까!》

《그런데 ... 영옥선생이 래일 직일이 아닐까요?》

의사들이란 직일이 잦다. 일요일이라 하여 병까지도 휴식하는것은 아닌것이다. 그러나 그 말에도 성철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직일이 아니요. 래일 그 차를 타고 군에 나가니까.》

《아, 그래요?》

《약속했소?》

《그런데 ...》

분옥의 물음이 재미있었다.

《영옥선생이 읍에 가는걸 승인할가요? 도망쳤다면 ...》

《...》

성철이 말문이 막혀 얼굴을 찡그리는데 텔레비존에서는 어느 사이 영화가 끝나고 《오늘의 보도중에서》가 나왔다. 나는 성철의 결상등반이처럼 앉아 그들의 말을 듣느라고 영화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화면에는 농장별, 올해의 주타격전선이 비쳐지고있었다. 모네기가 끝난 들판은 눈물을 번쩍거리며 바람따라 밀려가는 푸른 파도로 덮여있었다.

《저거 우리가 모내기한 논과 같구만!》

정말 비슷했다. 온 방안이 흥성거렸다. 누구나 올해의 주타격전선에 자기의 힘과 땀을 바쳤기때문이였다. 우리는 올해에는 반드시 풍작이 들리라는 믿음으로 흐뭇하게 화면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논벌이 사라지자 방송원의 엄숙한 얼굴이 나타나며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가 쟁- 하고 울리었다.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미제 호전광들의 새전쟁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습니다.》

소리가 성급하게 팔팔거리고있었다. 길바닥에 깔

우리는 묵묵히 들었다. 어느 하루도 평온한적 없는 정세발전... 미제침략자들의 《이지스》함선들, 《F-117》, 《B-52》, 《B-2》, 조선전쟁계획 5027, 5028, 5030... 그리고 방송원의 다음 한 마디는 가슴에 날카로운 칼끝처럼 박혀들었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지난 1950년 6월 25일 전쟁전야를 방불케하는 정세가 조성되였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일요일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은 토요일이였다. ...

텔레비존이 끝났다. 모두들 일어서서 나가기 시작했다. 나도 나가려고 일어섰다. 그런데 성철은 일어날 생각을 않고 그냥 앉은채로 도리어 투덜거리는것이였다.

《빠스라도 타러가나? 헤뎀비긴, 젠장!》

그가 일어서지 않으니 나는 나갈수 없었고 내가 그대로 있으니 분옥이도 나가지 못하고있었다.

나는 성철을 톡 쳤다.

《일어나지 않고 뭘해?》

《흥!》

그는 거의다 나간 다음에야 마지못해 하는 거동으로 느릿느릿 일어섰다. 그러고도 어물거리더니 분옥을 돌아보며 다짐받는것이였다.

《약속했소?》

그가 휙 나가버리자 갑작스레 방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텔레비존칸에 나와 분옥이 둘만이 남았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까닭없이 당황해져서 서둘러 복도로 나왔다. 복도랑열의 호실들에서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는 빠그덕소리, 발성런습이라도 하듯 《아-》하고 뿔아대는 긴 외마디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현관문까지 복도는 꽤 긴축이였다.

스무메리가량되는데 전등은 켜지 않았다. 꼭 닫기지 않은 호실문짚으로 흘러나온 가느다란 불빛들이 희미하게 밝힐뿐이였다. 문이 열려있는 현관입구는 네모난 굴입구처럼 보였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생각나는것은 말을 해야 한다는 한가지뿐이였다.

분옥은 발끝만 내려다보며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나는 점점 가까와오는 현관입구를 바라보며 걸었다. 말하라, 무슨 말이든, 그는 네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고있다. 보라, 그는 네 걸음에 맞춰 걷고있지 않는가. 네가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빨리 걸으면 빨리...

그러나 우리는 벌써 《굴》밖으로 나왔다. 비물냄새 풍기는 서늘한 대기가 가슴으로 왈각 흘러들었다. 이미 밤이 깊었다. 비가 뚝뚝 하늘에는 비에 깨끗이 씻긴듯 한 별들이 무너져내릴 정도로 총총했다. 원래부터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았던가. 분옥이도 하늘을 쳐다본다. 그의 눈속에 별이 담겨 그 눈이 별스레 더 커보인다. 처마밑에서는 락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간혹 툭렁-툭렁-들리고 호동열의 물도랑에서는 비온 뒤의 물린 비물이 창문들에서 흘러나온 불빛에 반짝거

렸다. 총총한 별들사이로 별 하나가 꼬리를 그으며 쪽-흘러갔다. 류성이었다. 그러자 분옥은 깜짝 놀란듯 주위를 둘러보았고 머리를 숙여보이고는 자기의 호동 현관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자박자박...

현관문앞에서 그는 멈칫하고 돌아보았다. 어둠속에서 그의 얼굴은 하얀 타원형의 룬판으로만 보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얼굴에서 실망의 서글픈 미소를 본것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현관안으로 사라졌다. 그러자 주위가 불시에 텅 비어버린듯 했다. 나는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전히 총총한 별들. 그러나 별씨는 없었다. 아까 흐르던 그 별씨는 영영 자기의 존재를 마쳐버렸을것이다. 그러자 나는 까닭없이 이날 저녁과 같은 저녁이 다시는 없을것이며 래일은 내가 생각하는 래일과는 판판 다른 래일일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때때로 나는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 자고나면 상상과는 전혀 다른, 어제와는 인연이 툭 끊어진 래일이 기다리고있을듯 한 불안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이 느낌은 어디에 기인되는것일까.

나는 혹시 이 저녁을, 행복한 래일과 련결시켜 줄수 있었던 순간을 영영 놓친것이나 아닐까.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어데서 이런 말 들었던가...

복도에서 투덕투덕 발소리가 들리더니 성철이 나왔다. 그는 멍청해서 서있는 나를 어둠속에서 눈여겨보더니 픽- 웃었다.

《바보같으니!》

그래, 그의 말이 옳다. 나는 바보다.

《팬찮아.》

그는 나를 위로했다.

《래일은 일요일이고... 읍까지는 먼길이니 말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

그래, 래일의 휴식계획은 틀림없다. 하늘은 성철의 말대로 청청할 래일의 날씨를 확인하고있었다. 나는 문득 성철이가 왜 비를 맞으며 병원에서 도망쳐나왔는지를 깨달았다. 답답해서일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요일을 내가 분옥이와 말할수 있는 기회로 되게 하기 위해서였던것이다.

그래서 자동차편까지 알아보았을것이고.

호실창문들은 하나 둘 불이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별을 바라보며 오래동안 서있었다. 병원에서 실컷 잠을 잔 성철이와 사랑에 빠진 바보인 나는...

바쁠것도 없었다. 래일아침은 실컷 늦잠을 자도 되는것이다. 어데선가 철썩하는 소리가 들렸다. 비에 함뼉 젖은 비탈이나 언덕의 흙이 꺼져 내리는 소리일것이었다. ...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 소리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일요일을 예고하는것임을 전혀 알지 못 앞에서 검은 연기구름이 타오르고있다. 불기둥

하고있었다. 눈앞에서 더욱 총총해지는듯한 별들사이로 또 하나의 별이 쪽- 꼬리를 끌며 흘러갔다. 별씨가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에 하루라는 시간의 구획을 쪽 그어놓는것만 같았다.

이제는 일요일이었다.

3

...일요일아침. 우리가 탄 자동차는 기세 좋게 읍으로 달리고있다.

나와 분옥이는 적재함 맨앞에 운전칸 지붕을 짚고 나란히 서있다. 세찬 바람에 나의 머리칼이 날리고 분옥의 머리수건이 작은 기발처럼 팔락거린다. 운전칸에는 성철이와 영옥이 나란히 앉아있다. 적재함에 같이 탄 경팔은 적당히 실은 모래더미에 큰 대자로 누워서 자고있다.

그러고보니 바람부는 적재함은 우리 두사람, 나와 분옥의 천국이다. 우리를 방해하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조심스레 분옥을 결눈질해본다.

그의 눈에서는 획 획 스쳐지나가는 언덕과 가로수들이 번갈아 비껴서 흘러가고있다.

분옥이 문득 나를 돌아보며 미소를 짓는다.

《참, 우리가 어제까진 왜 그랬을까요?》

이상한 말이지만 나는 거침없이 대답한다.

《서로 무서워했지.》

《정말 우습지요? 무서워할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의 머리수건이 더 세차게 날리며 나의 볼을 두드린다.

그러자 문득 하나의 의문이 나를 사로잡는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을까. 언제 말문이 열리고 서로의 감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까.

우리가 정말로 서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던가. 언제? 어데서?

아니, 아니다. 우리사이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있는것인가. 이 얼마나 괴상한 일인가.

《분옥동무!》

《예?》

그의 시선이 나를 마주본다. 그 눈속에 담긴 기대와 불안. 소심한 미소가 까닭없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나는 경팔이 그냥 자고있는지 확인하려고 흘끔 돌아본다.

아이쿠, 그는 자는것이 아니라 일어나 앉아 눈을 화등잔처럼 커다랗게 뜨고있었다. 그런데 그 두눈은 나와 분옥이 아니라 우리의 어깨너머 앞을 내다보고있다.

그 눈길을 따라 나는 앞을 돌아본다. 그러자... 이 숫구친다. 화광이 번쩍인다.

전쟁?! 그렇다, 전쟁이다!

주위가 온통 포연과 폭연, 불길이다.

《분옥이!》

나도 저도모르게 분옥의 손을 짹 잡는다.

그러자 가슴저미는 후회가 조수처럼 밀려든다.

왜 나는 이제껏 망설이거만 했던가. 눈치를 보고 주저하고 《래일에는》, 《래일에는》하고 생각만 하며... 그것이 얼마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것이 었는가를 뼈저리게 깨닫는다.

내가 간밤에 느꼈던 불안은 우연한것이아니었다. 현실은 매일 매시각 우리에게 화려한 래일이 아니라 가련한 결전의 래일을 시사해오지 않았던가.

《내가... 내가 왜 그랬을까?》

나의 두서없는 중얼거림에 분옥의 얼굴에는 지난밤 어둠속에서 느꼈던 서글픈 미소가 떠오른다.

《잘... 가세요.》

내가 탄 차는 이미 전선으로 달리고있다. 하얀 타원형으로 보이는 얼굴이 멀어지고있다. 그 얼굴은 점점 작아지며 장막처럼 피여오른 포연속으로 멀어진다. 달리는 자동차의 동음이 부릉부릉 높아지고 차의 세찬 진동이 나의 몸을 마구 흔들어놓는다. ...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몸은 그냥 흔들리고있었다.

《여. 공병, 기상! 폭풍이야, 폭풍!》

경팔이가 내 몸을 마구 흔들어대고있었다.

폭풍?! 나는 화답다 뛰쳐일어났다. 시계바늘은 네시를 가리키고있었다. 일요일 새벽 네시!...

나는 다시 꿈이 현실로 계속되는듯 한 착각을 느꼈다.

지난밤의 보도는 지금의 정세가 1950년 6월 25일 전쟁전야와 같은 정세라고 하였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그런데 이날도 일요일이었다! ...

《여, 인석이.》

성철이가 내앞에 와 마주 앉았다. 그에게서는 신선한 바깥의 새벽대기냄새가 풍겼다. 경팔은 내의바람이었다. 이웃호실들은 조용했다. 창밖에서 자동차소리가 부릉부릉 들리고있을뿐 합숙은 새벽정적에 잠겨있었다. 그러니 《폭풍》이란 허튼 소리였다. 지곳은 장난인가.

《사실은 말이야.》

성철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제저녁 내린 비에 어덴지 도로 한구간이 사태로 막혀버렸다는거야. 그래서 광산지휘부성원들은 모두 비상소집을 해서 그걸 처리하러 나가는데...》

이 새벽에 어떻게 그런 소식을 알게 되었을가.

아마 병원에서 실컷 자고온 바람에 궁싯거리다가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소리에 나가보았던 모양이었다. 어떻게든 《지휘통신》다왔다.

《래일이 아니, 이젠 오늘이지.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우리 로동자들은 휴식하게 두고 지휘부만 나가는건 리해되는데 왜 날이 밝은 다음에 나가도 될걸 이 새벽에 《폭풍》을 하는가 하는거야. 동무야 공병이니 이런 물계는 행-하겠지?》

나는 그들이 왜 나를 두들겨 깨웠는지를 대뜸 알아차렸다. 본능적으로 옷을 끌어당겨 입으며 말했다.

《이건 〈통로개척〉 또는 〈기동로개척〉 이라고 하는거야. 도로란 곧 기동로니까.》

《젠장, 그걸 누가 모르나?》

성급한 경팔은 버럭 짜증을 냈으나 나는 개의치 않고 말을 계속했다

《기동로개척은 인원보다도 여러가지 차량들, 즉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기계화부대의 기동을 보장하기 위한거야. 자동차, 포차, 장갑...차》

《땅크두?》

《물론이지! 이 새벽에 《폭풍》을 했다는건 그곳으로 빠른 시간내에 차량들을 통과시키라는 긴급명령이 떨어졌다는걸 말해주는거구!》

《명령이? 어디서?》

경팔은 나에게 성급하게 대답을 독촉하지만 그것은 이미 《공병》의 분야가 아니라 《지휘통신》의 분야였다.

《알만해!》

성철이 벌떡 일어섰다.

《x시까지 기계화부대의 통과를 위한 기동로를 개척할것! 이런 명령이 떨어진게 분명해! 명령이 말이야!》

《명령?》

우리는 제대군인들이었다. 상상력도 풍부했다.

우리의 눈앞에는 긴급기동하는 포차, 땅크, 장갑차 등 기계화부대의 장엄한 행렬이 떠올랐다.

지난밤의 보도에서는 1950년 전쟁전야와 같은 정세가 조성되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창밖에서 자동차가 금시 떠날듯 부릉거리고있었다.

《틀림없어! 기계화부대의 긴급기동이야. 지휘부만 〈폭풍〉을 한것은 비밀때문일거구!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구야 가만있을수 없잖아?》

경팔이 《연설》에 열중해있을 때 나와 성철은 문가로 향했다. 뻔한걸 가지고 무슨 가타부타가 필요한가. 경팔이 펄쩍 뛰어올랐다.

《여, 저들끼리 가거야? 난 옷도 못입었는데!》

성철이 씩웃었다.

《토끼가 왜 거북기한테 뒤떨어졌는지 알아야지.》

마당에는 지휘부성원들이 탄 석대의 화물차가 금시 떠나려 하고있었다. 우리는 그중의 한 차에 슬며시 올랐다.

아직 어두운 때여서 누구도 우리가 지휘부성원이 아님을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적재함에서 면바로 갱장과 얼굴이 마주칠줄이야!

《아니? 이진 또 뭐야?》

그는 성철을 분간해보고는 눈을 부릅떴다.

《동문 환자가 아닌가?》

성철의 대답은 거침없었다.

《그건 어제까지만 그랬지요.》

《뭐?》

그때 마침 차가 출발했다. 잠시만 더 있었더라면 갱장은 틀림없이 당장 내리라고 호령을 했을 것이다. 합숙생들이 깨여날가봐 더 서둘러 떠나는 것 같았다. 마당을 빠져나가는 자동차전조등 빛에 불꺼진 합숙창문들이 놀란 듯 빙글빙글 하며 지나갔다. 그 불빛이 처녀들 호동의 창문을 훑으며 쭉- 미끄러져 갈 때 나는 불현듯 지난밤 분옥이와 약속했던 일요일의 화려한 휴식계획이 공상으로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그와의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들은 아침에 우리를 헛되이 기다릴 것이다. 우리가 자기들에게는 한마디도 없이 제멋대로 약속을 꺾어버린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분개할 것인가... 다시는 대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처녀들이란 다른 것은 잊어도 자존심의 상처는 잊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가만. 동무넌 어떻게 여기에 끼여들었소?》

하는 놀란 음성에 나는 돌아보았다.

지배인이었다.

《누가 동무네한테 알려주었소?》

성철은 어깨를 으쓱했다.

《이런 일이야 누가 알려주어서 압니까 뭐? 육감으로 알았지요.》

《육감?》

《어떻든 이 친구들 셋이면...》

방금전까지 눈을 부릅떠보이던 갱장이 얼른 끼워들었다.

《열명맞잡이니 한몫 든든히 할 겁니다.》

역시 갱장다웠다.

《암답이 병아리 감싸안듯 하는구만.》

주위에서 웃음소리들이 들렸다.

그 웃음소리에 마음이 펴 놓인 경팔이 지배인의 옆에 바짝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추어 은근하게 물었다.

《지배인동지, 인민군기계화부대를 몇시까지 통과시켜야 합니까?》

지배인의 눈이 커다래졌다.

《그런 소린 어디서 들었소?》

경팔은 나와 성철을 흘깃 돌아보고는 대답했다.

《다 아는데가 있지요.》

《허허허.》

지배인은 크게 웃었다.

차는 푸름푸름해지는 새벽대기속을 달리고있었다. 경팔은 나와 성철에게 돌아앉아 수군거렸다.

《공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소식이 사실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군사비밀을 누설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거든.》

그 말은 내 마음에도 들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중대한 일때문에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옥의 마음도 한결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괜찮아.》

성철이 나의 어깨를 툭 쳤다. 그는 원래 락관주의자다.

《일을 빨리 다그치면 아홉시까지 는 넉넉히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지휘부만 〈폭풍〉을 한결 보면 사태진 구간이 얼마 안되는 게 틀림없어.》

나는 그의 말대로 되기를 바랐다.

차는 이미 우리 광산으로 들어오는 길을 벗어났으나 계속 달리고있었다.

4

근 한시간이나 차가 달려 날이 환히 밝았을 때 당도한 곳은 우리 광산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도로였다. 현장을 둘러보니 성철의 위안대로는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첫눈에도 알렸다. 갈구리처럼 굽이진 도로구간을 옆의 비탈이 통채로 꺼져내리며 50미터나마나 완전히 묻어버린 것이었다. 꽤 높은 비탈이 마치 칼로 썬 듯 베여 찌꺼놓은 듯이 길이 있던 자리에 제끼지며 불룩한 언덕을 만들어놓았다. 처리해야 할 토량이 이만저만하지 않았다.

아홉시에 합숙에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갱장의 입에서도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도 역시 인차 돌아가 성대한 낚시질계획을 실현하려고 생각했던 것인지 모른다. ...

《물고기들이 안심하게 됐군.》

하고 경팔이 눈을 찡긍거리는데 현장을 돌아본 지배인이 귀가 번쩍 트이는 《혁신적인》 방도를 내놓았다. 갈구리처럼 생긴 굽이돌이길의 토량을 제끼는 것보다 썩- 버그라져 넘어진 비탈자리로 직선도로를 뚫자는 것이었다. 길이 직선으로 되어서 좋고 작업구간이 거의 절반이나 줄어드니 더욱 좋았다. 역시 지배인은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바가 컸다.

《자- 와닥닥 달려붙어 해제끼자!》

일이 시작되자 우리는 만사를 잊어버렸다. 삽, 곡괭이, 지레대. 합마를 번갈아 잡아가며 직선통로를 개척해나갔다. 그런 일에서는 지휘부일군들보다 우리가 몇배나 나았다. 그들은 머리로 일하고 우리는 손발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셋은 마치 영웅이나 전설적인 인물들처럼 떠받들리었다.

《완전한 불도젤이로구만 응?》

《팡크야, 팡크!》

《3갱갱장이 그래서 저 친구들을 슬쩍 데리고 왔군 그래. 본뽕 보이려구.》

천만에! 데려오다니? 우리는 제발로 왔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는것은 이만저만 기분좋지 않았다. 일하는 사람에게야 그런말보다 더한 표창이 어데 있겠는가. 우리보다 더 흐뭇해하는 것은 갱장이였다. 그는 우리에게 대한 칭찬이 쏟아지자 처음에는 《우리 갱의 척후조요.》 하더니 얼마후에는 《뭘 이쯤한걸 가지고. 우리 갱 제대 군인친구들은 다 이렇소.》 하고 겸손한척하며 병글거렸다. 갱에 대한 자랑이 남시질 못하게 된데 대한 아쉬움을 멀리로 밀어버린듯 했다. 일은 부쩍부쩍 자리가 났다. 그런데 얼마간 직선통로를 열어나갔을 때(광산용어대로 하면 기본굴진 인셈이다. 우리가 나간 자리에 모두 달라붙어 좌우로 길을 넓히며 따라왔다.) 곡괭이가 쇠붙이에 부딪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건 또 뭐야? 철광맥이라도 찾아내는데 아니야?》 하고 경팔이 곡괭이를 더 힘있게 들이박자 《뽕그 랑》하고 날끝에서 불꽃이 일며 쇠붙이가 튕겨나왔다. 시꺼멓게 녹슨 삐죽삐죽한 쇠조각이 나왔다.

《엉? 이게 파편 아니야?》

폭탄파편이었다. 무너진 비탈자리에서 어떻게 파편조각이 나올가. 여기에 산들이 생기던 먼 때에 무슨 폭탄이라도 있었더라 말인가.

성철의 곡괭이끝에서 기총탄피가 튀어나왔고 내 지레대에는 거멓게 탄 달구지땀에가 걸려나왔다. 《아하!》 우리는 그때야 리유를 깨달았다.

바로 이 자리에 옛날 1950년 조국해방전쟁때 도로가 있었던것이다. 폭격에 옆의 벼랑이 무너져내려 길을 막아버렸고 시간을 다투는 전시수송대렬이 그것을 에돌아간 바람에 갈구리같은 굽인 돌이길이 생겨난것이라. 이제는 비탈이 여기에서 피이하게 칼로 베여 젖혀놓은것처럼 물러앉은 까닭도 리해되었다. 그때 생겨난 50년대의 비탈이 깊이 스며드는 2005년의 비물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린것이었다. 그 깨달음이 우리를 흥분케했다. 전시수송대렬이 흘러가던 도로, 그우에 나타나 기총사격과 폭탄을 퍼붓는 적 비행기들, 폭연과 불길, 그속으로 멈춤없이 흘러갔을 전시수송대렬, 마치 우리가 50년 전쟁속에 뛰어들어 전시수송로를 개척하고있는듯 싶었다.

문득 하나의 시구절이 귀가에서 쟁쟁히 울리기 시작했다.

깜깜한 밤길!

시한탄에 밤이 뛰는 신작로

죽음이 목숨을 틀어잡은 여기서

무슨 그림자이나 말소리나

《치기영-어기영-치기영》

복구대는 일한다

시한탄을 끌어내친다

곡괭이날끝에서 튕겨나오는 파편과 탄피들...

그러면 어둠속에서 호각소리 울리고

서리어런 화물차는 박는듯이 멎고

젊은 운전사의 목소리는

《길이 어떻게?》

그러면 어둠속에서 반기는

《길이 좋아요!》

...

그 목소리는 아마도 분옥의 목소리처럼 맑고 쟁쟁했으리라. 불에 타서 거멓게 된 나무그루터기가 지레대끝에서 불끈 솟구쳐오른다.

처녀의 맑은 목소리를 뒤이어

다시 호각소리 출발을 울리는

천리길 그 많은 굽이굽이에서

밤마다 밤마다 죽음을 이기는

조선의 싸우는 후방

...

《자- 동무들, 더 다그칩시다! 벌써 아홉시가 넘었소. 열시에는 대렬을 통과시켜야 하오!》

하는 지배인의 웨침에 나는 깜짝 놀랐다.

벌써아홉시가 넘었다니? 나는 그때까지 시간의 흐름을 까맣게 잊고있었다.

기껏해서 한두시간이나 흘렀으리라 생각했는데 벌써 아홉시가 지난것이다.

《이거 랑팬데?》

성철의 말에 경팔이 한숨을 쉬었다.

《우릴 눈이 까매서 기다렸을텐데.》

그러나 당장은 열시라는 시간이 더 급했다.

열시에 기계화부대를 통과시켜야 한다.

늙은이들 말대로 하면 사는 사고 공은 공이다.

그때 지배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저건 무슨 차요?》

사람들이 삐곡 탄 화물차가 두대나 달려오고 있었다. 가까이 온것을 보니 합숙생들이었다.

아마 기상해서야 뒤늦게 소식을 알고 달려왔을 것이다. 반가운 지원부대였다.

그러나 예쿠, 그들속에서 영육이와 분옥의 얼굴이 우리쪽을 지켜보고있었다.

《야단났는데!》

우리 셋은 당황하여 서로 마주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누가 동무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소?》하고 지배인이 헐떡거리며 달려와 무슨 말인가 하려고 하는 합숙책임자에게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아, 말도 마십시오. 운반식사를 차에 실는데

저 친구들이 어느 사이 알아차리고 왁 올라라고는 빨리 가자고 내모는통에 …》

《흥! 그러니 동문 끌려왔다는거구만. 어떻게 함숙생들이 일요일휴식을 못하게 한데 대하여 책임질줄 아오!》

《아, 지배인동지, 그거야…》

영옥이와 분옥이가 오고있었다. 그런데 늘쌍미소가 반짝이던 영옥이의 새별눈에는 찰찰함만이 가득했다. 분옥은 솟제 눈길을 들지도 않는다.

영옥이 우리앞에서 벗어섰다, 그는 어색스레 헤벌쭙이 웃는 경팔이나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성철에게 분개한 시선을 겨누었다.

《동문 어떻게 여기에 와있어요? 병원입원실을려관방으로 안게 아니예요?》

《영옥동무, 사실은-》

성철이 입을 여는데 영옥은 책 돌아서버렸다.

더는 《연구대상》의 가치가 없다는듯 한 태도였다.

《됐어요!》

하고는 찬바람이 일게 지나가버렸다. 멍-해졌던 성철은 영옥을 따라가는 분옥에게 황급히 쫓아갔다.

《분옥동무, 사실은 말이요.》

《됐어요!》

분옥이도 가버렸다.

《야단났구만. 녀자들이란 한번 앵돌아지면 용서안한다는데.》 하고 경팔이 머리를 흔들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다는거야.》

《후-》

10년, 20년이러니?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10년, 20년이면 우린 모두 늙어빠지고 말텐데!

《여- 인식이!》

우리의 《암담한 처지》를 알리 없는 갱장이 빨리 오라고 찾고있었다. 무엇인가 장애물이 나타난 모양이었다. 우리는 서로 쳐다보고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역시 사는 사고 공은 공인것이다!

길 한옆에 불룩한 암반이 솟아있었다. 그것을 처리해야 길이 열릴텐데 그놈은 여간만 단단하지 않은 청석이었다.

《여, 공병.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경팔이와 성철은 나만 쳐다보았다. 그래, 이진 《공병》의 분야다. 큼직한 일에서는 막힘없던 지배인도 암반앞에서는 난감한 기색을 짓고있었다.

아무리 커도 암반 하나가 지배인의 사업분야에는 어울리지 않는것이다. 정과 함마로 까부시자 해도, 발파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데 이놈의 바위가 어떻게 여기에 솟아있었을가, 석비레속에는 이런 청석바위가 있는적이 드문데… 혹시 어디서 굴러내려와 박힌것이 아닐가. 나는 길옆의 높은 비탈을 살펴보았다. 언뜻 비탈옆에 서서 주위를 살펴보는 분옥의 생각에 잠긴 모습이 안겨왔다. 그 모습이 나에게 웬일인

지 전에도 어디서 보았던듯한 느낌을 주었다.

언제 저렇게 서서 눈길로 주위를 더듬는 그를 보았던가. 개암나무, 조팝나무들이 조용히 설령대는 비탈… 그 비탈우에 이끼덮인 바위들이 석벽을 이루고 솟아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길바닥에 솟아있는 바위의 자리를 더듬어보았다. 그리고 곧 성철이와 경팔에게 말했다.

《이놈은 여기 본토배기가 아닌것 같애. 지레대!》

그들은 내 말뜻을 단번에 알아들었다. 공연히 우리를 《일심동체》라고 하는것이 아니다. 우리 셋은 지레대를 하나씩 들고 바위밑등으로 힘껏 처박아넣고 온몸의 무게로 내려누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러자 암반이 통채로 흐물거렸다.

《야!-》 하는 환성이 일었다.

《일은 이렇게 하는거야!》

갱장이 만족해서 버럭 큰소리를 친다. 아마 팔따시만 한 물고기가 물러올라올 때도 이렇게 큰소리는 쳐보지 않았을것이다. 기세가 충천해진 경팔은 지레대를 더 깊이 박으며 나에게 소리쳤다.

《여, 인식이! 〈나는 지구를 뜰테이다〉 한게 누구던가?》

나를 이름으로 부르는것은 한바탕 연설이 시작될 조짐이다. 아마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지식을 한바탕 피력하고싶어진 모양이었다. 나는 지레대를 힘껏 처박으며 대답했다.

《지레대지!》

《뭘》

경팔의 랑패한 기색에 주위에 둘러서있던 지휘부성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바위가 움츠거리며 솟구쳐올랐다. 다시 터져오르는 환성을 들으며 나는 분옥이쪽을 흘금 보았다. 그는 솟구쳐오르는 바위를 보고는 놀란듯 했으나 나를 얼핏 보는 눈길은 여전히 찰찰했다. 후- 완전한 만년설이었다. 바위를 굴러내던지니 일은 다 되었다.

바위가 틀고앉았던 자리를 고루기만 하면 끝이다. 그런 데 삼으로 고루려던 나는 그 바위가 있던 자리에서 이상한것을 발견하였다. 웬 네모난 물건이 바위밑등의 형태로 짓눌려 땅에 박혀있는 것이었다.

《이게 뭘가?》

땅과 너무 굳게 붙어있어서 잔디를 뜬듯이 흙과 함께 뜯어내야 했다. 삼으로 떠들고 한옆에 나가 흙을 털어낸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삭을대로 삭아 형태만 남아있기는 했지만 우편가방이었던것이다. 전쟁때의 우편가방이었다. 우편가방을 알아본 순간 나의 눈앞에는 지난밤 시계바늘을 볼 때 떠올랐던 연상이 다시 떠올랐다. 산비탈에 앉아 길을 바라보는 늙은이, 그에게로 달려가는 소녀, 하염없이 그곳을 더듬고

있는 처녀... 내가 방금전에 보았던 분옥의 모습은 내가 련상속에서 몇번이나 그려보았던 그 모습이었던것이다. 그때 나의 감동을 무슨 말로 할 수 있으랴...

나는 푸실푸실 부서져내리는 우편가방을 들고 분옥에게로 달려갔다. 일은 이미 다 끝났다.

분옥은 시원스레 열린 길옆의 비탈에서 나의 련상속에서처럼 쓸쓸한 눈길로 주위를 더듬고있었다.

《분옥동무, 분옥동무!》

《?!》

그의 눈에는 나의 너무도 갑작스런 직선적인 돌입에 대한 놀라움과 당황함, 일종의 공포까지 나타났다. 그의 시선이 두려움에 차서 주위를 얼핏 살폈다. 그러나 나는 그런것에 개의치 않았다.

《이걸 찾았소! 동무 할아버지의 우편가방을 찾았단 말이요!》

《네?!》

여느때라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용기를 낼수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감동과 충격이 너무도 컸다.

《동무네 할아버지가 폭격에 중상을 입고 우편가방을 잃은 곳이 여기가 아니요? 할아버지와 동무가 우편가방을 찾아 헤맨 곳도 여기이고... 난 알고있소! 바로 그걸 찾았단 말이요!》

《?》

분옥의 눈은 더 큰 놀라움에 차서 나의 얼굴과 내가 들고있는 가방을 번갈아보기만 하고있었다.

《...》

그제야 나는 나의 실책을 깨달았다. 그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한적이 전혀 없었다는것, 서로 그 어떤 이야기도 주고받은적이 없었다는것, 내가 처녀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지어는 두렵게까지 하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가방만 내려다보며 두서없이 더듬더듬 중얼거렸다.

《난 그저 ... 동무 할아버지에 대해... 들은적이 있기에... 이것이 바로 그 우편가방일거라고... 생각했소... 미안하오. 내가 너무...》

그때 나는 가방으로 내밀어오는 떨리는 두손을 보았다. 그 손은 가방에 와닿았다. 그리고 조용한 음성이 나의 귀가에 들렸다.

《고마와요... 인석 ... 동무.》

나는 시선을 들었다. 그러자 두려움대신 한량없는 고마움과 감동에 젖은 눈동자, 맑은 눈물이 샘물처럼 차랑차랑 고여오르는 두눈을 보았다.

...

모두들 운반식사를 실고나온 차결에 모여들어 떠돌고있었다. 할 일을 마친 뒤의 식사란 흥겨운것이다. 그러나 대식가들인 우리는 차결이 아니라 조팝나무와 개암나무가 촘촘한 비탈아래에 모여앉아있었다. 우리란 우리 호실 셋과 분옥이 그리고 영옥이었다. 영옥의 《분노》는 어느 사이 사

그라져버렸다.

《그렇다니까. 사랑싸움이란 워낙 칼로 풀베기였어.》

하고 경팔은 눈을 찡긐거렸다. 그는 방금전에 그런 노여움은 10년이건 20년이건 풀리지 않는다고 자기가 말한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듯 했다.

하긴 수다스러운 사람들의 기억력이란 원래 그런것이다. 우리는 가방을 조심스레 다루었으나 손을 댈 때마다 흠처럼 부스러져나갔다. 가방이라기보다 가방의 《화석》이었다. 그러나 가방안에 들어있는 편지 한통은 그런대로 형태를 보존하고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유지에 싸서 넣었던것이다. 그날비가 왔던것인지 ...

잃어진 편지를 두고 한생 괴로와했다는 책임성 높은 우편통신원의 얼굴이 보이는듯 했다.

봉투의 글자는 잉크로 썼는지 푸르스름한 얼룩으로 되어버려 전혀 알아볼수 없었으나 연필로 쓴 속지의 글자들은 얼마간 알아볼수 있었다.

어쩌면 전호에서 총탁판에 대고 쓴 편지일지도 몰랐다.

그 편지를 분옥이가 읽었다.

우리는 그를 명실공히 편지의 주인으로 인정했다. 우리에게는 주위가 깊은 정적에 싸인듯이 느껴졌다.

잠자리 한마리가 우리 머리위를 분주히 맴돌다가 정적에 젖어든듯 개암나무 옷초리에 조용히 내려앉더니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숲속에서 나무통을 쪼아대는 딱따구리의 따르륵소리가 먼 기관총사격소리처럼 간간이 들려왔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그날 밤이 몇시간후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리라는것을 꿈에도 상상못하고있었던 그날밤 6월 24일 밤이 선히 떠오르군하오...》

《50년 6월 24일 밤?》

딱따구리 나무쪼는 소리가 더욱 멀어지며 들려왔다.

《다음날 일요일에 우리 작업반은 모두 가족을 데리고 야유회를 가기로 했었지. 당신은 그 준비로 밤을 새웠고...》

6월의 마지막일요일, 월계회를 앞당겨끝낸 그 토요일저녁은 얼마나 좋았고 미구에 맞을 일요일 또한 얼마나 행복하게만 생각되었소? 그대로 명절이었소. 그날 밤 우리는 다투기도 했고 성도내고 웃기도 하며 음식준비를 했더랬지. 세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준비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고... 그때 당신은 말했지. <래일 아침 늦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 <늦잠을 자면 뭐라오? 래일은 일요일인데.> 하고 나는 대답했고...

그러나 그 일요일은 오지 않았소. 미제놈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그 일요일은 없어지고말았소.

없어져버린 일요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오.

얼마나 행복할 일요일이었소? 난 그날에는 당신에게 섭섭하게 굴었던것, 노엽게 했던것을 모두 풀어주려고 했었소. 그런데 ...

그러나 여보. 일요일은 없어진것이 아니요.

잃어버린것도 아니요. 미군놈들을 이 땅에서 몽땅 몰아내고 진짜 일요일을 우리 마음껏 즐기요. 우리의 머리위에 어떤 전쟁의 소낙구름이 드리워있는지도 모르는, 불과 한시간후에 터져오를 전쟁의 폭음도 느끼지 못하고 즐기려고만 했던 일요일이 아니라 더는 이 땅에 전쟁의 위험도 미군놈들도 없는 통일된 조국땅에서 진짜 일요일을 즐기요.

그 무엇도 없어지거나 잃어진것은 없소.

우리는 다만 그것을 전쟁승리후로, 통일후로 미루었을뿐이요.

나는 이 미제놈들과의 싸움터에 나와서야 비로소 깨달았소. 우리가 그토록 행복한것으로만 그려보았던 일요일위에 얼마나 무거운 먹장구름이 드리워있었는가를 말이요. 우리는 너무도 천진했소, 어린애였소. 그 일요일이 진정한 일요일일수 없다는것을 모르고있었으니 말이요.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하오. 그 어느때보다도... 이제 미제놈들을 이 땅에서 모조리 쓸어버리고 통일된 땅에서 우리 진정한 일요일을...》

분옥은 편지장만 들여다보고있었다.

《왜 더 읽지 많소?》

성철의 물음에 대답하는 분옥의 목소리는 눈물속에 흐려져버렸다.

《다음은... 더 없어요.》

부스러지고 흐려져서 주소가 없어진 봉투.

《지금이라도 찾아줄수 있다면 ...》

속삭이는듯 한 분옥의 눈가에 눈물방울이 맺혀있었다. 보낸 사람도 받을 사람도 알수 없는 편지. 55년전 전호에서 쓴 50년대 전선병사의 편지, 그 병사는 자기의 편지가 반세기후의 세대, 우리에게 읽혀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것이였다.

그러자 하나의 깨달음이 가슴을 쳤다.

이것은 우리 조국의 1950년대가 오늘에, 우리 세대에게 보낸 편지라는... 편지는 주인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분옥의 음성이 편지의 마지막글줄을 다시 조용히 되풀이해 읽었다.

《이제 미군놈들을 이 땅에서 모조리 쓸어버리고 통일된 땅에서 우리 진정한 일요일을...》

나는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되받아 외쳤다.

《우리 진정한 일요일을...》

지난밤에도 느꼈던 래일에 대한 느낌, 그것은 결코 불안이 아니였다. 불안이란 인식하지 못한 필연에 대한 예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있었다. 래일에 무엇이 있을수 있다는데 대하여,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깃들 때까지는 어느 일요일도 진정한 일요일일수 없다는데 대하여 알고있었다. 그것은 선대로부터 유전되어온 시대에 대한 자각과 사명감이였다!

즐거운 이 저녁 다정한 동무들
우리 서로 약속하자
이 행복 몸바쳐 지킬 때 온다면
우리 다시 만날 곳을
...

차결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우리의 가슴속 깊이로 스며들었다. 우리의 옷과 손에서 풍기는 흙냄새, 그것은 마치 전호의 흙냄새처럼 느껴졌다. 사실 우리는 전호에 서있는것이 아닌가.

귀중한 어머니 조국을 위해
전선에서 만나자
...

진정한 일요일을 위해, 행복할 일요일을 위해...

...

부릉부릉 하는 발동소리가 굽인돌이 저쪽에서 가까와왔다.

《온다!-》

드디어 행렬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것은 인민군대련합부대의 행렬이 아니라 농기구들과 비료, 지원자들을 실은 농촌지원행렬이였다. 켁-해지는 우리를 보며 지배인은 빙그레 웃었다.

《주타격전선으로 가는 련합부대요.》

뜨락뜨락, 불도젤, 길다란 망썩차들에 근엄하게 실려있는 수확기와 탈곡기들...

그날 우리가 함속으로 돌아왔을 때는(나는 적재함 맨앞에 분옥이와 꿈속에서처럼 나란히 서있었다. 그의 머리수건이 작은 기발처럼 팔락거렸다.) 함속창문들에서 일요일의 저녁노을이 모닥불 불빛처럼 타오르고있었다. ...

×

이것이 지난해 어느 일요일에 있는 이야기이다. 그때부터 일년이 가까와온다. 일요일도 수십번을 지나보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진정한 일요일은 오지 않았다. 미제의 반공화국책동은 더 악랄해지기만 하고있다. 허나 우리는 또한 그 일요일이 멀지 않은곳에서 오고있다는것도 잘 알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6.15북남공동선언이 있기때문에 ...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항일의 나날 혁명의 미래와 더불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후대교육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다.

새 학년도 준비사업을 다그치고있던 주체36(1947)년 7월 어느날이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교과서인쇄정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 인쇄공장을 찾으시었다.

그때 공장에서는 교과서인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은 여러가지 출판물들을 인쇄하는 조건에서 그것들을 계약에 맞물린 순차에 따라 경중을 가림이 없이 인쇄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공장의 책임일군으로부터 이러한 실태를 보고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된 지금 우리 일군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일하는것이 아니라 혁명을 위하여 일하고있다고, 그런것만큼 공장에서 인쇄순차를 마땅히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개학을 앞둔 지금 교과서인쇄보다 더 긴급한것은 없다고, 지난날 학교문앞에도 못가보았던 우리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으로 모두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새 학년도를 맞는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계속하시여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산에서 싸울 때 우리는 유격구마울들에 학교를 세우고 술한 아이들을 공부시켰다고, 그때 우리에게 이런 인쇄공장이 있을리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밤을 새우면서 등사를 하여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때에 비하면 오늘이야 조건이 얼마나 좋은가고, 우리 일군들이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새 학년도전으로 얼마든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찍어줄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날 작업장에도 들리시여 새 학년도전으로 교과서인쇄를 끝내서 우리의 귀여운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안겨 주자고 노동자들을 고무해주시고 교과서를 하나의 티도 없이 깨끗하고 알뜰하게 만들데 대한 귀중한 말씀을 주시었다.

조국의 미래를 귀중히 여기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거룩한 자욕은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인쇄순차를 다시 정하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새 학년도전으로 기어이 교과서를 인쇄하여 계획대로 보장하게 하였다.

가사

병사의 길동무

류춘선

백양나무 설레는 내 고향 언덕 넘어

정답게 들려오던 병사들 노래소리

씩씩한 그 노래 따라부르며

장군님의 병사가 될 꿈을 키웠네

아 군가를 부르며 꿈을 키웠네

장군님 찾으시는 최전연고지들이

위훈의 군가속에 내 가슴에 높이 솟네

조국을 지켜갈 희망은 꽃피어

오늘은 총을 잡은 병사되었네

아 군가를 부르며 나는 자랐네

어린 날 내 녀에 심어진 혁명군가

영광의 한길로 이 몸을 세워주네

장군님과 내 운명 하나로 이어준

군가는 영원한 병사의 길동무

아 군가를 부르며 한생을 빛내리

절세의 애국자

리일섭

노래가 울린다
새벽의 고요를 흔들며
또 하루 새날을 알리는
애국가의 은은한 선율이

하늘땅 공간을 가득 채우며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저 노래
들을수록 가슴뜨거워
몽클 솟구치는 그리움에 깊어지는 생각

파연 이 땅에 날마다
맑고 창창하게 열리는 평화론 새 아침이
지구의 자전속에 엇바뀌는
그 레사로운 아침이던가

알고싶어라
우리 장군님 이 새벽도
길가에 달리던 차를 세우시고
병사들의 기상시간 기다리시던 그날처럼
최전연 그 어느 험한 평길에서
찬이슬 맞고 계시는것 아닌지

어둠질은 안개발 헤치시며
새로 정리한 벌을 찾으셨던 그날처럼
그 어느 포전머리 전방도앞에서

승용차 전조등불빛 비쳐가시며
래일의 밝은 앞날 펼쳐주시는것 아닌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우리 장군님처럼
병사들과 인민을 사랑하시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는분이

그이 불구름 막아 지켜주시는 하늘에
저렇듯 비둘기 자유로이 춤추며 날아예고
그이 눈비를 맞으며 가꿔주시는 대지에
저렇듯 푸른 포기 우줄우줄 키솟구며 설레나니

최전연의 험한 령 굽이굽이라
북방의 눈덮인 산 즐기즐기랴
그이의 철의 의지가 비끼
그 모든 길우에서 오늘도 뜨겁게 올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그 애국의 송가여

오, 선군령장의 거룩한 자욱자욱으로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을 울리시며
이 땅의 새날을 떠올리시는
절세의 애국자 우리 장군님 계시여
내 나라의 아침은 영원히 맑고 창창하리라
내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빛나리라

비둘기는 날았네

송은미

비둘기는 날았네
폭격에 거리는 무너졌어도
아름다운 조국산천 불속에 묻혔어도
새마저도 없어진 재빛하늘에
흰비둘기 날았네

원썹들의 폭격에
산새들도 보급자리 잃던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 자리잡은
건지리 작은 집 추녀아래
따뜻한 것을 퍼고
비둘기는 날았네 불구름을 딛고서

포화에 하늘은 흐려졌어도
어리신 장군님 키우신 흰 비둘기
그 검은 구름우로 날고날았네
멀지 않은 승리를 약속하며 ...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서
한밤을 지새우시는 수령님 우러러
장군님 굳게 믿은 우리의 승리
그이의 신심넘친 밝은 웃음 안고
건지리 하늘가로
비둘기는 날았네

아, 전화의 그날
최고사령부 하늘가에

장군님 날리신 흰 비둘기
 그 작은 날개아래서
 전쟁을 모르는 아이들의 미래가
 세찬 퍼덕임되어 창공에 나래쳐오르고
 마를줄 모르는 행복의 샘이 솟구쳤더라

건지리 흰 비둘기는
 오늘도 창공을 날은다
 장군님 총대로 지켜주신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로
 비둘기는 날은다

그리움의 노래

최준경

정다운 동구밖 산넘어가도
 고향집 내 어머니 생각나듯이
 구름너머 이 세상 먼곳에 갈수록
 더욱 사무치게 그리운 장군님의 품
 이 가슴의 순정을 태웠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함께 있고싶어 마음 달리고
 슬하에 함께 있으면
 아이처럼 그 품에 안기고싶던 마음
 가슴속 골짜기에서 샘처럼 솟아
 그리움의 대하로 굽이쳤습니다

산설고 낮선 타향땅에서
 깊은 밤 잠을 청할 때도
 마음속에 자꾸만 젖어오는것은
 저 멀리 북두칠성의 밝은 모습과 함께
 그리움의 노래 흙모의 노래였습니다

온밤 그리움에 모대기다
 첫새벽에 깨여날 때도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것은
 내 조국 하늘가에 찬란히 솟아오는
 봄날의 태양같은 장군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젖먹여주고
 애지중지 키워준 어머니같이
 사랑으로 내 희망을 꽃피워주고
 믿음으로 걸음걸음 내세워주며
 내 심장에 청춘의 피가 뛰게 해주신
 장군님 그리워 하도 그리워
 훨훨 줄지어나는 기러기떼에
 내 조국으로 떠가는 흰구름에
 그 얼마나 간절한 나의 소원을
 가슴타는 그리움으로 실어보낸것입니까

춘하추동 사시절
 자신의 건강은 아랑곳 앓으시고
 언제나 전선길에 계시는 우리 장군님

비바람 불면 가실 길 멀다해도
 험산령 굽이굽이 삼가하시고
 저녁노을 지기 전에 귀로에 오르시기를
 이국의 하늘밑에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기가 엄마품을 떠나 살수 없듯이
 장군님 그 품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몸
 이 세상 만리길 가면갈수록
 그리움은 더욱 뜨겁고 진하고 순결해
 언제나 마음속 상봉은 있었어도
 한순간의 한치작별도 없었나니

아침저녁 갈마드는 천만가지 생각은
 어버이장군님께로 곧추 향한
 그리움과 축원의 한마음뿐
 그속엔 아침노을처럼 티가 없었고
 태양계의 위성처럼 드림없었습니다

정녕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순간도 변치 않는
 나의 매혹과 그리움은
 나의 삶과 행복의 전부
 그리움은 나의 순결과 심장의 노래
 그리움은 나의 신념과 의지의 절정
 하늘땅에 번개치고 우뢰치여도
 나의 참된 삶을 빛내갈 충신의 의리였습니다

아, 진정 무상의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소생의 숨결안고 먼 이국땅에서
 것처럼 뵈고싶던 내 삶의 은인 장군님을
 오늘 다시 조국땅에 돌아와
 몸가까이 우러러 뵈는 이 시각
 가슴가득 쌓였던 감사의 정과 함께
 그리움의 뜨거운 인사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장군님 그리웠습니다!
 장군님 뵈고싶었습니다!
 장군님 부디 건강하시라!

우리 당의 행군로

리용악

배개봉은 어디바루 해는 또 어디
하늘조차 보이잖는 울울한 밀림
찌죽찌죽 우는 새도 등지 잃었는가
갑작스레 쏟아지는 모진 비방울

꼭아보자 그날은 스물몇 해전
우리 당 선두대렬 여기를 행군했네
억눌린 형제들에게 끌고루 안겨줄
빛을 지고
필승의 총탄을 띄고

넘고넘어도 가로막는 진대통
어깨에 허리에 발목에뿐이라
나라의 운명에 뒤엎겼던 가시덤불
붉은 한뜻으로 헤쳐나간 길

저벅저벅 밟고간 자국소리
아직도 가시잖는 그 소리에 맞추어
너무나 작은 발로 나도 딛는 땅
막다른듯 얹히다도
앞으로만 내내 트이는구나

진주를 다듬어 천리에 깎다한들
이 길처럼이야 어찌 빛날가
조국의 광복을 만대에 이으신
김일성동지!
그이의 가슴에서 시작한 이 길!

감사를 드리노라
우리 당의 행군로를 한뼘으로 따르며
투사들이 선창한 혁명의 노래
온몸으로 부르고 또 부르며

바래우시던 그날에...

김 연

아직은 어리셨던 우리 장군님
평양을 떠나 자신의 곁을 떠나
백두산답사의 첫 행군길 오르실 때
아, 우리 수령님 심중 어떠하셨을가

어른들도 선뜻 용단하기 힘든 길
그 누구도 미처 생각지 못한 길
그 길을 향해 신들메 매시고
그 길을 향해 배낭을 무겁게 메실 때

가셔야 할 길은 아득한 천리
당으셔야 할 곳은 울창한 백두밀림
헤치고 넘어야 할 험산준령은 그 얼마며
찬이슬 맞아야 할 숲속의 밤은 또 얼마...

아, 수난의 옛 세월
조국의 운명 작은 어깨에 메시고
자신께서 가셨던 그 길
해방된 조국에선
오직 추억으로만 간직하신 그 길
그 추억을 헤치시며
10대의 아드님은 떠나시거니

귀전엔

백두의 눈보라 우우- 울고
발목엔 금시
천리수해의 가시덤불이 휘감기는듯...
그 길이 꽃향기 날리는 등산길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수령님

그래서 마음은
더없는 미더움에 설레이셨으리
조선혁명의 역사를 고요히 품고있는
백두산지구
그 백두산을 빛내시려
장군님은 결연히 나섰거니
대오를 이끄시고 기발을 날리시며

오, 무슨 당부가 더 계시랴
나일로 헤아릴수 없는 웅건한 그 세계앞에
혁명전사로 엄숙히 서시며
혁명의 중하를 스스로 메시는
불같은 그 자세앞에!

뜨거우시여 가슴 뭉클 젖어오시여
수령님은 허리를 낮추시며
신들메를 조여주시고
배낭끈도 바로 잡아주시며

격려하시는듯 따뜻한 손길
장군님 어깨우에 없으시었으리

이제
보천보의 해불은 다시금 불타올라
온갖 잡초들을 불태우고
삼지연 맑은 물은 혁명의 생명수가 되려니
믿으심에
확신하심에

손저어 바래우시며
수령님 지으셨을 뜻깊은 미소여!

아 그날
멀리 백두산쪽을
기쁘게 바라보신 수령님 안광엔
주체혁명의 찬란한 앞날을 확신하시는
벅찬 환희가
소리없이 조용히 굵이쳐 흘렀으리라

백두의 길

리연희

새소리 물소리
추억도 아름다운 백두고향
허나 그이께선
고향에 대한 추억만을 안고가신 길이 아니였다

가슴엔 소년단 붉은넥타이
기폭처럼 뽀뽀 휘날리시며
우리 장군님 헤쳐가신
백두의 길

분비나무 이빨나무
자욱자욱 뒤엉켜 막아서는 밀림
항일의 성스런 발자취를 물어버리려는 무리들
걸음걸음 력사의 락엽으로 쓸어버리시며
역세계 열어가신 행군길

우리 혁명의 성지 백두의 길을
감히 세월의 이끼속에 덮어버리려는
어지러운 궤변들을
폭풍치는 눈보라속에 날려버리시며
백두에로 백두에로 이어가신 길

소중히 안아보시였구나
숙영의 한밤이 깃든 천막자리
한줄기 그날의 풀잎에도
투사들의 숨결 어리어오는듯
눈속에서도 우등불자리 헤쳐보면
가슴엔 뜨거운 《사향가》의 선불
울리어오는듯

그 어이 물어버릴수 있으라
항일의 혈전만리
수령님의 그 거룩한 자욱
사나운 비바람 눈바람도
지워버릴수도 덮어버릴수도 없었던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백두산조국의 미래를 안고가신 길이였다
우리 수령님 찾아주신 내 나라
천만인민의 고향을 백두에로 이어주신
아 력사의 행군길
장군님의 길이여

가사

백마철산 굽이굽이 물길에

최성률

아득한 굽이굽이 백마철산물길에
에헤라 늑실늑실 생명수 흐르네
해불을 추켜들고 산악을 뚫고간
우리의 노래가 물결되어 흐르네

청춘의 더운 땀 아낌없던 물길에
에헤라 출렁출렁 생명수 흐르네
승리를 굳게 믿어 붉은기 휘날리던
그날의 신념이 물결되어 흐르네

장군님 그리며 우리 걸은 자욱우에
에헤라 굽이굽이 생명수 흐르네
금나락 펼치며 강성대국 꽃피날
눈부신 래일이 물결우에 흐르네

아 백마철산 굽이굽이 아득한 물길에
이 땅의 영원한 행복이 흐르네

50 년전 그 날에

석남진

6월의 삼지연마을에는 봄의 훈향이 가득 차고 넘친다. 해별이 따뜻하게 내려쬐이는데 새파랗게 새움이 트는 이깎나무들이 봄바람에 설레인다.

거리거리에 늘어선 매지나무, 꽃버들과 같은 나무들에도 파란 움이 돋고있다. 허향령기슭의 풀밭에는 민들레가 노랗게 무더기로 피어났다.

봄날의 삼지연마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종합안내봉사기지로 웅장하게 일떠선 《백두관》앞에 서서 둘러보면 울긋불긋한 지붕재를 씌운 아담한 살림집들, 새빨간 뽕죽지붕의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큰 공공건물들이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온다. 새 세기에 들어와 삼지연지구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로서의 그 면모를 더욱더 훌륭하게 일신하였다. 나는 이 전변의 력사에 깃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을 취재하기 위해 삼지연군을 찾아왔다.

《삼지연일대가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진데 깃든 이야기를 듣고싶단 말이지요?》 삼지연군혁명사적부문에서 오래동안 사해해온 일군은 나의 취재목적들을 듣고 의미심장하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한두마디말로 다 할수는 없는것이고... 우선 나와 함께 갑시다.》

그 일군은 나를 이끌고 걸음을 옮기였다. 하여 우리가 이른 곳은 옛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자그마한 귀틀집이였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오를 이끄시고 삼지연에 오셨을 때 하루밤 묵어가신 귀틀집입니다.》 하고 일군은 나에게 설명하였다.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들이 발굴되지 못한채 력사의 이끼속에 깊숙이 묻혀있던 그 시절, 삼지연마을도 깊은 수림과 덤불속에 둘러싸여 사람들속에 알려지지 않고있던 그 시절 여기에 거룩한 발자국을 찍으신 위대한 장군님.

《삼지연을 비롯한 백두산지구의 전변의 력사는 바로 50년전 그날에 시작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군의 격조높은 목소리가 나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였다. 그렇다.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들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꾸리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벌써 50년전에 시작된것이였다.

1956년은 우리 당안에 기여들었던 어중이, 떠중이들의 준동이 가장 극심하던 시기였다. 놈들은 제각기 자기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말살해보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혁명전적지답사단을 무으시였다.

그때 그이의 나이는 14살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을 광복하시기 위해 천리길을 떠나신것처럼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전통고수의 먼길을 떠나시였다.

일반적으로 초행길이 어렵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은 보통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간고한 길이었다. 이색분자들과 그 하수인들은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후날을 기다려야 한다니, 어린 학생들이 그 먼길을 어떻게 가느냐고 하면서 궤방을 놀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자들의 검은 속심을 꿰뚫어보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실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시며 1956년 6월 5일 답사단원들과 함께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혁명전적지답사, 그것은 단순한 답사가 아니였다.

망망한 등판과 가없는 원시림을 헤치는 개척의 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린 나이의 학생들을 이끌고 그 길을 뚫고나가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붉은 기발을 들고 혁명가요를 부르시며 행군대오의 앞장에 서시였다.

원수님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몸소 걸으셨던 길을 오늘은 우리들이 당당하게 걷는다시며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길인가고, 그 행군길에서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말씀이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이 백두산지구에 메아리치는것만 같다.

그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끝까지 지키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실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행군길이었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나가시려는 맹세를 걸음마다 남기시는 길이었다.

아, 그때로부터 세월은 얼마나 멀리 전진해왔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신 그 길을 따라 온 나라 인민들이 여기로 달려왔다. 길은 넓어졌고 미래를 향해 줄기차게 뻗어갔다.

혁명전통고수의 길, 붉은기를 지키는 그 길은 승리의 길이였고 영광의 길이었다.

장군님께서 개척하신 그 길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미제의 반공화국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국제정세의 그 엄혹한 변화속에서도 자그마한 동요도 없이 주체혁명위업완성으로의 력사의 행군길을 다그쳐나가고있는것이 아닌가.

그 길에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빛나는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이 삼지연지구에도 천지개벽의 모습이 펼쳐진것이 아닌가!

50년전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지연마을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삼지연일대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역사적뿌리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곳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아마 그때에는 하루에도 수백수천명의 사람들이 여기 삼지연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삼지연립산마을사람들과 그것을 약속하고 떠난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약속이 현실로 활짝 꽃피난 삼지연지구.

불멸의 혁명사적건물인 귀틀집을 나서니 깨끗

하고 아름답게 일신된 삼지연의 거리가 더욱더 깊은 의미를 띠고 나의 눈에 안겨들었다.

답사대오가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거리를 활보하고있었다. 대오는 길다랗게 늘어서서 행진해간다.

그 대오는 이제 백두산으로 향해 갈것이다.

그런데 어쩐지 나에게는 그들이 우리 혁명승리의 봉우리에 붉은기를 꽂으려고 힘찬 걸음을 다그치고있는것처럼 느껴지는것이였다.

◎ 풍자시 ◎

새세기의 강도

주광일

거리마다 살구꽃 만발한 봄날
나는 증오의 시를 쓴다
조선동해의 섬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쫓아박은
저 섬나라 역사위조자들의 날조행위에
치솟는 분노를 안고

역사를 무시하고
우리 민족을 우롱하는
이 망동앞에
말 못하는 바위섬도 울분에 솟고
동해의 푸른 물결도 격랑을 일쿠는데

나의 시어는
창끝인양 날카로워진다
현대문명을 떠들며
쏘파에 몸을 잠근
《신사》들의 옷자락밑에서 번뜩이는
사무라이의 피문은 칼날을 보았기에

문노니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다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한
할애비들의 탐욕의 피는
세기를 이어 유전되는것인가

새세기의 하늘이 눈뜨고 굽어보는
도쿄의 한복판에서
넥타이를 쪽 빼입은
문부과학성의 고급한 《신사》들은
백지우에 독도를 제땅이라 써놓으면
그대로 역사가 되리라고 망상했다

어리석구나
역사가 눈을 감고있다고 생각한다면
령토팽창의 야망이 목구멍까지 꼭 찬
사무라이의 후에 당신들에겐
남의 땅도 이제는
비계덩이로 보이는것이나

나는 상상해본다
오늘은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교과서에 쫓아박은 강도들이
래일은 조선도 일본이라고 우길수 있다는것을
저 하늘의 달도
일본달이라고 표기할수 있다는것을

오 피문은 게다짜이 울리기에는
동해의 바위섬이 너무도 아름답구나
내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 하여도
 역사를 날조하고
땅을 강탈하려는 《신사》들을
이렇게밖에 달리는 부를수 없다
너희들은 희세의 날강도

조상도 강도
그 후에도 강도
잠결에 헛소리를 쳐도
재침을 부르짖는 너희들은 날강도

강도에게 아름다운 말이 필요없거니
만약 너희들 스스로가
역사교과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강도란 칭호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인생의 한여름에

최치성

1

인간의 감정이란 불가사의한 것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그렇게도 눈에 익은 방이었는데 자신이 그 방의 주인으로 되었다는 것을 실감한 지금에는 왜 이렇듯 생소해보이기만 하는 것인가.

손경후는 벽가의 팔걸이결상에 앉아 새삼스러운 눈길로 방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성 무역국 국장실로서의 체모와 무게를 갖춘 듬직한 방이었다. 품위있는 가구들과 비품들 중에는 이채롭게 정서적 의미를 띤 물건이 하나 끼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탁자우에 올라앉은 나무배였다.

길이만 두 한메터 남짓이 큰 대형집배모형인데 그 형태미나 세공술에 있어서 손색이 없을만 한 물건이었다.

손경후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것을 여겨보고 있었다. 이전 국장 김유진이 특별히 애지중지하던 목각예술작품, 돌아가는 말로는 국장 자신이 직접 어느 재간있는 공예가에게 주문해왔다고 하는 그 나무배로 하여 범상치 않은 일화까지 생겨났었다.

그것이 국장실에 나타난 얼마후였다.

참모회의에 왔던 부서장들이 나무배를 감상하며 나름대로 호평을 하는데 유독 한사람만이 미완성품이라는 혹평을 내렸다. 리유는 닦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모두들 팬한 트집이라고, 비평자가 원래 찌뽀한 성미여서 그런다고 술렁거렸지만 국장 자신은 심중한 태도를 취했다.

《옳게 봤소. 닦이 없구야 배가 아니지.》

이어 전화를 들고 누군가를 찾는 듯 하더니 저 인기 실망한 표정이 되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출장을 갔구만.》

나무배를 제작해준 공예가를 녀두에 두고 하는 말이였다. 그 사실이 한입두입 건느는 동안 참모회의를 그만두기까지 했다는 것으로 윤색이 되었지만 어쨌든 나무배는 김유진국장에 대한 아래 사람들의 신뢰를 한층 두텁게 해주었다.

젊어한 때 김유진이 무역선 선장을 지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김유진의 나무배를 그 시절에 대한 애정과 추억의 표현물로만 보지 않았다. 그보다도 국장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는 바쁜 일군에게 그렇듯 이채로운 정서와 애모쁜 생활감정도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한편 따뜻한 친밀감을 자아냈던 것이었다.

하지만 손경후는 지금 그런 추억으로만 나무배를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10 여년간 무역국은 전례없는 시련을 겪어왔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으로 하여 무역과 운영에 적지 않은 애로가 조성되고 그로 하여 국의 전반실적은 거의나 령상태로 떨어졌다. 무역국전체가 그러하였지만 특히 국장 김유진의 고민은 흔치 않은 것이었다. 그러던 중 몇해 전 가치있는 수출원천을 탐구해내어 유리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을 계기로 재정형편이 펴이면서 뒤따라 운영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실적그라프는 상승선을 그리게 되었다.

바로 그런 좋은 때에 김유진국장이 문득 사직서를 냈다. 동시에 인민경제대학 재교육을 마치고있던 손경후를 자기의 후임으로 추천하였다.

김유진의 제기와 손경후의 공인된 실력을 고려하여 총국에서는 그를 국장으로 임명하였다.

하여 손경후는 갓 40 대라는 젊은 나이, 바야흐로 인생의 한여름이 시작되는 뜻깊은 시절에 큰 규모 무역국의 책임일군이 된 것이었다. 임명을 받은 다음에야 손경후는 환갑이 켜 지난 김유진의 나이와 장기질환으로 쇠약해진 그의 육체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몸으로 10 여년간 악전고투를 해온 성실한 일군, 기업소가 허리를 펴고 일어나게 된 다음에야 자리를 뜨려는 그 진실한 인간됨에 손경후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손경후가 임명을 받고 국에 도착했을 때에 김유진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아들처럼 반가이 맞아주었다. 뜻밖의 과분한 임명에(손경후는 그렇게 여기고있었다.)

응당 뒤따르는 일종의 두려움을 안고있었던 손경후에게 김유진의 태도는 무척 큰 힘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문득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구김살없이 현현하던 김유진의 표정이 갑자기 침침한 기색으로 바뀌어졌 것이었다. 가끔 웃기는 했지만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무엇때문일까…)

인계를 진행하는동안 줄곧 신경을 썼지만 쫓이지 않았다. 몸이 편치 않아 그러는가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떠나기전날에는 자기가 사용하던 개인사품 전부를, 심지어 서류끼우개며 깎지 않은 연필 몇자루까지(그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젊은 국장의 눈에 거슬리는 허접쓰레기들이었다.) 짱그리 거두고나서 손경후에게 말했다.

《국장동무만 반대없다면 저 나무배만은 그냥 놔두고 가려는데…》

폭 꺼진듯 한 어조, 나무배를 바라보는 눈빛도 무척 쓸쓸해보였다.

《아니, 반대야 무슨… 그런데 국장동지 애용품을 제가 어떻게 …》

《그래, 애용품이지. 김유진개인이 아니라 국장의… 그러니 새 국장에게도 애용품이 될수 있지 않을까 …》

《?》

의미심장한, 그러나 아직은 종잡기 어렵기만 한 말 … 손경후가 말없이 눈길을 떨구자 김유진은 천천히 다가와 그의 말을 꼭 잡았다.

《경후, 내 동무를 믿고 떠나가겠네.》

손경후는 더한층 착잡해지는 심리를 느끼며 이윽도록 서있었다. …

뚜닥뚜닥 데통스러운 문기척소리가 나는 바람에 그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대답도 하기전에 문이 열리면서 동실한 대머리가 나타났다.

《들어가도 됩니까, 국장동지.》

벌써 방안에 들어와서 뒤통질로 문을 닫은 다음에야 이렇게 묻는 그 사람은 처장 남태설이었다. 손경후는 무릅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태설은 성큼성큼 걸어와 그의 팔소매를 당겨잡았다.

《다시 한번 축하하오. 손동무.》

《축하요? 축하가 아니라 위로를 해야지요. 고양이가 소대가리 말은 격이 되었는데…》

《원, 별걱정을 다…》

남태설은 흠 하고 코소리를 내며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다가 갑자기 텐접한 기색이 되었다.

《아이쿠, 내가 이거 도덕없이…》

손경후는 빙그레 웃고있을뿐이었다. 남태설은 이제 겨우 마흔셋에 났는데 머리는 평갑처럼 흘벗어졌다. 언젠가 나이많은 한 부국장이 《례의없는 대머리》라고 야유한적도 있지만 본인은 그것

을 자랑처럼 여기고있었다. 대머리소유자는 원래 정력이 풍부하고 사업의욕이 왕성하다던가 체력이 좋아서 나라에도 보배가 되고 가정에도 화목을 가져온다던가…

축기 뜬 한 젊은이가 가정화목이란 또 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가 그한테서 통을 맞았다고 한다.

《이 사람아 가정화목엔 부부금술이 첫째라는 걸 모르나? … 알면서두 그러누만.》

손경후와 남태설은 소설이나 나올만큼 특이하고 친밀한 인연을 맺고있었다. 군사복무도 한 부대에서 했고 그 뒤 대학의 상급생과 하급생으로부터 졸업후에는 꼭같이 이곳 무역국에 배치되어 역시 상급과 하급의 관계로 도합 20 여년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2 년이 더 지나간 오늘 문득 자리바꿈을 하여 손경후가 남태설의 상급이 된 것이었다. 다만 대학동창이었거나 한 기관에서 함께 근무하였다고만 해서 남다른 인연이 되는것은 아니다. 그들 둘사이에는 보다 든든한紐帶가 있었다. … 남태설은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너무 의기소침해질진 없다고 보오. 다 배짱 갖기에 달린거지. 그리구 손동무야 그만하면 자기 실력을 갖추었는데 뭘 그리 걱정을 하겠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오.》

손경후는 진심의 부락을 했다.

《거야 여부있겠소. … 그러고보면 손경후하구이 남태설인 날 때부터 아예 단적으로 인연이 맺어진게 틀림없어. 허허허.》

다분히 주관적인 결론이었지만 그렇다고 반박할수도 없었다. 지금까지 둘사이의 관계는 정말 남태설의 말대로 흘러온것이 아닌가. 남태설은 한동안 두서없는 이야기를 했다. 종합해보면 후배인 상급에게 비록 하급이지만 선배로서 주는 일종의 조언이었다. 책임일군이 되면 모든 문제를 념량크게 보아야 한다는등, 나아갈 때는 힘껏 나가되 물러설 때도 한껏 물러서야 한다는등, 손동무의 타고난 성격인 그 지나친 예민성을 좀 두리뭉실하게 녹찾혀야 한다는등- 역설적인데도 있고 애매모호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손경후는 그저 들을만 하고 앉아있었다. 이윽고 남태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쨌든 국장동무. 락관하랴구요. 러놓고 말해 우리 국이 지금처럼 활기를 띠여본적이 있소? 그러니 손동무한테는 아주 잘된 일이요. 이를테면 금삼첨화라 할가…》

남태설이 나간 후 손경후는 그가 한 말을 다시금 음미해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전례없이 활기를 띤 무역국, 손경후 자신에게 아주 잘된 일, 비단우에 아름다운 꽃수를 놓은격…

그러니 내가 쉽지 않은 행운아로 났다는것인가, 말하자면 땅질고 혜염을 치게끔 되었다는건가. … 푹푹, 진중한 손기척소리가 울렸다. 손경후는

반사적으로 몸가짐을 바로잡았다.

《예, 들어오시오.》

키가 후리후리하고 표정이 무뚝뚝한 재정처장이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동지.》

50 대중반의 재정처장은 깍듯이 인사를 하고 나서 가져온 문건들을 꺼내놓았다.

《보시고 수표해주시시오.》

손경후는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문건을 끄당겨 가까이 놓았다. 손이 떨리거나 앓는가 하여 마음이 썩여지는듯싶었으나 저도 모를 심호흡이 생기는 동시에 가슴이 묵직해진다. 그래 잘될 것이다. 설사 행운의 덕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 보아야 합니까?》

《오늘중에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일보십시오.》

손경후국장의 첫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X

보통강반의 여름아침이다. 연한 운무로 깨끗이려파된듯싶은 신선한 공기, 풍성한 록음속에서 기운차게 울리는 매미의 우짇음소리와 수면을 스치며 날아에는 고추잠자리들...

자연이 인간에게 준 무상의 경치라고나 할가...

그런 아름다움과 깨끗함을 혼연히 감수할수 없는 사람들도 혹간 있으니 그중의 한사람이 바로 김유진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보라. 개미들이 이사가요.》

버드나무밑에 쪼그리고 앉아 열심히 눈씨름을 하고있던 손자녀석이 췌췌한 소리를 질러댄다.

가까이 가보니 사실이였다. 입마다 하얀 《쌀알》을 문 껌장재미들이 정연한 렬을 짓고 《이사》를 가는 광경이였다.

《할아버지, 개미들은 왜 이사가나?》

《이제 좀 있으면 큰비가 내린단다. 그때 여기도 물에 잠길수 있지. 그래서 높은 곳으로 집을 옮기는거란다.》

《하, 요것들두 똑똑한데!》

김유진은 얇은 미소를 지었다. 손자의 말대로 이것들이 정말로 똑똑하다면 애당초 이런 곳에 보금자리를 틀지 않았을것이며 그것을 옮기지 않고도 수해를 입지 않게끔 방비책도 세울것이다.

그런 사유를 전혀 할수 없는 미물들이기에 해마다, 혹은 비가 내릴 때마다 이렇듯 힘겨운 도피행을 하는것이라.

문득 김유진은 가볍게 몸을 떨었다.

도피? 도피! 도피...

새삼스러운 깨달음이 뇌리를 아프게 자극한다.

나도, 바로 이 김유진이라는 인간도 도피를 한 것이 아닌가...

《음-》

김유진은 신음비슷한 소리를 냈다.

그자신으로서는 자기 할바를 다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무역국을 떠날것을 마음먹었었다. 바깥던대로 그만하면 일은 순조로이 흘러갔다. 상급당에서도 그를 충분히 리해해주었고 그가 요구하는대로 손경후를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손경후가 온바로 그날 저녁 놀라운 사건이 터질줄이야...

처음에는 남태설을 불러 사유를 묻고 열편 추궁도 했지만 종당 그의 론거앞에 지고말았다.

당연한 귀결로 손경후에게도 끝내 털어놓지 못했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그것이 손경후를 도와주는것으로 되리라고 생각했기때문이었다. 그래서 《허접쓰레기》들은 깡그리 걸어모으면서도 량해와 부락의 표시로 나무배만은 그에게 남겨두고 떠난 김유진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닳도 없는 항해불가능의 《선박》을 떠맡기고 도피를 한셈이 되지 않았는가. 더욱 무자비하게 분석해보면 기업소가 허리를 꺾게 되자 부랴부랴 쓴 사직서 그 자체가 도피의 첫 시작이 아닐가...

김유진은 눈을 꼭 감았다. 어두운 망막속에 한 사나이의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아직 철부지소년의 그것처럼 숫저웁고 깨끗한 심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 보기도물게 성실하고 고지식한 사람, 남달리 진지하게 사업을 익히고 실력을 다져온 대바르고 정의감 강한 손경후국장...

그는 이제 어떤 향로를 타게 될것인가.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득 김유진은 눈을 크게 떴다. 심장의 박동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2

드바쁜 여러날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륵략적인 표상은 가지고있었지만 국장사업이라는것이 그렇게도 아름답것일줄은 다 몰랐던 손경후였다. 운영, 재정, 무역을 비롯한 각 처의 계획과 실적을 조직하고 종합하는 일은 그저 시간만을 요구하는것이 아니였다. 고도로 심중한 사색과 종합적인 분석검토, 진지한 토론들을 거듭해야만 했다. 누구든 쉽사리 표상할수 없는것이 바로 무역국의 사업이었으니 그것은 대다수 외국과의 관계문제가기때문이었다. 하여 국의 계획과 그 실천과정에는 수시의 정황과 무시의 변화가 제기되군 했다. 그것을 지금 손경후가 해내고있었다. 대학을 최우수성적으로 마치고 관리일군시절에는 세계무역계의 동향과 추이를 완전히 파악한 기초우에서 빈틈없는 사업조직으로 최고실적들을 기록했으며 인민경제대학 재교육기간 남달리 꾸준하고 진지하게 공부한 그 모든 경험과 실력들이 커다란 밑천으로 되어주었다.

기름진 토양일수록 크고 알찬 이삭을 맺는 법이다. 그것은 토양이 일을 많이 하기때문이다.

사람도 같다. 아는것이 많고 실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실적에로 지향되는것은 응당한 논리인 것이다. 손경후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그런 가위에도 손경후는 혼자속으로 가장 신중한 논의를 진행하고있었다. 그것은 바로 국내부의 기구 정리문제였다. 분석해본데 의하면 현재의 모든 관리업무에 비례한 인적지표는 적잖게 초과된 상태에 있었다. 불피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사람의 고뇌란 필경 얼굴에 내비치고야마는 법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안해가 다 근심스레 물었

을 정도였다.

《유정이 아버지, 요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안해 신애순은 지금 수예연구소에서 일하고있다. 용모나 체격, 행동거지에서 나무랄데 없는 여성미를 갖추었고 안해로서의 본분을 지키는데서도 보기 드물게 성실한 여자였다. 손경후로서는 더 바랄것이 없어 내심 커다란 행복감을 갖고있었다. 안해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손경후는 선배인 남태설에 대해 더없는 고마움을 느끼곤 했다. 열세해전 남태설이와 그의 안해가 함께 동분서주하며 찾아내여 손경후의 반려로 내세운 녀자가 바로 신애순이었던것이다.

손경후와 신애순은 남들이 부러워 질투를 할만큼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만들어냈다. 가정에 대한 두사람의 애착은 승벽내기를 방불케 했다.

자식도 흔히 5 점짜리라고 하는 딸, 아들 오누이를 두었다. 둘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한다.

하지만 어느 가정에나 근심거리는 한가지씩 있기 마련인지 딸 유정이가 선천성심장판막증이라는 못된 병을 가지고있었다. 언제든 수술을 해야만 하는 병이었다.

오늘 아침에도 손경후와 신애순은 유정이를 화제에 올렸다.

《내가 알아봤는데 심장수술은 적십자종합병원이 최고라누만.》

《예, 다들 그러더군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가보려던 참이었어요. 유정일 데리구...》

《오늘?...》

손경후는 잠시 이마를 문지르며 생각을 했다.

병원에 가려면 지하철도에 빠스를 갈아 타고 대동교까지 건너야 한다. 먼 길인데... 오늘 혹시 그쪽으로 운행할 차가 없겠는지...

아이들문제라면 밥시간까지 잊을만큼 마음을 써오는 손경후였다. 올해 열두살난 유정이라도 밥마다 아버지의 팔배개를 찾는 영석꾸러기에 또한 귀염둥이였다.

남편의 속마음을 짐작한 신애순이 웃음을 지었다.

《걱정마세요, 타고갈 차가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사실은 순호아버지가...》

순호아버지란 바로 남태설이었다. 사연인즉 옛 그제 벌써 신애순과 순호어머니사이에 전화가 오가고 남태설이 오늘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함께 병원에 가기로 약조가 된것이였다.

《순호아버진 다망한 〈국장님〉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더군요. 호-》

《흠-》

소리없이 웃기만 했으나 손경후의 가슴속에서는 혼 혼한 온기가 떠돌고있었다.

고마운 사람... 그러고보면 국장이 된 오늘까지도 생활적으로는 남태설이가 손경후의 선배이고 형님인셈이였다.

《그럼 오늘 수고를 좀 해주오.》

아침식사를 끝낸 손경후는 인차 출근길에 올랐다...

아담하면서도 새맛이 나게 꾸려진 청사정문앞에서 출근빠스가 몇어섰다. 제일먼저 내린 손경후가 접수실앞을 지나려는데 야간경비원이 그를 불러세웠다.

《국장동지, 편지가 왔습니다.》

첫순간 손경후는 프아해졌다. 지금껏 기업소를 통해 편지를 받아본적이 거의나 없었기때문이었다. 다음 순간에는 머리가 끄덕여졌다. 국장이 되면 이런 일도 있을수 있겠다는 짐작에서였다.

한데 받아들고보니 이상한 편지였다. 《x x x 성무역국 손경후국장동지앞》이라고 씌여진걸 보면 분명 자기한테 온것인데 《선광공학연구소 허진숙》이라는 발신인은 그가 처음 보는 주소 성명이었다.

(누굴가? 허진숙이란...)

어쨌든 손경후는 방으로 올라왔다.

들어서자마자 우선 결상 하나를 끄당겨 앉아서 편지를 개봉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손경후는 눈을 꼭 감았다. 감은 두눈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음을 그는 확연히 감촉하고있었다. 길다고도 짧다고도 할수 있는 사람의 한생애는 참으로 별일이 다 있다. 그래서 세상만사라는 말도 생겨난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렇듯 창졸간의 엄청난 일에 부닥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는지... 잠시 시간이 흐르자 약간이나마 마음의 안정이 찾아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안정이 아니라련속될 불안정의 휴식참이었다. 손경후는 아직도 자기 손에 쥐여져있는 편지지에 물끄러한 시선을 주었다. 생면부지의 녀인 공학연구사 허진숙은 이렇게 썼다.

...현재 득평광산에는 실수률 94%의 선광공정을 거친 수만톤의 미광이 쌓여있다. 현상적으로는 버럭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문제는 그 버럭에서 새로운 질의 합성첨가제를, 극히 적은 양으로도 물질의 결정구조를 변화시켜 요구되는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략칭 《MV》 합성첨가

제를 추출해낼수 있다는것이다. 미광 톤당 가격과 한톤에서 추출될 첨가제가격의 차이는 백배에 달한다. 현재 이론적으로 담보된 상태에서 연구 시험을 하고있다. 이미 그것을 요구하는 외국기업체와 면담을 진행하여 국제시장지표로 볼 때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판매실현시킨 남태설처장에게도 연구내용을 알려주고 수출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광수출은 중지되기는커녕 그 량이 증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여 현재도 많은 량의 미광이 실려나가고있다. 불과 한두해동안에 그곳 무역국이 다시 허리를 펴고 일어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개 기업소가 적지 않은 리득을 얻는 대신 국가는 백배의 손실을 당 하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김유진국장동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보낸 다음에야 이미 사임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새 국장동지가 이 문제를 꼭...

《그래 바로 이것이었구나!》

비로소 머리가 끄덕여진다. 그날, 손경후가 도착한 바로 그날에 김유진은 허진숙의 편지를 받았을것이다. 하여 그렇듯 침중한 고민에 잠겼을것이다. 그런데 그는 종시 침묵을 안고 떠나간것이었다. 손경후의 눈길은 다시금 탁자우의 나무배에로 향했다.

《내 동무를 믿고 떠나가겠네...》라고 무겁게 부탁하던 김유진의 모습이 부엌에 기억난다.

불시에 쓰라린 배반감과 함께 그에 대한 찌릿한련민의 감정이 가슴을 얼얼하게 했다.

나의 앞날을 위해 침묵을 지켰을것이다. 그 어떤 행운이 찾아들어 모든것이 무난하게 풀릴수도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떠나갔을것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진실이겠는가. 아니면...

손경후는 손우에 턱을 고이고 나무배를 응시하고있었다.

그속에 정확한 사연과 대답이 깃들어있기라도 한듯이...

이곳 무역국이 전례없는 침체에 처한 그때 원천탐색은 더구나 필수적인것이였으며 그를 위한 남태설의 노력도 이만저만한것이 아니었다. 그러던중 드디어 득평에 쌓여있는 버력을 장악하여 외국기업체와의 수출계약에 성공할수 있었던것이며 그것으로 하여 악화되던 재정 및 경영위기가 해소되었고 광산에도 적지 않은 채굴설비들이 제공된터였다. 그때부터 남태설은 기업소의 핵심으로, 무시할수 없는 실력자로 인정되었다. 거기까지는 손경후도 이미 알고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편지에 씌여진 사건의 전말은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된것이였다.

편지의 내용이 옳다고 본다면 득평의 버력을 높은 가격으로 받아온 외국무역대방의 의도도 얼

른 리해되는것이였다. 심중팔구 그들도 《MV》를 포착했을것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보면 이것은 정말 기적아닌 《기적》이였다. 막대한 손해였다. 큰 숨을 내쉬 손경후는 송수화기를 들어올렸다.

《여보시오, 내 손경후입니다. 처장동무를... 없어요? 그럼 들어오는 즉시 나한테 보내주세요.》

손경후는 힘겹게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때에야 남태설이 지금 유정리와 함께 병원으로 가고있을것이라는 깨달음이 뇌리를 친다.

그러자 이상야릇한 감정이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 손경후는 문득 남태설의 얼굴이 지금 왜 땀에 젖어있는가를 깨달았다. 동시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음을 의식했으나 그런 다음에도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 정도로 손경후는 오로지 진실여부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에만 집착해있었다. 그런데 무엇때문인가. 편지를 읽기도전부터 남태설의 안색이 놀라울 정도로 새파래지는것은 ...

바로 그것이 손경후의 가슴을 더욱 조여들게 했다. 의문에 잠긴 사이에 남태설은 편지를 다 읽은듯 했다,

《처장동무, 그게 사실입니까?》

손경후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무엇이 말이요?》

《?》

남태설의 아닌보살에 손경후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무엇이라니요? 편지에 씌여진... 방금 읽은 그 내용말이요. 그리고 처장동무랑 이미 알고있었다는 그것이 말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있었다는건 사실이요.》

순간 찌늘해지는 가슴... 호흡은 왜 이렇게 가빠지는것일까.

《하지만... 그 〈MV〉요 뭐요 하는것의 사실여부는 난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불시에 탄 사람이라도 된듯 레의를 차린 남태설의 말투...

다소나마 위안을 주는 대답이라고 할가.

하지만 손경후는 강한 의혹을 먼저 느꼈다.

레의는 갖추었으며 무척 고집스럽게 내뱉는 남태설의 어조에는 자기 주관적인 심리가, 아니 무작정 내미는 억지가 비껴있었다. 손경후의 예민한 심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고있었다. 국장사업을 시작한 첫날 바로 이 자리에서 손경후에게 큰 념량이요, 지나친 예민이요 하면서 조언을 준 남태설이다. 그 리유가 혹여 이 사건을 념두에 둔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측이 얼핏 떠오른다. 아니 지나친 선입감일것이다. 손경후는 애써 마음을 누잠하며 조용히 물었다.

《그래, 믿지 않는 리유는 무엇입니까?》

남태설은 고개를 돌려 정면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손경후도 이마를 낮추고 지그시 마주보았다.

그로서는 처음보는 무척 진지하고 곡진한 표정의 남태설이 바로 앞에 앉아있었다. 손경후는 두려워지는 마음으로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남태설이 입을 열었다.

《손동무, 우리 국장과 처장간이 아니라 친구 시간으로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손경후는 팔짱을 끼고 창문가에 다가섰다. 저녁노을이 물들기 시작한 창유리속에서 남태설의 얼굴이 그를 마주보는것만 같았다. 손경후는 마음속으로 그가 한말을 다시한번 음미해보았다.

합성첨가제설은 아직 추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미광은 확고하게 버럭이었다. 바로 그것이 현재는 물론 우리 무역국의 일정한 장래에까지 크고 확실하고 안전한 재정원천으로 되어줄것이다.

신소에 대해서는 위구하지 말라 (위구한다고? 나는 결코 신소가 두려워서 그러는것이 아니다!)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질것이다. 내버려진 버럭을 버럭이상의 가치로 수출하여 국가에 리익을 주었는데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합성첨가제가 성공하면 그때에 가서 당장 수출을 중지하면 될것이 아닌가. 지금은 안된다. 계약을 파기하면 적지 않은 보상금도 물어야 할것이며 더우기는 우리 무역국운영에 다시금 악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

본론이 끝난 다음 남태설은 곡진하게 말했다.

《그건 그렇구... 손동무, 우린 이제 중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이요. 말하자면 인생의 여름철에 살고있는셈이지. 직위는 직위고 한가정의 세대주로서도 그 어느때보다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시절에 살고있지 않는가말이요. 오해하지 마요. 솔직한 말로 이 남태설이는 무역일군 수년간에 단 한푼의 사취도 해본적이 없소. 이제 당장 법앞에가 않아도 꺼릴것은 없단 말이요. 난 명실공히 우리 기업소를 위해 이려는거요. 그리고 나의 둘도없는 친우인 국장동무가 어제든 그랬지만 앞으로도 다름없이 잘되기를 바랄뿐이요. 물론 친구의 행운이자 나의 행운이라는 리치도 부정하지는 않소. 국장동무, 우리 신중합시다.》...

손경후는 긴 숨을 내쉬었다. 말그대로만을 놓고보면 남태설의 그것은 다 옳은 말이라고 할수 있었다. 하지만 생활속에는 하나의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달라도 엄청나게 다른 분석이 가해지는 그런 모순도 없지 않은것이다.

그랬다. 그의 말은 다 틀린 말이었다. 가혹하게 규정하면 궤변이고 역설이었다. 친구 하나가 잘되기를 바라서, 단지 《우리》라고 하는 몇몇 개인들의 삶이 즐겁고 걱정없기를 바라서 그리고 형용 자기 인생의 한 여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시절의 순탄함만을 바라서 나라의 허리띠가 또 한치 줄라지는것을 알고도 눈감고 묵인을 해야 한

다는 론리가 아닌가. 단 한번의 사취도 없이 오로지 자기 기업소를 위해 성실히 일해왔다고? ... 하다면 사취라는 두 글자의 참뜻은 과연 무엇이란말인가. 귀중함이 깃들어있는줄 변연히 알면서도 자기 기업소의 작은 리득을 위해 그것을 버력으로 기만하여 나라에 큰 손해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개인의 실적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손경후는 똑 소리가 나게 주먹을 틀어잡았다.

그렇다. 그것은 더욱 큰 사취이다. 또한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문제도 아니다. 조국을 위해 살며 일하고있는 우리 삶의 룰리에 관한 문제다!

부지중 손경후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손경후가 행운아라구? 천만에!

행운은커녕 못사람들중 만에 하나도 있을지 말지한 《불운》의 대표자이다. 하지만 나는 불운하게 살지는 않을것이다. 행운이란 결코 저절로 차례지는 그것이 아닐진대 나는 꼭 나의 손으로 행운을 창조할것이다. 손경후는 결연한 걸음으로 사무탁으로 다가갔다. 예리한 시선이 전화번호책의 안내페지를 더듬고있었다.

×

인연을 맺은 이후 처음으로 남태설은 간청을, 아니 애원을 했다.

《제발 이리저 말시다. 내 두손으로 비오.》

손경후 역시 알게 된 후 처음으로 극히 《맹담》한 표정을 보여주었다.

《그럼 이대로 묵인하자는겁니까? 〈MV〉가 성공할 때까지? 미광이 바닥날 때까지?》

《후과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후과를...》

《...》

한가닥 희망이 생기는것인가. 비록 실낱만큼한 것일지라도...

남태설은 호흡을 멈추고 《말문이 막힌》 손경후를 뚫어지게 마주보고있었다.

《그 후과라는게 어떤겁니까? ... 내가 한번 예상해봅시다. 김유진이나 남태설이를 포함한 몇 사람이 추궁을 받고 심하게는 해임이나 되는 그러한것이겠지요? 그리고 손경후의 어깨우에 가늠못할 큰 짐이 올라앉게 될것이구. 우리 국의 향로에 다시금 붉은 등이 켜지게 될것이구... 처장동무, 그것때문에 미래에로 향한 내 조국의 걸음이 몇백, 몇천걸음 더더지는걸 수이 용인하잔말이요. 그런 엄중함을 묵과해놓고 그래 우리 삶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예?》

말문이 막힌 남태설을 이윽히 마주보던 손경후는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처장동무, 난 지금 우리 개인적운명의 후과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면 우리 서슴없이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꼭 풀어야 하는겁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가 있고 기업소도 있는거지 개개의 기업소를 위해 나라가 존재하는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손경후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사무실문을 나섰 다.

한순간 남태설은 중심을 잃고 몸을 비칠했다.

무서운 현실이, 새삼스런 진리가 그를 아연케 했다. 수십년간의 인생행로를 함께 걸어온 막역 지우가 지금 천우의 운명에는 아랑곳없이 그리고 자기 기업소의 전도도 뒤로 미루고 범상치 않은 걸음을 내디디고있는것이다.

결국 사태는 이렇게 번져지고야마는것인가.

이것이 정말 그렇듯 심각한 문제였단말인가.

한데 나에게는 왜 그러한 의미로 안겨오지 않았는가. 과연 누가 옳으며 누가 그른가.

마침내 남태설은 한손을 책 내리그었다.

까짓거 뭘대로 되라지, 뭘대로...

밝은 지금 어슴푸레한 새벽이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시간이 더 흘러야 할것이었다.

3

우리 나라 북부산악이 서쪽으로 끝맺음을 한 그 어방에 굴지의 득평광산이 자리잡고있다.

동천하늘이 분홍색으로 물들어가는 첫 아침, 손경후를 태운 승용차는 득평을 가까이 하고있었다. 옛그제 그가 전화로 선광공학연구소를 찾았을 때는 연구사 허진숙이 현지로 떠나간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허진숙을 만나보려던 첫 계획은 수포가 되었지만 차라리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만나보고 확인도 하는것이 더 효과적일것이다. 눈을 꼭 감은 손경후는 고르로운 진동에 몸을 맡긴채 생각에 잠겨있었다. 떠나기전 사무실에서 앞을 막아서며 항변하던 남태설의 모습이며 돌발적인 사건이 터진날 밤 자기와 안해사이에 오고간 대화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했다. 그날밤 사연을 안 신애순은 애타는 어조로 물었었다.

《그럼 어째야 하나요? 유정이 아버지 립장은...》

그때 손경후는 자기것같지 않은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다.

《여보, 내 립장은 어떻게든 그 문젠 융화될수 없는 문제야. 절대로 융화할수 없는...》

남편의 됃됨과 성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신애순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유정이 아버지, 무슨 좋은 방도가 없을가요. 네? 순호아버지야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리구 당신은 또 얼마나... 아이참, 어쩌면 이런 일이 다...》

손경후는 기계적으로 신애순의 어깨를 다독이기 시작했다.

《그만하오, 그만. 다 잘될거요. 잘 돼.》

무의식중에 흘러나온 자기자신의 중얼거림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 잘될까? 어떻게? 무슨 수로?...

손경후는 크게 부릅뜬 눈으로 희끄무레한 천정을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숨가쁜 시간이 흘렀다. 이윽고 손경후는 안해의 어깨를 왼 손에 지그시 힘을 주었다.

마음속에서는 비록 어렵듯하나마 지금껏 체험해본적 없는 강렬한 결심이 서서히 굳어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자기 주관이 내린 결단일뿐이었다. 그래서 오늘새벽 남태설의 절망적인 사태앞에서 일언반구의 표현도 할수가 없었었다. ...

차가 한번 세계 들추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한결 투명해진 아침공경이 펼쳐져있었다.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돌포장을 한 간선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득평 2Km》라고 써여진 이정표가 흔들리며 마주오다가 슬며시 지나쳐버렸다.

손경후의 상상속에서는 이제 만나게 될 너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

나이는 30 대초반이나 되었을가.

가름한 얼굴에 살빛이 희고 눈빛이 또렷한 녀인이었다. 마주서는 첫 순간 손경후는 흥벽에 강한 충격을 느꼈다. 낮익은 녀자였다. 분명 어디선가 만난적이 있었다. 그 느낌이 확신으로 굳어진것은 허진숙쪽에서도 자기와 동시에 무척 착잡한 표정을 보여주었기때문이었다.

《어디서 보았을가?》

자기 소개며 수인사가 오가는 짧은 시간에마저 기억을 집중해보았지만 종시 짙이지 않았다.

만나기도전부터 정도이상으로 상상해본 결과 그런 느낌이 생긴것은 아닌지...

더 생각해볼사이도 없이 기본용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손경후에게는 긴 시간이 주어져있는것이 아니었다. 첫 대면부터 강경한 자세를 보여줄줄 알았던 녀성연구사는 의외로 조용했다.

어찌보면 의기소침한 태도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것에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본질이 중요했다. 손경후도 재료공학에 문외한은 아니여서 허진숙과 소통되는 대화를 나눌수 있었고 현재까지 진행한 그의 실험과정이며 합성첨가제의 실체에 대해서도 필요한만큼까지는 파악해볼수 있었다. 한시간 남짓이 시간이 흘렀을 때 마침내 손경후는 연구사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미광에서의 합성첨가제추출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었으며 성공하는 경우 그 질도 보통의것이 아니었다.

손경후는 안도감과 함께 미지의 불안이 뒤섞인

모순된 심리를 느끼며 허진숙을 마주보았다.

《웁습니다. 연구사동무가… 난 〈MV〉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긴장으로 창백하던 녀인의 두뺨에 연한 홍조가 피어올랐다.

《고맙습니다, 국장동지. 전 이렇게 될줄 믿었습니다.》

에둘줄 모르는 손경후의 눈빛에 의문이 실렸다.

《믿었댔다구요? 그건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허진숙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글쎄 뭐라고 해알지… 어쨌든 그런 믿음이 앞섰던것만은 사실입니다.》

조용하나 고집스러워보이는 그의 어조에는 진심이 어려있었다.

《…》

잠시 달갑지 않은 침묵이 흘렀다.

문득 손경후의 마음 한구석에 이미전부터 자리잡았던 의문이 다시 살아올랐다. 그는 허진숙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물었다.

《한가지 묻고싶은것이 있습니다. 동무는 왜 미광수출을 시작한 초기에 인차 제기하지 않고 지금에야 김유진국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그리고 그 편지로써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왜 우리 성이나 자기 상급기관에 신소하지 않고 다시금 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까.》

녀인은 속눈썹 긴 눈을 내리깔며 반문했다.

《국장동지 제가… 그렇게 비타협적으로,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한것을 나무라시는건가요?》

《아-니, 그런것은 아니요.》

《그럼?…》

왜서인지 녀인의 눈빛은 집요했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볼 때 의문이 갈수밖에 없지 않겠소. 내 그래서 묻는겁니다.》

갑자기 허진숙은 고개를 들어 손경후를 마주보았다. 크게 뜬 눈동자속에서 이상한 불꽃이 반짝거리고있었다.

《국장동지, 놀라지 마십시오. 순호아버진 바로…저의 아버지랍니다.》

《뭐라고요?》

손경후는 두눈을 확 부릅떴다.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엄청난 놀라움이 가슴언저리를 쿵 들이쳤다. 남태설이 바로 허진숙의 아버지라구? 그렇다면 이 녀자는?…

뒤이어 눈앞이 확 밝아지는듯한 감이 들었다.

잠들었던 망각이 순간에 깨어나면서 기억의 대문이 활짝 열렸다. 결혼직후 남태설의 집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던 단발머리처녀, 평북도 산골에서 수재로 뽑혀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올라왔다면 순호어머니의 외사촌동생, 새침하면서도 다감한 성미를 보여준 바로 그 대학생처녀가 아닌가.

바로 그래서였구나. 편지를 받아온 첫 순간 남태설의 얼굴색이 그리도 새파래지던것은…

반가움과 함께 커다란 놀라움으로 몸이 떨렸

다.

《그랬었구만. 낮이 익다했더니…》

《전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손경후아저씨가 국장이 되었다는건 이미…》

《그랬을테지…》

문득 갈증과도 흡사한 의문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대체 어찌된 일이요? 처제가 아저씨를 신소하게 되다니…》

허진숙은 긴 숨소리와 함께 두손으로 량볼을 싸쥐었다. 까딱 움직임없는 시선이 마주한 책상의 한복판을 뚫어지게 응시하고있었다.

…허진숙이 《MV》를 포착했을 때는 미광을 실은 선박들이 한창 난바다를 헤가르고있을 때였다. 득평에서의 두 사람의 첫 상봉은 레의 즐겁고 반가운것이였었다. 합성첨가제추출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남태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한것 도 사실 진심이였다. 허진숙 역시 진심으로 그러나 웃음띤 얼굴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중지해야지요?》

그때까지는 남태설도 롱조로 대꾸했었다.

《성공만 해라. 그럼 그날로 중지하지. 하지만 지금은 안돼. 이건 우리 무역국의 중요수출원천이거든. 그리구 이놈을 먼저 발견한건 나란 말이다. 허허허.》

허진숙은 그이상 심오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예상외로 첨가제연구전망이 료원해지고 한편 미광수출은 더욱 증대되는 바람에 그의 심리는 무척 날카로와졌다.

《아저씨, 이러다가 〈MV〉가 나오기전에 미광이 바닥나는게 아니예요?》

이렇게 시작된 충돌은 차츰 미세한 불꽃을 튀기기 시작하였다.

《아저씨, 이건 나라에 죄되는 일이 아닐까요?》

《너 지나치게 과민해졌구나. 이건 버럭이야, 버럭.》

《그래요. 버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물로 되지 않았나요. 아저씨도 그걸 알고있구… 그러니 이렇게 값싸게 처리되면 안된단 말이에요.》

《너 그러다가 날 역적으로까지 몰아붙이지 않겠니. 네가 모르진 않겠지만 내 다시한번 말해둔다. 이 버럭은 지금 그 어느 개인의 호주머니속으로 흘러들어가는게 아니야. 우리 기업소를 위해, 바로 나라를 위해 수출을 하고있어.》

《실리를 따지면 손해가 되는데두요?》

잠시 말문이 막혔던 남태설이 별안간 넘적한 손바닥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러게 빨리 성공하라구 하지 않느냐. 그리구 내 좀 아픈 말을 하자. 너도 이 아저씨가 그리구 우리 기업소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있는지 알고있지 않느냐?》

커다란 손바닥우에 당당히 내놓을것도 없고 더 우기는 안타깝게 부르짖는 아저씨의 입술에서 허

연 거스름이들을 발견한 허진숙은 조용히 물리
나고말았다.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듯 했다.

그후 미광수출량이 1.5배로 늘어나는 불미로운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허진숙은 아마 《MV》가 성
공할때까지 침묵을 지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태설이 표현한것처럼 과학적신념과 원칙을 두
고서는 《병적인 과민성》을 나타내곤 하는 허진
숙이었던것만큼 마지막 충돌은 무척 격렬했다.

언쟁의 절정에서 허진숙은 저도모르게 이렇게
부르짖었다.

《좋아요. 전 그림 신소를 하는수밖에 없어요.》

처음 아연해졌던 남태설도 독하게 대응했다.

《겁날것 없다. 할테면 해라. 신소를 하되 그전
에 너와 난 생판 남남이 된다는걸 알아둬라.》

울면서 헤어진 허진숙은 오래동안 고민을 했
다.

시간이 흐르뒤 그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그것이 바로 《물인정》한 원칙도, 그렇다고 타
협도 아닌 제3의 해결책이었다. 하여 김유진국장
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것
이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아저씨만 나쁘다고 타
매할 자격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아저씨의 그
것과 표면상으로만 다를뿐 본질은 똑같은 리기
심이 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있었으니깐요.
아저씨 기업소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었지만 저는
저대로 개인적감정때문에 주저를 하고 양보를 했
습니다. 그 사이에 나라의 재부는 더욱더 줄어
들었구요. 만약 합성첨가제연구를 저 아닌 다른
사람이 맡았더라면 이 일은 벌써 매듭이 지어졌
겠지요?》

마디마디 자책과 함께 회담은 진심이 엿보이는
토로였다. 그럴수록 손경후에게는 그가 더욱더
미덥고 아름답게만 안겨왔다. 그렇게 쓰고 단 감
정과 굴곡의 행로를 거쳐 구경 아름다와지고 진
실해지는것이 바로 인간이 아닌가.

《진숙이...》

만난후 처음으로 그는 친근하게 이름을 불렀
다.

《동무나 나나 우린 지금 먼길을 가고있는 사
람들이요. 아직 자기 완성의 경지에 올라서지 못
한것도 물론이요. 그래서 사람이란 한생을 두고
철이 든다는 격언도 생겨난것이겠지. 난 솔직하
게 말하오. 나 역시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 처
음부터 백프로 옮겨만 처신하지 못했을거라구 말
이요. 고민과 후회, 주저와 동요라는 고통스러운
체험과정을 거쳤을 때 가장 진실하고 정의로운것
을 꿰칠수 있게 되는것이 바로 인간이 아니겠
소.》

《국장동지!》

조용히 부르짖는 허진숙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혀있었다. 손경후는 저도 모를 강렬한 충동으
로 그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생각과는 달리 굳
고 단단한 손이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마음을 후
덥게 해주는 따스한 온기가 숨배여있었다.

문득 진숙이 어린애처럼 눈을 빛내이며 말했
다.

《참, 국장동지. 오셨던 걸음에 꼭 만나보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

×

뜨거운 여름해가 머리우에서 작열하고있다.

색도 형태도 없는것이지만 해빛은 넓으나넓은
대지우에 무한히 다양한 색채를 지어준다. 손경
후를 태운 승용차는 그 다양한 색채들을 스치며
평양을 가까이하고있었다. 생각깊은 시선으로 대
지의 풍경을 내다보는 그의 손에는 자그마한 수
지갑이 들려있었다. 허진숙이 꼭 만나보아야 한
다던 사람은 바로 김유진이었다.

특명에서 그를 만나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
던 손경후였다.

비록 본의는 아니지만 젊은 국장 손경후에게
항로미실의 《배》를 떠맡기고 떠난후 줄곧 번뇌
에 시달리다가 보통강반의 그날 아침 마침내 결
심을 내린 김유진이었다. 그래서 녀성연구사 허
진숙을 찾아 과학원으로 갔던것이며 종당에는 그
와 함께 특명으로 떠난것이였다. 그때 김유진은
자식들의 출가를 위해 장기간 저금해두었던 적지
않은 자금까지 가지고 떠났노라고 허진숙이 울먹
이며 말해주었다.

《그만하오. 앞서 저질러는 죄에 비하면 그게
무슨 대수라구... 오히려 부끄럽네... 제판에는
침묵을 지켜주는것이 새 국장을 위해주는 옳은
처신이라구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게 바로 2중3
중의 죄를 짓는 길이었어. 자기자신을 속이구 손
경후를 속이구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속였지...》

손경후는 무겁게 머리를 숙였다. 때늦은 후회
가 가슴을 아프게 저며내는 순간이었다. 그때 김
유진의 이상한 심리변화를 두고 마음을 기울인
시간이 좀 더 길었더라면, 단지 신경이나 써볼것
이 아니라 걱정을 앞세우고 끝까지 알아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만 먹었더라면, 그랬다면 성실
한 로선배의 마음아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일
은 좀 더 일찍, 좀 더 무난히 풀렸을것을...

그런데 나는 처음 배반감부터 느끼지 않았는가,
배반감부터...

《이제 와서 내가 낸 사표의 리면에 수술칼을
들이대봐도 거기에는 길지 않은 여생이나마 편히,
무난히 향유해보려는 그런 리기심이 없지는 않단
말이요... 아- 그 삶이라는데 무엇이길래, 서퍽도
안될 그것때문에...》

김유진의 말끝은 통절하게 떨렸다. 손경후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국장동지, 자기
삶을 하대하고 자기 인격을 천시하는게 인간의
미덕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동지의
한생이나 여생은 결코 서퍽짜리가 아닙니다.

값있는것이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이 나라의 공민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같이 진실하고 아름다울 때, 그래서 그지없이 고결하고 귀중한것으로 될 때 내 조국도 부흥하고 위대해질것이라고 말입니다.》

김유진은 흥분과 당혹감이 엮여진 눈빛으로 마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삶이 진실하고 아름다워야... 내 조국이 부흥하고 위대하다. ... 그래 너무도 자명한 리치지. 그런데 우리는 왜 가끔 그것을 망각하게 되는것인가...》

어조는 침통했지만 맞잡은 김유진의 손에서는 강한 힘발이 마쳐오고있었다. 헤어지기에 앞서 김유진이 정교하게 다듬어 만든 나무땃을 꺼내 놓았다.

《여기로 내려오기전에 부탁해서 만들었던거요. 〈MV〉가 성공한 다음 땃땃한 마음으로 주려던것인데 이렇게 만났으니 받아주오. 의미없는 감상주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난 오로지 나의 정든 무역국이 망망대해를 거침없이 달리는 큰 배처럼, 그렇게 힘있고 기백있게 나아가기만을 바랄뿐이요. 그리고 여기에는... 길지 않은 여생이나마 깨끗이 마감하려는 내 진심이 깃들어 있소. 우리 뒤에 서있는 젊은 세대들도 조국위한 참삶을 가꾸어가기를 바라는 기대도 함께 담았소.》...

손경후는 다시금 껍을 열고 나무땃을 내려다 보았다. 불현듯 드넓은 대양이 눈앞에 떠오른다.

거대한 크기와 웅심을 안은 대양 ...

그 대양이 들어앉은듯 가슴이 그들먹해진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일인가. 달리는 살수 없는 사람들, 혈육간의 불의로움을 두고도 분노할줄 알고 미흡한 자신을 타매하며 고민도 하고, 비록 한때 한걸음 잘못 내짚었다가도 종당에는 다시 내 조국의 넓은 품에 스스로 들어서는 사람들 ...

천만갈래의 시내물이 굽이굽이 대지를 다 거쳐 마칩내는 드넓은 바다에 합류되듯이...

손경후는 폐부에 가득찬 더운 숨을 한껏 내시였다. 그래 남태설처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사실 그는 얼마나 사심없고 또한 정열적인 인간인가. 무역일군이라지만 아직껏 변변한 가구 하나 갖춰놓지 못한 청렴결백한 사람이 아닌가.

옳다. 남태설, 그도 꼭 그지없이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려야 할 사람이다. 지금껏 기쁨과 피로움을 함께 나누어온 그를 위해 그 무엇도 아끼기 말아야 할 나 손경후!

손경후는 차창밖으로 한팔을 한껏 내밀었다.

시원한 바람폭이 확 끼쳐들었다. 햇빛찬란한 대지가 통채로 가슴속에 안겨드는것만 같았다.

×

무거운 정적, 무의식중에 하나 둘 고개를 수그리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창너머의 소연한 매미

소리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남태설 역시 그랬다. 어제 새벽 손경후와 마주했을 때까지도 그는 국장의 걸음이 상급기관에로의 직행인줄로만 알고있었다. 그런데 득평을 먼저 다녀온것이 아닌가. 그것이 남태설의 심리를 더욱 괴롭게 자극하고있었다. 그가 득평에서 김유진을 만난 대목까지 이야기가 흘렀을 때는 잔등이 축축해졌다. 그는 지금 손에 쥔 원주필을 끊어지도록 틀어쥐고 땀에 젖은 손경후의 얼굴만 주시하고있었다. 차디찬 불안이 가슴을 옥죄이는 순간이었다.

과연 결과는? ... 결과는...

잠시 말을 끊었던 손경후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책임을 내가- 아니 우리 모두가 질것을 제기했습니다. 상급당에서는 나의 제기를 심사숙고하여 이 문제에 관련있는 우리 무역국내의 모든 일군들에게 자기 파오를 시정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동무들, 명심합시다. 다시말해서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크나큰 믿음이며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듯 천천히 머리들을 쳐들었다. 심신에 팽배했던 더운 숨결들이 조용히 내뿜인다. 불그레 상기된 얼굴들에는 짙은 회오가 어려있었다. 남태설의 줄안에서는 종시 뿌지직 하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았다.

《...실무적으로는 미광수출로써 우리가 얻은 지금은 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내가 직접 그렇게 해달라고 제기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각부터 결사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되 첫째도 둘째도 나라의 리익, 그것을 실리의 알맹이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에서 요구하는대로 수출품선정에서 가능한것 원료가 아닌 가공품을 위주로 해야 하며 현존하는 가공품만이 아니라 질 좋은 가공품을 새롭게 연구해내는데도 몰심량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당면하게는 〈MV〉연구사업을 적극 도와주어 빠른 시일내에 완성하도록 해줍시다. 그리고...》

잠시 말을 끊었던 손경후는 한번 큰 숨을 내신 다음 저력있는 음조로 불렀다.

《남태설처장동무.》

느닷없는 부름에 남태설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하지만 마주보는 손경후의 눈빛은 예전 그대로 평온한것이였다.

《시급히 미광수입대방에 면담을 제의해야 하겠습니까. 안건은 가격수정입니다.》

남태설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당장 파기해야 할 상황에 가격수정이라니... 그는 지금 손경후가 실언을 한것이냐 아닌 가 해서 두눈을 크게 부릅떴다. 그러나 손경후는 추호의 표정변화도 없었다.

《미광의 가격을 〈MV〉의 가격으로 말하자면 톤당 백배의 가격으로 인상하자는겁니다. 기만적인 외교는 하지 맙시다. 리유도 사실 그대로를 말해 주고...》

나라의 재부와 리익의 견지에서 추호도 양보할수 없는 우리의 애국적감정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면담에는 처장동무와 함께 내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조용한 실내에 바람결과도 흡사한 파문이 일었다. 놀라움과 선망의 눈길들이 쭈은 국장을 바라보고있었다. 옳다. 그렇게 되면 대방은 스스로 계약을 파기하자고 할것이다. 보상금도 요구하지 못할것이다. 남태설은 선 자리에서 눈을 꼭 감았다. 마음의 거뿔함대신 온몸의 맥이 짱그리 빠져나간다. 통절한 자책이 불길처럼 뜨겁게 가슴을 지진다. 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무엇을 힘의 룰리로 간주해왔는가. 나의 가치관은 정녕 어떤것이었던가.

자신이 친우의 무정함을 원망하며 불안과 자포자기에 빠져있을 때 손경후는 바로 친우를 위해, 조국의 번영을 위해 의리를 다하고 혼신의 사색을 다 바치지 않았는가.

판으로는 마땅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은근히 자부해온 그였다. 사취도 없이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일해왔다고 뽐뽐이 말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마당에서 자신이라는 존재를 날날이 해부해보았을 때... 건질것이 없었다. 조국과 나라는 삶의 룰리를 심장에 새겨넣지 못하였을 때 필경 넋이 없는 허울만이 남게 되는것이였다....

모임이 끝난 뒤의 조용해진 국장실에 손경후와 남태설, 두 사람만 남았다. 손경후는 남태설의 존재를 느낀듯 모르는듯 문서만 들여다보고있었다.

그것이 바로 국내부인원구성에 관한 문건이였다. 지금 이 시각 손경후가 어떤 비상한 결심을 굳혀가고있는지 남태설은 알지 못하고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남태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좀 보오. 국장동무.》

천천히 고개를 쳐드는 손경후, 문득 놀라움이 어리는 눈길...

《아니, 왜 아직 거기 앉아있습니까. 빨리 확스를 보내야지요.》

남태설은 두손을 힘껏 깎지끼며 고통스럽게 말했다.

《욕이라도 콧 해주구려. 이 못난 놈을...》

손경후는 정색한 표정을 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남태설의 옆자리에 앉았다.

《안할줄 알았습니까. 해도 큰 욕을 하겠소. 진숙이똥까지 다 합쳐서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일을 해야지요, 일을!》

《국장동무!》

남태설은 오열의 부르짖음을 터치며 손경후의 손을 꼭 잡았다. 맞잡은 두손우에 더운 눈물방울 두개가 소리없이 떨어져내렸다. 창밖의 매미소리는 한층 구성지게 울리고있었다....

《국장동무. 이제 며칠후면 유성이가 수술을 하게 될텐데...》

《참 그렇구만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처장동무두... 내가 집도를 합니까. 의사들이 어련히 잘해주지 않을라구요.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참 아무리 바빠두 잠간 할 일이 있수다.》

어리둥절해진 남태설의 눈앞에서 손경후는 까만 수지갑을 꺼내들었다. 뚜껑을 열고 나무땃을 집어든 그의 얼굴에 어린애마냥 천진한 웃음이 피여올랐다.

《이걸 저 나무배에 붙이자는겁니다. 좋지요?》

《좋지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손경후의 얼굴에서 천천히 웃음발이 사라졌다. 대신 무척 숙연한 감정이 뚜렷하게 새겨졌다.

◇가사◇

통일명절 큰 잔치 어서 펼치세

문동식

대동강 맑은 물 감돌아도는
옥류관은 오늘도 명절이랴오
남녘의 우리 형제 찾아왔으니
상마다에 성찬을 차려놓았소

늘어진 실버들도 춤을 추는가
옥류관은 오늘도 경사났다오

해외의 우리 동포 둘러앉아서
평양국수 함께 드니 별맛이랴오

하나의 지붕아래 혈육이 모인
옥류관엔 통일의 웃음꽃 폈소
6.15기치높이 혈맥을 잇고
통일명절 큰 잔치 어서 펼치세

선군시대 인간들의 혁명적량심에 대한 철학을 깊이있게 형상한 명가사

-가요 《우리 집 유산》을 두고-

리윤근

최근에 새롭게 형상된 가요 《우리 집 유산》 《류동호 작》은 유산에 대한 철학, 량심에 대한 철학을 잘 해명한 선군시대 명가사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에는 독창적으로 찾아낸 종자가 있어야 하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부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철학성이란 생활진리의 깊이를 말한다. 진리는 새로운것이여야 하고 발견적이어야 한다. 독창적으로 찾아낸 종자가 있고 작가가 노리는 뚜렷한 주장이 있으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부한 서정이 있는 작품, 그리하여 사색하게 하고 여운을 주는 작품이라야 철학성이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는 결코 쉽게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문학의 가장 작은 형식인 가사창작에서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로 되는것이다. 이런 면에서 가사 《우리 집 유산》은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인간의 아름다운 삶의 진리, 생활의 진리를 새롭게 안겨준것으로 하여 의의가 크다고 본다.

1. 나에게 부모들이 물려준것은
재산도 아니였네 황금도 아니였네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 집 유산
장군님 받드는 량심이라네
2. 천만금 주고서도 바꾸지 못할
그것은 오직 하나 충효의 한마음
세대를 이어 전할 우리 집 유산
장군님 받드는 량심이라네
3. 이 땅에 태어나는 후대들에게
피줄로 이어주리 티없는 이 진정
영원히 빛내여 갈 우리 집 유산
장군님 받드는 량심이라네

가요의 가사는 우리 집 유산은 천만재부나 황금이 아니라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받드는 깨끗한 량심이라는 유산과 량심에 대한 철학을 형상적으로 밝혀내고있다. 이것은 벌써 가사가 제기하고있는 문제가 새롭게 발견된것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사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데서 유산문제, 량심문제는 큰 정치사상적문제, 교양적문제로 나선다. 그렇기때문에 유산계승문제는 이미 앞서 창작된 작품들에서도 힘있게 강조하고있는것이다. 재부는 정신을 지켜내지 못하지만 정신은 재부를 지켜낸다.

따라서 후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유산은 정신적 유산이라고 주장한 영화문학 《유산》 그리고 피줄이 이어졌다고 하여 저절로 혁명선렬들의 녀이 유산으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라 그 녀을 이어가는 사람만이 피줄도 이어갈수 있다는것을 감명깊게 밝혀낸 텔레비죤극문학 《로병의 유산》이 바로 그렇다. 녀과 유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고있는 이와 같은 작품들과는 달리 유산과 량심문제를 철학적으로 밝혀낸 여기에 바로 가사 《우리 집 유산》의 새로운 발견이 있고 시인이 노리는 주장이 있는것이다. 물론 유산과 녀, 유산과 량심은 다 유산과 정신과의 관계문제로 되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가사에서는 정신일 반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량심문제로, 다시 말하여 후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가장 고귀한 유산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드는 량심이라는 여기에 력점을 두고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는것이다. 량심문제는 인간의 품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 기준으로 된다. 원래 량심은 료리 도덕적개념으로서 사람이 자기 준비정도에 따라 자기 스스로가 사회앞에 지니는 의무이다. 그런 것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량심이 없다면 패덕한이되고 량심이 있다면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것이며 량심이 폐허로 된 인간사회는 빛이 없고 꽃이

없고 향기가 없는 폐덕한의 사회로 될것이다.

시인은 바로 선군시대 우리 인간들이 지녀야 할 량심문제를 가장 절실한 문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즉 시인은 유산과 량심문제를 수령관, 조국관의 견지에서 새롭게 탐구하고 철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품격을 보다 숭고한 높이로 이끌어주고있는것이다. 사상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작품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자면 제기하는 문제부터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높은 정치사상적안목에서부터 오는것이고 결정되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사 《우리 집 유산》은 전적으로 시인의 사상 정신적높이, 우리 수령, 우리 제도에 대한 성실한 태도에서 얻어진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혁명의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하다. 우리는 이 길에서 지난날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만을 수놓아야 한다. 혁명의 로세대가 걸어온 그 길을 깨끗이 이어가야 할 세대는 바로 우리 혁명의 3세, 4세대이다. 때문에 바로 그들이 수령과 조국을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는가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되는것이다. 어떤 유산을 어떻게 넘겨주는가 하는 문제가 그토록 심하게 제기되고있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량심은 심장과 같다는 불의 발견과 같은 인간의 전모를 새롭게 규정하는 귀중한 철학적명언을 내놓으신것이다.

량심은 심장과 같다! -여기서 심장은 단순한 육체적생명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치적생명까지 담보하는 근본문제를 의미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량심이라는 순수한 료리도덕적개념을 정치적개념의 높이로 올려놓으신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스승의 위대한 발견이다.

량심은 인류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오는 인간본성에 관한 문제의 하나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본성으로 하는 자주적인간의 량심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가사에서는 이 문제를 사회적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량심은 무재봉의 영웅들, 구봉령의 가족소대원들을 비롯한 군대와 인민의 숨은 노력과 보이지 않는 애국적헌신에 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까지 자기의 량심을 더욱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다잡고있

다는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들속에는 자기의 직위와 출신을 명분으로 삼고 대중앞에서는 혁명적만세를 부르고 돌아앉아서는 당이 걱정하는 문제, 조국이 겪는 난관은 외면하고 제살 궁리만을 하고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누구보다 량심이 깨끗하다고 끝잘 외우곤 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가장 깨끗한 량심은 어떤것인가.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순결한 량심이다. 이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량심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고귀한 유산이다.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혁명적현실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 유산문제와 량심문제를 예리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함으로써 가사의 철학성을 담보할수 있었던것이다. 문제의 제기가 예리하고 첨예할수록 작품의 철학성은 더 깊어진다. 물론 문학작품은 사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은 다 아는바이다.

철학성의 깊이를 규정하는 첫째 출발점은 시인이 제기하는 사회적문제의 예리성과 함께 다음은 그것을 격조높은 서정으로 전환시키는 시적세계의 심오한 탐구에 있다.

그렇다면 이 가사의 시적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선 시인이 유산과 량심을 결부시킨 기발한 착상에 있다.

유산이라하는것은 전세대가 후세에게 물려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이다. 그런데 그 유산이 량심이고 량심도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량심, 경애하는 장군님을 변함없이 받드는 량심이라는데 시적발견이 있다. 물려주는 유산이 황금이나 재부가 아니라 장군님을 받드는 깨끗한 량심이어야 한다는것은 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돌이켜보게 하고 사색하게 하는 생활의 진리, 삶의 진리이다. 이것으로 하여 가사 《우리 집 유산》은 명가사로서의 품격을 갖추게 된것이다.

철학적인 명가사의 출현은 결국 시인의 높은 정치사상적준비와 깊고 폭넓은 새로운 시적세계의 탐구의 결합에 있다. 이것은 주체적인 시가창작의 근본원리이다.

이것은 우리 시인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성, 혁명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나갈 때 이루어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인들은 우리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으로 자신들을 무장하기 위하여 부단히 채찍질하고 새로운 시적세계의 탐구를 위해 사색하고 또 사색하여야 한다.

옛 담임선생님의 사진앞에서

지윤세

소학교에 갓 입학한
막내손자 앞세우고
신천박물관에 들어서니
공애주- 옛 담임선생님이
그날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인사드려라 손자야
너의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할 선생님이시다
내 어릴적 너만한 나이에
이 할아버지를 배워주신 선생님이시다

소학교 높은 교단에 서시여
꽃나무 가꾸는 원예사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진정을 바쳐
우리들을 가르쳐주셨는지
너는 모를게다

이 어린 가슴에
조국애의 첫 싹을 틔워주신
얼마나 고마운분이신지
너는 다 모를게다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 밀려왔을 때

소년유격대를 이끌고 싸우다
놈들에게 붙잡혔을 때에도
룡당포 구멍바위- 사형장에 서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며
별빛눈동자에 승리를 안겨준 선생님

세월이 흘러
어느덧 내 머리에 흰서리 내렸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서계시는 선생님
나는 옛 스승을 끝없이 존경한다

인사드려라 손자야
이 할아버지도 머리속여 인사드린다
이분은 나의 선생님이시다
또한 너의 선생님이시다

잊지 말어라 손자야
신천의 공애주선생님은
철천지 원수 미제를
대를 이어 끝까지 복수하라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교단에 서있는
선군조국의 영원한 교원혁명가이다

비석의 글발은...

유련희

이제는 누구도
도저히 알아볼수 없다
《묘향산보현사지기》-저 비석우에
쭈뚱히 쏘아 새긴 옛 글자들

비석엔 보풀이 일지 않거니
사랑하는 내 민족의 옛 글우에
무어나, 벌집같은
총탄자리. 총탄자리!

무심히 지날수 없구나
이제는 새겨진지 반세기도 넘었건만
오늘도 이 가슴에
서리찬 원한을, 증오를 불러주는 총탄자리

어이 알았으랴
유구한 민족사를 소담히 떠이고
찬란한 문화로 웃음지으며
푸른산 시내가에 바람결 불러불러
옛 노래 울리던 우리 보현사

금단청머리우에 폭탄이 터지고
수려하던 밀림에 불길의 휘감기고
유정하던 물결우엔 재가루 떠흐르고
맑은 바람결엔 폭음이 실릴줄!

오, 흘러가는 세월속에
다시 집들은 솟아오르고 수림은 우거져도
아물지 않는, 아물수 없는 상처를 안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치는 보현사의 비석이어

너의 비문속에
그날의 기총탄이 입힌 상처
나는 거기서 글을 본다
서리찬 민족의 웨침을 새겨안는다

-미제!
그 앞에서는
부처도 총을 들리라!

아!
이 글만은, 이 글만은
유치원아이들까지 다 읽을수 있다!

인간학적풍격을 훌륭히 갖춘

시대의 명작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대하여-

김순림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오늘 천만군민의 심장에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불타는 애국심을 심어주며 힘있게 불리워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가사에는 생활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싶습니다.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가사도 명가사이고 곡도 명곡입니다.》

노래가 비상한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시대의 명곡으로 될수 있는것은 바로 인간학적풍격을 훌륭히 갖추고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학이라는 개념을 산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하는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인 문학을 가리키는 뜻으로 리해하였다.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범한 예지로 음악은 인간학이라는 인류문예사적인 새로운 발견을 하시고 인간학으로써의 음악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인간학의 징표는 복무대상에 있다.

인간생활을 반영하고 인간에게 복무할 때만이 그것을 인간학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시나와 같이 문학은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리고 인간에게 복무하는것으로 하여 인간학으로 된다.

문학과 마찬가지로 음악도 인간생활을 반영하여 인간에게 복무한다.

노래만 놓고보아도 인간생활에서 환기되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사상감정을 가사와 곡에 담아 정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량만과 희열을 안겨주고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불려일으킨다. 결국 문학은 언어를 묘사수단으로 한다면 음악은 선율을 표현수단으로 한다는데서 차이가 있을뿐 그 형상대상과 복무대상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음악도 인간학이다.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는 이러한 인간학적본성이 훌륭히 구현되어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노래가사에 생활이 있고 철

학이 있는데서 실증되고있다.

인간학으로서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참된 진리와 삶의 진로를 밝혀주는것으로 되자면 생활철학이 있어야 한다.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가사에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이라는 표상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가슴에 사무치도록 느끼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처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 참다운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여기에 바로 가사의 생활철학이 있다. 노래의 가사도 시적으로 되어야 한다.

가사가 시적으로 된다는것은 뜻이 깊은 사상주제적내용을 풍부한 정서속에 담는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서정적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정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정서라는 말의 뜻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러가지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서생활이라고 말할 때에는 인간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쁨을 맛보는 정신생활의 영역을 뜻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가사는 이 세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회주의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깊은 사상주제적내용을 담고있으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뜨겁게 체험하고 느끼는 감정을 풍부한 정서로 노래하고있다.

1.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아 철없이 바라본 푸른 저 하늘이
내 조국의 자랑인줄 어이 몰랐던가
2. 조용히 눈을 감아도 푸른빛 어리고
꿈에도 보이는 내 나라의 맑은 하늘
아 가없이 펼쳐진 푸른 저 하늘을
시련 많던 불구름도 가릴수 없었네
3. 이 세상 그 어디나 하늘은 있어도
너보다 푸른 하늘 어디 가 찾으랴

아 은혜론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내 나라의 정든 하늘 안고살리라

가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시적계기를 두고 1절에서는 민들레 곁에 피는 고향의 언덕에서 하얀 연을 띄우며 철없이 바라보던 푸른 저 하늘이 내 조국의 자랑인줄 몰랐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의 감정, 2절에서는 조용히 눈을 감아도 푸른빛 어리고 꿈에도 보이는 내나라의 맑은 하늘을 시련 많던 불구름도 가릴수 없었다는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나 하늘은 있어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우시고 빛내이시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끝없는 공지와 자부심에서 오는 환희의 감정이 풍부한 낭만적정서속에 울려나오고있다.

이렇게 가사는 서정가요의 가사로서 그 면모를 뚜렷이 하고있다.

명가사에서 명곡이 나온다는것은 하나의 진리이다.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우리 식의 서정가요의 모범이라고 말할수 있다.

서정가요라고 하면 대체로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노래한 가요를 두고 말한다.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내부적심리세계가 어린 시절로부터 오늘에까지 깊이 체험된 감정으로 인상깊게 노래되고있다.

창작경험

우리 장군님 펼쳐주신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나는 얼마전 《조선문학》 잡지편집부로부터 원고청탁을 받았다. 오래전에 창작보급된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가사창작에 대한 경험글을 써달라는것이였다. 나는 이미 이 노래가사에 대한 수기랄가 창작경험이랄가 얼마 크지 않은 글을 《문학신문》 지상을 통하여 발표한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나의 글이 실린 《문학신문》을 찾아들었다. 읽을수록 허전한 구석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였다.

무엇을 더 쓰지 못했는가?

며칠을 고심하던 끝에 나에게는 다시 그 수기를 보충하는셈치고 창작경험을 또 써야 되겠다는 결심이 내려졌다. 20여년전 어느날 아침이였다.

내가 쓴 가사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말아서 작곡한 작곡가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제

음악이 인상깊다는것은 사람의 의식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으면서 정서적여운을 가지고 그의 의식발전과 창조적활동에 작용한다는것을 말한다.

음악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내적충동에 의한 정서의 발현으로 보여주는 예술의 한 형태이다.

문학과 예술은 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나 음악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하는 형상방식에서 다른 예술형태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음악은 문학에서처럼 표현하려는 사상을 직접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도 못하며 미술처럼 눈으로 보듯이 그려주지 못하지만 인간이 체험하는 심리정서세계는 그 어느 예술보다도 깊고 섬세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사의 뜻을 깊이 새겨보며 부르게 되면 누구나 다 노래의 정서세계에 저도 모르게 뜨겁게 젖어드는것을 느끼게 된다.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하고 탁월한 정도에 의하여 시대의 명곡으로 태어난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따라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천만군민을 사회주의수호전으로 힘있게 부르며 더 높이 메아리칠것이다.

구희철

얼마 안있어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리게 되는데 생각이 많아서 찾아왔다는것이였다.

나는 한껏 긴장해지는 마음을 안고 가사의 구절구절들을 다시한번 훑어보고 또 훑어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가사를 써놓고 내댔에는 흥분했었는데 정작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린다고 생각하니 미흡한 점이 있는것만 같아 송구스러울뿐이였다. 긴장된 나를 말없이 여겨보던 작곡가가 지나가는 말투로 아무래도 가사에 사상성이 부족하지 않는가고 반문하는것이였다. 그래서 나는 가사를 다시한번 음미해보았다. 그의 말이 인차깨도가 안되어 그에게 눈길을 던졌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오래 생각던것인듯 아무런 주저도 없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2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도 푸른빛 어리 고 /꿈에도 보이는 내 나라의 맑은 하늘〉 이 부분 에 하다 못해 〈공화국기 휘날리는 하늘〉 이라는 표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심중한 문제인것만큼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결코 작품의 창작의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작가의 사상미학적태도와 관련되는 문제였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에서는 표현으로 한뫼 보려고 할것이 아니라 전체 시형상을 통하여 한덩어리의 생동한 화폭을 펼쳐놓으면서 많은것을 련상시키고 깊은 여운을 줄수있게 하여야 한다.》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창작적충동을 받고 흥분했던 창작초기의 일들이 떠올랐다. 처음 이 가사의 창작동기는 내가 어느 예술단체에 나가있을 때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면서 느꼈던 창작적흥분에서 시작된것이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에 대한 좋은 가사를 쓰자면 생경한 구호의 라렬이나 요란한 정치적인 술어를 쓰지 말고 사랑하는 자기의 고향산천에 대한 담담한 정서와 부모처자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써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정말 눈앞이 확 트이는 말씀이였다.

그때부터 나는 줄곧 양양되는 흥분속에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면서 단시일내에 가사창작을 끝냈던것이다. ... 생각을 마친 나는 유심히 나를 지켜보는 작곡가에게 도리머리를 저어보였다.

가사에 미흡한 점은 많으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고 씌어진 가사라는 확신이 나를 어느 정도 안심시킬수 있었던것 같다. 작곡가도 나의 심중을 읽었는지 말이 없었다.

작곡가가 돌아간 다음에도 나는 번거로운 생애 일존을 쉬이 잡을수가 없었다.

그런데 뜻밖의 감격스러운 소식이 나에게 찾아들었다.

노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치하의 말씀을 받게 되니 나로서도 그때의 놀라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노래가 혼성 2 중창으로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였다는것이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만족하시여 과분하게도 작사자와 작곡가의 이름밑에 붉은 밑줄까지 그어주시였다는것 이였다.

그때로부터 얼마 안있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이 잘되었다는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싶다고, 가사도 명가사이고 곡도 명곡이

라는 크나큰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최근에도 또다시 노래가 잘되었다는 은정어린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나 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글쓰는 사람치고 우리 장군님의 높은 치하를 받는것보다 더 큰 자랑과 긍지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도 나의 마음은 환희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내 나라의 푸른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다. 그러면서 이름없는 한 시인이 우리 조국의 푸른 하늘에 대한 명가사를 쓰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에 목메여있다. 정녕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작가나 작곡가의 재능의 열매가 아니였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것에 불과한것이다.

내가 이 노래를 창작하기 오래전부터 고향과 조국을 주제로 한 가사를 한번 잘 써보리라고 마음먹고 붓을 든적이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번마다 실망감을 느끼며 번번히오던터였다. 이런 때 조국에 대한 좋은 가사를 쓰자면 사랑하는 자기의 고향산천에 대한 담담한 정서와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써야 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그대로 종자가 되고 시어가 되어 나의 가슴을 흔들었던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따듯이 일깨워주신것처럼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란 자기가 태어난 조국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 푸른 산천과 맑은 물, 곱게 피는 갖가지 꽃들과 고향의 못밧을 모습들, 참말로 집집의 처마를 인정처럼 이어놓고 사는 이웃들이였다.

추억은 얼마나 많은가!

나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 그대로를 써내려갈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자기 고향산천을 그리라고 가르쳐주셨지, 내가 자란 고향산천을 한번 눈을 조용히 감고 생각해보자. ...

내 눈앞에는 갖가지 못밧을 추억이 떠올랐으나 제일 먼저 그림계 떠오른것이 가사에도 있는것처럼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이였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웃동네, 아래동네 소꿉시절동무들이 승벽내기로 푸른 하늘에 띄워올리던 하얀 연이였다.

그 하얀 연이 끝없이 꼬리를 날리던 푸른 하늘, 그 푸른 하늘이 그리도 맑고 푸른줄, 그것이 내 조국의 자랑인줄 왜 몰랐던가 하는 생활에서 체험한 감정을 그대로 써놓았다.

여기에 그 어떤 요란한 말과 수식사가 있는가.

체험된 감정정서가 그대로 표현되었을뿐이다. 이렇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자자구구 되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으니 어릴적추억이 깃든 고향산천과 나의 모습이 떠올랐고 고향산천과 송아지시절 친구들의 모습이 방불히 떠올랐다.

민들레 곁에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아 철없이 바라본 푸른 저 하늘이
내 조국의 자랑인줄 어이 몰랐던가

오래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추억깊은 어릴적 표상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때 감정정서를 꾸밈없이 적어가니 1 절가사가 완성되었다. 시적 흥분은 끊임없이 나를 나의 조국 푸른 하늘의 어제와 오늘로 이끌어갔다.

2 절가사에서

...
아 가없이 펼쳐진 푸른 저 하늘을
시련받던 불구름도 가릴수 없었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대목을 지적하시면서 이 대목은 생활이 질으면서도 깊은 철학이 담긴 대목이라고 말씀하시었다.

2 절의 완성에 이어 3 절가사는 터질듯 한 환희와 넘치는 감사의 정에 겨워 저절로 뿔어져나왔다.

...
아 은혜론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내 나라의 정든 하늘 안고살리라

시인의 풍만한 서정이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으로 몸부림칠 때만이 훌륭한 가사가 창작될수 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자인하고있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여 시인의 구체적이고도 섬세한 감정세계가 시대를 안은 감정정서로 일반화될 때만

그 가요는 생활의 터전에 튼튼히 발붙이고 자기 환희로운 감정의 나래를 가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에 마음껏 나래 펼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말하자면 내 조국의 하늘이 왜 그리도 맑고 푸르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차있는가, 그 하늘에 바로 은혜로운 해와 별,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이라는것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이다. 구호의 생경한 라렬, 정치적인 선언, 요란한 문구들로 시인의 서정성이 메마르고 의도가 명백치 않은 가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 오래 불리워질수 없는것이다. 한생 많은 시와 가사를 써오지만 그때처럼 창작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종자를 찾아주시고 형상의 나래를 펼쳐주신 가사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오늘 이 노래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명곡으로 되기까지에는 이토록 우리 장군님께서 한편의 가사에 기울여오신 사랑과 은정이 깃들어있는것이다.

20 여년이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가.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랜 세월 이름 없는 창작가들이 지은 이 노래를 잊지 않으시고 추억하여주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과 조국수호정신을 안겨주는 좋은 노래라는 거듭되는 치하의 말씀을 하여주시였으며 이 노래를 제목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사회의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출연한 예술공연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영예의 《김일성상》 제관작품으로까지 내세워주시는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나는 앞으로도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과 같은 명작을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쁘드릴 마음을 안고 명가사창작에 힘과 지혜를 다 바치겠다는것을 다시금 굳게 다짐한다.

경구, 격언

- 참다운 작가는 인류의 량심이다
- 시인은 후대들과 나란히 서자면 자기 시대를 앞서야 한다
- 시는 정신의 음악이다
- 창작은 아름답고 비상히 힘들고 놀라울만치 즐거운 노동이다
- 태양이 자연을 물들이는것과 같이 예술은 여러가지 색으로 인생을 장식한다
- 평론은 쉽고 예술은 어렵다
- 폭풍을 묘사한다고 하여 파도 하나하나를 그릴 필요는 없고 설레이는 바다의 화폭을 주면 충분하다
- 꽃을 주는것은 자연이나 그것을 엮어서 꽃다발을 만드는것은 예술이다

삼지연기슭에서

박정애

물결 고요한 삼지연기슭에 서니
한웅큼 흙을 받쳐든 투사
목메여 흐느끼는 소리 들리는듯
세찬 걱정으로
눈가에는 더운 눈물이 고였구나

밀림의 긴긴밤
꿈결에도 그려보던 조국이여서
투사는 한줌 흙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는것인가

다가서니 가까이 다가서니
흙과 속삭이고있구나
꿈에도 오고싶던 조국땅에 함께 오지 못한
한사람 또 한사람
못잇을 동지들 불러 찾으며

불러보는지 누구더냐
쓰러지면서도 마지막숨을 토했아
기어이 총을 넘겨주며
물결 세찬 두만강에 생의 메아리를 남긴
그 투사는 아닌지

아니면
놈들에게 두눈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던
그 꽃나이녀투사는 아닌지

한줌 흙, 한줌 흙

점점이 더운 피 어린
혈전만리 그 언덕의 열사람... 백사람...
벌처럼 수많은 모습들이 어려오는
눈물젖은 한줌 흙

오, 그 흙은
빼앗긴 조국 찾아 눈보라 헤칠 때는
두고온 정든 고향이었고
나라 찾고 기어이 돌아와 안길
부모형제의 그리운 얼굴들이었다

걱정으로 뜨거워
이 마음 숨엄히 그 흙을 안아보니
늘 밝고 사는 흙과 다름바 없건만
오, 다시 보면
피어린 빨찌산세월이 흐르고있구나

그것은 정녕 흙이 아니었다
내 조국에 영원히 살아 고동치는
빨찌산들의 고귀한 넋이기에
찾아오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말없이 심장에 엮고가나니

조국진군 그 감격으로 투사들 눈물짓는
성스러운 삼지연
열렬하고 순결한 그 숨결로
백두의 혈맥을 이어주는
아 삼지연기슭의 한줌 흙이여

백마호언제우에서

김명철

언제에서 바라보니
저 멀리 건너편 산들은 가물가물
호반가득 차오른 물은
맑고 푸르려
가벼운 바람에도 흥치며 늠늠늠

아, 백마호!
산중에 펼쳐진 바다!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시였으면
언제에 오르신 우리 장군님
그리도 환히 웃으시였으랴

공사에서 걸린 매듭 다 풀어주시고도

멀고 험한 길 오시여
큰 일을 해냈다고 치하해주신분
그날의 그 미소 해빛처럼 비껴
눈 시글게 반짝이며 설레이는 물결아

이제 저 수문만 나서면
너는 굽이치리라
거창한 물길굴과 용수잡관들을 거쳐
룡천벌 염주벌 또 철산벌
그리고 아득한 저 간석지 한끝까지

이렇게 바다처럼 가없는 호수를

이처럼 산악같은 언제로 들어올려
어느때든 마음껏 쏟아쓰게 되었으니
왕가물이 든다 한들 무슨 걱정 있으랴

아, 수수천년
산골짜기 바위돌만 굴리고 굴리며
흘러온대로 그냥 흘러간다면
백마강 이 물이
오늘처럼 우리 마음 뜨겁게 적서주라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
늘 마음쓰시는 **김정일**장군님
그 거룩한 손길에 높이도 떠받들려
푸른 산중에 출렁이는 아름다운 호수여

만년을 솟아있으라 백마호언제여!-
억년토록 흐르거라 풍만한 젖줄기여!-
이 땅의 후손만대 부강위해 베푸시는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 기울여
선군조국의 곡창을 살찌워라!-

나의 하늘

김무림

내 오늘
고사포병이 되어
조준경너머 곧추 선 포신을 따라
저 하늘을 바라본다

종이비행기 날리던 시절엔
그냥 푸르기만 하던 저 하늘에
다 실려있구나
내 알고있는 모든 행복이

가없이 맑은 하늘이여!
너는 배움의 창가에 글소리 울리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야영의 바다에 실려오는
그들의 맑은 웃음

그래서 내 심장 불탔노라

폭우 쏟아지는 밤에도
포진지를 떠날수 없었고
철갑탄 한알한알 세여
심장에 먼저 장탄했노라

이 하늘아래선
촉촉한 가을비도
병사의 이 마음 적실수 없고
한겨울의 눈보라도
병사의 이 가슴 얼쿨수 없었거니

아 나의 고사포가
기둥처럼 떠받든 내 나라의 하늘이어서
포신과 함께 바라보는 나의 하늘은
영원히 흐려질수 없으리라
언제나 맑고 푸르리라!

유모아

군중을 끌지 못하는 연설

《당신들은 나의 연설에 대해 무슨 의견
이 있습니까?》
《당신이 연설을 계속해주기 바랍니다.》
《무엇때문에?》
《우리가 잠을 좀 더 자게...》

고속운전

《왜 당신은 차를 그렇게 빨리 모는거요?》
《이 차는 상당히 낡아서 운전하기 위험하
오. 그래서 난 사고가 나기전에 빨리 집에
도착하려고 하는거요.》

안해의 성격



심 남

수일의 안해는 제대군인이다. 그래서인지 성격이 활발하고 아무 일이나 주저없이 나서서 극성스럽게 해제끼곤 했다. 안해의 그 성격에 남자치고는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편인 수일은 당황해지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제대된지 얼마 안되는데다가 농사물계도 잘 모르는 안해가 그렇게 물덤벙술덤벙하다가 사람들의 말밥에 오를가 봐서였다. 초여름에 있는 일만 돌이켜보아도 그랬다.

그날 안해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저녁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일은 어쩔수없이 탁아소에서 딸애를 찾아오고 저녁까지 짓지 않으면 안되었다.

저녁을 짓는것쯤이야 뭐라는가.

그런데 난처한 일은 딸애로 하여 생겼다.

탁아소에서 찾아올 때는 제법 잔등에 얼굴을 파묻고 얄전하게 잘 자더니 집에 와서 방아래목에 내려놓자 잠에서 깨어나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것이였다.

《어 ... 어 ...》

수일은 당황하여 딸애를 다시 안아들고 달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딸애는 막무가내로 발버둥을 치며 울어대기만 하였다.

《아, 이거 정말...》

그는 어찌할바를 몰라 딸애를 다시 안아들고 방안을 서성거렸으나 딸애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려 하지 않았다. 수일은 딸애를 달래면서 창밖을 연신 내다보았다.

《차 이거, 왜 아직 안들어오는거야.》

그때야 마당에 안해의 모습이 언뜻하더니 부엌문이 벌럭 열리며 안해가 들어섰다. 급히 뛰어온듯 얼굴이 땀투성이였다. 그러면서도 딸애를 안

고 추썩거리는 수일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구, 아이와 씨름했어요?》하며 방으로 올라와 그냥 올려대는 딸애에게 두손을 내밀었다.

《봄향이, 이리온.》

안해의 품으로 넘어가자 무슨 조화가 들었는지 딸애의 울음은 대번에 쏙 잤아들었다.

《흥, 기가 막혀서... 사람도 알아못보는게 낮가림을 해.》하고 수일은 얼굴의 땀을 씻으며 투덜거렸다.

딸애는 때때로 흑흑 흐느끼면서 젖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수일은 안해를 찢 흘겨보았다.

《도대체 뭘하다가 이제야 들어오는거요? 남들은 다 들어온지가 한참인데...》

《안됐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만... 원, 이렇게도 배가 고평가.》

젖만 들이빠는 딸애를 내려다보고나서야 안해는 늦어진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큰골 강냉이밭에 설치한 <잠복초>들을 바꿔주러 나갔됐지요 뭐. 그런데 거기서는 인차 돌아섰는데 내려오다가보니까 글썽 맞은컨 샘터골의 <잠복초>들이 잎이 다 말라버린채로 그냥 있지 않겠어요.》

《잠복초>란 유해로운 나비들이 강냉이포기들에 벌레알들을 쓸지 못하도록 밭에 가독나무, 오리나무, 황철나무 등 넓은잎나무가지들을 그닥 길지 않은 장대기 끝에 묶어세워둔것을 말한다.

마치 《까치동지》모양과 비슷한데 그것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강냉이밭에 세워놓으면 나비들이 강냉이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다 알을 쓴다.

그런만큼 나무잎이 언제나 푸르싱싱해야 했다.

안해는 딸애한테 젖을 바귀물리며 말을 뱉었다.

《그래서 늦었지요 뭐.》

수일은 입을 벌리고말았다.

《뭐, 아니 썬터골발이야 4분조발이 아니요? 그럼 그 발때문에 늦었던 말이지요?》

《...》

《당신은 몇분조요?》

《나야 3분조지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라니? 그런거야 4분조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고치게 하면 되는거지 당신이 할건 뭐요》

그러자 안해는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든 먼저 본 사람이 고쳐놓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4분조가 뭐 남이나요? 같은 작업반인데...》

《헛참...》

수일은 어이가 없어 웃고말았다.

《오지랖이 지내 넓구만. 자기가 무슨 작업반장인가 하는게 아니요?》 하는데 진담인지 톡담인지 짐작키 어려운 안해의 응수가 수일을 더욱 기막히게 했다.

《저라고 반장을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아요. 당신이 좀 추천해주지 않을래요?》

《됐소, 됐소. 농장원이야 제 말은 일이나 착실하게 하면 되는거지 뭇하러 남의 일일까지 빼치는가 말이지.》

그런데 안해는 그의 점잖은 훈시를 곱게 받아들일대신 눈이 울렁해서 쳐다보며 이렇게 반박했다.

《그럼 일이 안되는걸 뻔히 보면서도 강건너 볼보듯 하란 말이에요?》

수일은 더 말하다가는 본위주의감투, 리기주의 감투까지 쓰게 될것같아 버럭 소리치고말았다.

《젠장, 저녁이나 빨리 들어오우. 배고파죽겠소.》

이러한 일은 그후에도 여러차례 있었다.

2분조발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지원자들에게 이러쿵저러쿵 《훈시》를 하지 않는가 하면 지어 다른 작업반의 눈에 물이 지내 많은것까지 《간참》해나섰다. 그리고 분조에서도 여러번 분조장의 일에 《간참》해나서서 말썽을 일으켰다.

그래서 3분조장은 수일의 안해만 나타나면 이마를 찡그린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니 수일이 자기 안해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수일은 시간이 지나나라면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자신을 위안했지만 그 시간이란것이 얼마나 더 지나야 할런지는 그자신도 딱히 알수 없는 노릇이었다.

×

이건 또 어찌된 판이야?

하루일을 거뿔하게 다 해제끼고 흥그러운 기분으로 부엌문을 열던 수일은 대뜸 눈이 휘둥그레졌다. 부엌안에 서려있던 후끈한 열기와 함께 밥

타는 냄새가 얼굴에 확 끼쳐왔던것이다.

《젠장!》 보나마나 밥을 안쳐놓고 밖으로 나갔던 안해가 또 무슨 일에 코를 들이밀고 부엌일을 까맣게 잊어버린게 분명하였다.

안해가 참견할수 있는 일은 실로 무한정 많은니까...

그러나 그따위를 생각하고있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덤벼치며 행주를 찾아들고 화끈 달아오른 밥가마부터 들어대었다.

그제서야 후- 숨이 나왔다.

《아참, 밥을 안쳐놓고 어디 가 뭘하고있는거야.》

투덜거리며 방문을 열던 그는 그만 두눈이 더 커지고말았다. 어디에 간줄로만 알았던 안해가 방안에 앉아있는것이였다. 그것도 녀자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뜨개질이나 딸애한테 젖을 먹이고있는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있었다. 밥상 위에 퍼놓은 책 위에 머리를 파묻듯이 하고 들여다보고있는데 어찌나 골똥했는지 수일이 방문을 여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저러니 밥타는것도 알리가 없지.)

아래목에서는 딸애가 자고있었다. 전에는 볼수 없던 안해의 모습이어서 수일은 한동안 켜켜한 눈으로 내려다보기만 했다.

(갑자기 왜 저 모양일까? 밥타는것도 모르고... 혹시 어디에 급히 편지라도 쓸일이 생겼는가?)

도무지 가늠할수 없는 일이어서 수일은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기침소리를 크게 냈다.

《어험!》

입밖에 내고보니 턱없이 소리가 높아 스스로도 흠칫 놀랄 정도였다. 딸애가 잠을 깨지 않은것이 다행이였다.

《어마나!》

안해는 와뜰 몸을 떨며 돌아보았다.

《아이 깜짝이야!》

수일은 너무 놀래운것 같아 목소리를 낮추었다.

《정신있소? 밥이 타는것도 모르고 뭘하고있는거요?》

《어마나, 내 정신 봐!》

수일은 황황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는 안해를 도로 눌러앉혔다.

《밥가만 내가 들어냈소》

《그래요!》

안해는 도로 앉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수일은 안해결로 다가가 머리를 기웃하고 상을 내려다보았다.

《그건 뭐요? 밥까지 태우면서... 혹시 대학에라도 가려는게 아니요?》

《대학엘요?! 아이 우스워라.》

안해는 까르르 웃었다.

수일이라도 덩달아 병글썩 웃는데 안해가 곧 정색하고 말했다.

《사실은 말이에요. 래일 분조의 작업조직을 하겠어요.》

수일은 얼떠름해졌다.

《뭘, 본조의 작업조직?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본조장은 뭘하고 당신이 작업조직을 한다는거요?》

《길모본조장은 함흥엘 갔어요. 형님의 환갑잔치가 있다나봐요. 그래서 며칠동안 제가 립시로 본조사업을 보게 됐지요 뭐.》

수일은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본조에 사람이 없어서 하필 당신에게 립시본조장을 시킨단말이요?》

《그거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라니까 하는거지요. 길모본조장이 작업반에 제기했다고 하더군요.》

《길모본조장이?...》

그것은 더욱 믿어지지 않는 말이었다.

《거 모를 소리인데? 당신이라면 길모본조장이 눈살부터 찌프리는 사람이 아니요? 지난해 김매기때부터는 더하다던데...》

지난해 논벼두벌김매기때였다. 탈곡장앞포전의 김을 매던 안해를 비롯한 본조의 농장원들은 날이 어두워져서야 손을 땀다. 남은 논은 얼마 안되었다. 좀 더 싸고들었으면 마무리할수도 있었으나 그날따라 남자들과 처녀들은 농장에서 제기된 일때문에 산에 가고 남은 로력은 녀인들 뿐이었다. 그들을 어두워질 때까지 일시키는것이 민망스러웠던지 길모본조장은 남은 논을 다 끝내지 못한채 돌려보내고말았다. 그날저녁 본조장모임 때 길모본조장은 탈곡장앞포전의 논김매기를 전부 다 끝낸것으로 작업반에 보고하였다. 그로서도 속궁양이 따로 있는것 같았다. 밭김매기와는 달리 물속의 김을 잡는 논김매기는 눈에 잘 띄우지 않는다. 길모본조장은 다음날에 로력여유가 있으면 그 논에 다시 불이려고 작정했던것 같았다. 그런데 수일의 안해로 하여 그만 사달이 생겼다. 그 일이 마음에 걸렸던 안해는 그날저녁 수일에게 먼저 쉬라고 이르고는 (수일은 안해가 어디 이웃집으로 마실을 가는줄로만 알았었다.) 바로 그 탈곡장앞포전으로 나갔던것이다.

그런데 일이 안될 때라 혼자서 김을 매는 모습이 공교롭게도 포전들을 돌아보던 엄두칠반장의 눈에 띄었다. 결국 길모본조장은 작업반에 허위 보고를 한것으로 되어 행정총화에서 단단히 비판을 받았다.

《헛참... 아니 불향이 어머니, 내가 언제 아주머니더러 그 포전의 김을 따져 매라고 했소? 본조장을 이렇게 망신시키는 법이 어디에 있소?》

그날저녁 길모본조장이 수일의 안해에게 한 말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길모본조장이 안해를 립시본조장으로 제기했다니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참, 세상일이란... 별나게도 되여간다.)하고 수일은 부지중 커다랗게 한숨을 몰아쉬었다.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젠장! ... 보통 농

장원일 때에도 이일저일 《간참》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비록 립시이지만 본조장을 하면 또 무슨 일을 버르집어놓을는지 모른다. 작업반일, 농장적인 일에만까지 뛰어들지 누가 알랴...

그 며칠이 그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수일은 안해에게 미리 오금을 박아놓았다.

《일을 정신차려서 하오. 당신네 본조에 마아바이를 비롯해서 실농군들이 많으니까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들과 토론해서 하고, 절대로 체생각만 옳다고 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끼여들지 말고...》

안해는 그러는 그를 말뚱말뚱 쳐다보더니 생긋 웃었다.

《오참, 당신 눈에는 제가 꼭 철부지로 보이는 모양이지요?》

《그럼 당신이 무슨 경험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있는 농사군이요? 농사에서야 헛병아리나 다름없지. 게다가 아무일이나 덤병덤병 뛰어들고...》

안해는 마치 소학교학생처럼 눈도 깜박거리지 않고 쳐다보며 명심해듣는듯 하더니 마지막말에는 입술을 쑥 내밀었다.

《그럼 잘못되는걸 보고도 가만있으란 말이에요? 농사짓는게 무슨 시집살이라고 옛날처럼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하며 살겠어요?》

이쯤되면 말을 안하느니보다 못하게 된셈이었다. 수일은 말하기를 단념하고 돌아앉았다.

《여보, 저녁은 언제 먹일 작정이요? 새까맣게 탄 밥이 이젠 얼음덩이가 됐겠소.》

《아유, 정말!》

안해는 덤벼치며 부엌으로 내려갔다. 수일은 밥상우에 놓여있는 종이장들을 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길모본조장이 어떻게 되여 안해를 대리본조장시킬 생각을 했을까?)

리해되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제는 별수 없다. 안해가 대리본조장을 하는 며칠간이 그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수밖에는...

안해가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

그런데 하늘은 아무일도 없기를 바라는 수일의 마음에 심술이라도 부리듯 그날밤부터 눈을 쏘아 붓기 시작하였다.

《차, 이거 하필 이런 때 눈이 올건 뭐람?》

걱정스럽지 않을수가 없었다. 일기조건이 불리할수록 작업조직은 복잡해지기마련이다. 안해가 이럴 때 무슨 일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알고나 있는지... 수일은 아침에 안해에게 마아바이를 비롯한 경험있는 본조원들과 잘 토론하여 작업조직을 하라고 신신당부하여 내보냈다.

그리고서야 서둘러 자기 일터인 수리본조로 나갔다. 저녁에도 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안해가 대리분조장을 하는 며칠동안은 어차피 저녁에 늦게 들어올게 뻔하니 혼자 집일을 처리해야 하였다. 저녁밥도 짓고 탁아소에서 딸애도 찾아오고 돼지물도 주고... 할 일이 어찌나 많은지 도무지 끝이 없을것 같았다. 이 많은 일을 안해는 어떻게 혼자서 다 했을까?... 딸애가 제법 얌전하게 자는것만은 기특하였다. 마치 제 엄마가 대리분조장을 하는걸 알기라도 하는듯 했다.

안해는 수일의 예견대로 저녁 늦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낮색이 어두워보였다.

예전같으면 수일이 먼저 들어와 밥을 짓는걸 보고는 미안하다느니, 밥은 남자들이 더 맛있게 짓는것 같다거니 하고 열심히 엮어뒀을 안해가 이날은 그가 술한 집일을 해놓았는데도 말한마디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수일은 불안해졌다. 저녁식사가 끝난 후에도 안해는 말없이 설것이를 했고 다음은 벽만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수일이 제편에서 먼저 물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소?》

안해는 단마디로 대답하였다.

《아니요.》

그것 역시 어느때와 달랐다.

수일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런데 왜 그러오?》

안해는 수일에게 어설픈 웃음을 지어보이였다.

《제가 어떻다고 그러세요? 전 아무렇지도 않는데...》

수일은 점차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요?》

안해는 그를 마주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호- 내쉬었다.

《참, 속상해 죽겠어요.》

《뭔데?》

안해는 다시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작업반에서 퇴비반출계획을 토론했는데 원천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울봉산우에 있는 호수자리에 니란이 아직도 많이 묻혀있는데 말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까 분조장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글썽 반장동지는 울봉산은 쳐다보지도 말라는거예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조건에서는 소발구들이 산에 붙을수 없단나요.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수일은 한숨을 내쉬었다, 안해의 《병》이 또 《발작》을 한것이 분명하였다.

《아니 여보, 그거야 작업반이나 농장에서 결정할 문제지 당신이 나설 문제요? 당신이야 며칠동안의 분조일이나 생각하면 되는거지...》

《그럼 우리 분조영농계획은 어떻게 해요?》

수일은 어이가 없었다.

《여보, 당신이 이제 대리분조장을 며칠 하겠다고 영농계획걱정까지 하는거요?》

안해는 그를 쳐다보며 눈을 깜박거리었다.

《그럼 대리분조장은 무슨 걱정을 해야 하나요?》

수일은 일순간 말이 막히었다. 잠시후에야 어물어물 대답하였다.

《그거야 분조장이 없는 사이에 잘못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거지.》

그러자 안해는 까르르 웃었다.

《그러니 대리분조장은 잘못되는것만 바로 잡고 잘되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거예요?》

수일이라도 그만 벌썬 웃고말았다.

《재담은 그만하고... 내가 말하려는건 진짜 분조장은 걱정안할걸 당신이 하고있다는거요. 결과가마가 더 똥는적이지.》

안해의 눈이 다시 깜박거리었다. 무슨 생각을 열심히 굴릴 때 하는 버릇이었다. 쟈장,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가 있나... 그런데 안해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정말 그럴가요?》

음, 이제야 좀 깨도가 되는 모양이군. 수일은 마음이 좀 흥그러워져서 안해의 앞으로 다가왔었다.

《여보, 그 울봉산의 니란밭은 누구나 다 욕심내는것이지만 손을 못대고있는거요. 그것을 찾아내고 모두들 얼마나 욕심을 부렸겠소. 그런데 소발구도 붙기 어려운데다 늦가을이면 벌써 눈이 내리고 눈이 한번 내리면 봄까지 녹지 않으니 그림의 떡으로만 남아있는거요. 아마 당신보다도 반장이나 길모분조장이 더 그걸 먹어치우고싶었을거요. 오죽하면 엄두를 못냈겠소... 그러니 그건 당신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그는 제김에 흥분하여 방바닥까지 두드렸다.

그러자 그 소리에 딸애가 잠에서 깨어나 으앙-하고 울어댔다.

《오오, 우리 봄향이 아버지때문에 깨났구나.》

안해는 딸애를 안아들고 젖을 물리더니 아이의 손을 잡아흔들며 말했다.

《봄향아, 우리 아버지질 때려줄까? 엄마가 일을 좀 할려고 하니까 방바닥까지 두드려대는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

딸애는 젖을 먹으며 무엇인가 알아듣지 못할 목소리로 웅알거렸다.

《그래그래, 네 말이 옳다. 너의 아버지 <보신주의자>야. 그렇지?》

수일은 그만 허허 웃고말았다.

《요전엔 본위주의감투를 씌우더니 오늘은 또 보신주의자라? ... 봄향아, 너의 엄마한테 모자도 많구나. 래일엔 또 무슨 모자를 씌울지 모르겠구나.》

안해는 짹짹 웃었다. 그러자 딸애도 젖에서 입을 떼고 수일을 보고 생글거리었다.

수일은 다시 한번 웃고나서 말했다.
《여보, 정말 부탁인데 앉을자리, 설자리를 가
려가며 일하도록 하오. 그리고...》

《됐어요. 알겠어요.》

수일은 겨우 마음을 진정했다. 그러나 안해는
자리에 누워서도 오래도록 천정을 쳐다보며 눈을
깜박거리고있었다. 다음날 일터에 나간 수일은
철관마름질을 하느라고 똑딱거리며 3분조장이 며
칠 있으면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부지중 하였다.

저녁마다 부엌동자질을 하는것은 둘째치고 안
해가 무슨 말썽거리 일으킬가봐 걱정스러워서였
다. 그러지 않아도 수일은 아침에 벌써 엄두칠
반장이 안해때문에 딱해한다는 말을 귀결에 들었
다. 안해가 울봉산의 거름원천을 당장 끌어내려
야 한다고 반장에게 들이댔다는것이였다.

반장은 쓴입만 찡찡 다시였다든지 ...

안해에게 차례진것이 대리분조장인게 다행이었
다. 대리반장이라면 아마 온 농장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을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해가 대리분
조장을 할 날이 며칠 안남았다는것이 다행스러웠
다. 안해가 울봉산거름문제를 들고다니는 사이면
분조장이 올것이고 그러면 모든 일이 무사해질것
이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일은 철판에서 머리를
들었다. 그러자 깜짝 놀랐다. 문안에 들어선것은
안해였던것이다.

3분조포전에서 여기까지는 거의 10리나 된다.

그것도 눈길이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왔을까?

추위에 빨강게 언 안해의 두볼, 눈이 잔뜩 게
발린 숨신...

수일은 그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다 왔소?》

안해는 머리수건을 풀며 생긋 웃었다.

《제가 이렇게 올줄은 몰랐지요? 그런데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별로 살뜰하다. 장난긋어보이기도 하고... 어떻
든 마음이 훈훈해진다.

수일은 빙글썩 웃었다.

《먹었소. 우선 여기 와서 난로에 몸부터 녹이
오.》

그는 안해의 손을 잡아 난로앞에 끌어다 앉히
려고 했다. 그런데 안해는 생글거리면서도 그의
손에서 자기 손을 뽑아냈다.

《아이, 그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해요.》

안해는 그 손으로 솜옷주머니에서 흰 손장갑을
꺼냈다.

《한번 껴보세요. 뜨기 시작한지는 며칠 잘되
는데 이제야 됐어요. 눈이 온걸 보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뭐.》

장갑은 손에 꼭 맞았다. 두툼하고 폭신한게 손
이 단번에 뜨뜻해졌다.

《종구만. 그런데 이걸 주자고 이렇게 왔소?》

안해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럼요. 그사이 손이 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귀중한 손이...》

수일은 빙그레 웃었다.

《왜 왔는지 리유나 말하오. 랑군님손때문이 아
니라 분조일때문이라는게 당신얼굴에 다 써여 있
으니까...》

《어마나, 그래요?》

안해는 까르르 웃었다.

《당신 눈은 속이지 못하겠군요.》

수일은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건사했다.

《무슨 일이요? 어느 집 물뽕프라도 고장난게
아니요?》

안해의 분조원들의 집에서 제기된 그러루한 일
때문에 수일이가 뛰어다니는적도 한두번이 아니였
다.

《아니, 이번엔 철저히 공적용무예요.》

《철저히 공적용무라? 어마어마하구만.》

《저...》

안해는 선뜻 말하지 못하고 작업장안을 둘러보
았다.

《벌려놓은 일감들을 보니까 차마 말하기가...》

수일은 가볍게 웃었다.

《괜찮소. 어서 내용이나 말하오.》

《저, 꺾쇠를 한 50개만... 버려줄수 없어요?》

《꺾쇠 50개?》

수일은 어이가 없었다.

《아니, 그게 무슨 큰거라고 그렇게 갑자르느
지요? 그것때문에 이렇게 힘든 걸음을 했단 말
이요?》

안해의 눈이 다시 반짝이였다.

《그럼 해줄수 있다는거지요? 오늘 저녁까지...》

《해주시. 그런데 그건 어디에 쓰자고 그러
오?》

《울봉산에 삭도를 놓자고 하니 꺾쇠가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뭘, 뭘요? 울봉산에 삭도?...》

수일은 깜짝 놀랐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네?...》

수일은 마주 서있는 안해의 복성스러운 얼굴과
웃음이 자글거리는 눈을 한동안 지켜보기만 하다
가 말했다.

《여보, 당신 울봉산삭도공사를 무슨 아이들 그
네줄 때는것처럼 생각하는게 아니요? 언제 삭도
놓는 일을 해본적이라도 있소?》

안해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뇨. 없어요.》

《정말 한심하구만. 여보!》

수일의 음성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이거야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덤비는게 아니면 뭐가.

그냥 응석을 받아주며 허허하다가 가는 일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를지 모른다.

《삭도를 놓으면 좋은줄 몰라서 누군 못한줄 아오? 기술적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거기에 드는 자재가 무슨 빨래줄이나 그네줄 매는 정도인줄 아오?》

수일은 안해앞에 손을 내밀고 손가락들을 꼽아 나가기 시작하였다.

《권양기, 쇠바줄, 활차 또 술한 기둥감들…》

수일은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말았다. 처음에는 그의 손가락과 입을 번갈아 지켜보던 안해가 두손으로 귀를 꼭 틀어막았던것이다. 안해는 그가 입을 다물어서야 귀에서 손을 뗐다.

《이젠 다 말했는가요?》

수일은 짐짓 성을 내보이였다.

《여보. 그래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듣기도 싫다는거요?》

안해는 그의 성난척하는 기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생긋 웃으며 응석이라도 부리듯 말했다.

《그런 소리나 하니까 그러지요. 하자는 말이 라면 따라다니면서라도 들었어요.》

수일은 길게 탄식하고말았다.

《약이 없구만.》

안해는 정색하였다. 그리고 그의 팔소매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자꾸 그러지만 말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아무렴 숨도 없이 이불을 만들겠다고 접어들었어요? 사실은 며칠째 곰곰히 생각을 굴리니 군대때 삭도를 놓고 진지공사를 하던 생각이 나잖겠어요. 마아바이를 만났어요. 무슨 방도가 없을가 해서요. 그런데 그 아바이가 하는 말이 몇 년전에 울봉산으로 송전선이 지나가면서 그때 립시로 리용하던 전주목들이 그냥 남아있대요. 삭도를 놓자면 활차나 쇠바줄이 필요하다기에 읍에 있는 농기계공장에 찾아가니 거기 사람들이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울봉산에 올라가보니 거기에 있는 전주목들도 꽤 쓸만 하잖겠어요.》

《뭐요?…》

수일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울봉산에 올라갔었던 말ियो? 그럼 지금 울봉산에서 오는 길ियो?》

《그럼요.》

안해는 그제야 생각난듯 몸을 웅송그리였다.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난 막 얼어죽는줄 알았어요. 아이 추워.》

수일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아팠다.

연약한 녀자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랴!

《여기 난로앞에 와서 앉소.》

그는 안해를 우격다짐으로 난로곁으로 끌어다 앉혔다. 그리고 벌스레 좁아보이고 가냘파보이는 안해의 어깨를 가슴아프게 내려다보았다.

《여보!》

그는 안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아직도 차거웠다.

《내 말을 좀 들어보겠소?》

안해는 어린애처럼 머리를 따박거렸다.

《당신의 심정은 리해되오. 당신이 하겠다고 한 건 정말 좋은 일ियो. 해야 할 일이구… 그러나 일은 다 선후차가 있는 법ियो. 그리고 농장에도 일꾼들이 있지 않소. 그들도 다 생각이 있을거요. 더우기 당신은 갓 군대에서 제대되어 농사물정을 아직 잘 모르고있지 않소. 그런 당신이 자꾸 그러면 일꾼들의 립장이 딱해진단 말ियो. 그러니 제 말은 일이나 착실하게 할 생각이나 하오.》

안해가 머리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어려있었다.

《그럼 전 그저 시키는 일이나 말없이 수격수격하면 그만이란 말이지요?》

《나도 안타까울 때가 없는줄 아오? 하지만 농장에는…》

《그러니 모든 일은 일꾼들에게만 달려있고 농장원들은…》

안해의 음성은 조용했고 떨리고있었다. 눈가에는 눈물방울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수일은 당황해졌다.

《여보, 울기는 왜 우는거요? 내가 무슨 못할 말을 했다고…》

안해는 손바닥으로 눈물방울을 씻었다.

《당신이 너무 민망스러워 그래요. … 해야 한다는건 뻔한데 왜 주저하는가 하는거예요.…》

안해는 수일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당신은 사회생활을 오래 해서 잘 알겠지만 난 잘 몰라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여 몇해전까지 군사복무를 하였어요. 그러니 사회생활을 잘 모를수밖예요. … 그러나 군대나 사회나 다 같은 장군님의 품이 아니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래가지구서야 어떻게 농업전선은 주타격전선이라고 한 울해 공동시설의 과업을 관철할수 있겠어요. …》

《…》

《안됐어요. 아무 말이나 망탕 해서 …》

안해는 일어났다.

《너무 안타까워 그런거예요. 하소연을 해봤지요 뭐.》

《여보!》

수일은 안해의 어깨를 와락 그리안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내 이제까지 당신을 잘 도와주지 못했소. 이제부터 힘껏 도와주겠소. 잘 준비했다가 분조장이 돌아오면 즉시 시작하기요.》

《고마워요.》

《...》

안해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 문가에 가있었다.

《시작은 벌써 했어요.》

《시작... 뭘다구? 그건 무, 무슨 소리요?》

《본조원들이 쇠바줄이랑 활차랑 가지고 올봉산에 가있어요.》

《?-》

수일은 한동안 안해를 바라보기만 했다. 이윽 해서야 그는 겨우 한마디를 가까스로 물었다.

《반장아바이도 거기 가있소?》

《반장동진 아침에 관리위원회에 올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뭘요?》

수일은 아연해지고말았다.

어쩌면 어쩔이 저리도 엄청날까. 무서운 왕고 집쟁이이며 성만 나면 불에 덴 황소처럼 무서운 엄두칠반장이 이제 무슨 벼락을 칠지 모른다.

《일없어요. 우리 반장아바인 일하려는 사람은 타하지 않을거예요. 길모분조장도 ... 전 그럼 가보겠어요.》

안해는 문을 나섰다. 흰눈우에는 안해의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졌다. 안해는 눈에 빠질가봐 두려운듯 조심스레 걸고있었다. 것처럼 조심스러운 안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벌여놓았을까.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 좁은 어깨우에 어떻게 책임을 걸머지자는것일까.

눈우에로 걸여가는 안해의 몸은 류달리 가냘파 보이였다. 왜서인지 눈앞이 흐려왔다. 그래, 이제는 시작한 일이다. 물려설 자리는 없다. 이 김수일의 넓은 어깨는 두어서 무엇하랴. 나도 어깨를 들이밀자. 책임도 함께 지자.

그는 그물그물 타고있는 가열로의 송풍기스위치를 넣었다. 웅- 하며 새파란 불길의 당장에 솟구쳤다. 그러자 수일은 온몸에서 까닭모를 힘이 솟구침을 느끼었다. 그는 꺾쇠를 버리기 시작하였다.

×

날씨는 맵찔다. 수일은 솜옷앞섶을 푹푹 여미고 등에 꺾쇠가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올봉산으로 향했다.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올봉산삭도공사를 대리분조장을 하는 며칠동안에 하겠다고 나선 안해가...

문득 혁명적군인정신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학습때마다 그 말을 곧잘 외우기는 했으나 오늘에야 진짜 혁명적군인정신의 맛을 보게 되었다는 새삼스런 생각도 들었다. 갑자기 왼쪽다리가 눈속에 푹 빠지였다. 그바람에 그는 몸의 균형을 잃고 눈판우에 털썩 넘어졌다. 눈의 차디찬 랭기

가 얼굴을 시원하게 해준다.

《허참...》

한가지 생각에 움해있다니니 발을 헛짚은것이다. 옷에 묻은 눈을 털며 일어나려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얼핏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던 수일은 대뜸 온몸이 긴장해졌다.

키가 큰 엄두칠반장이 자기쪽으로 다가오고있었던것이다.

《어딜 가느라고 이렇게 눈판에서 허우적대나?》

아마 반장도 올봉산에 가는 모양이다. 뒤늦게야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나섰겠지. 한바탕 떠돌아 정신차리게 하려고...

수일은 도전이라도 하듯 큰소리로 대답하였다.

《올봉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올봉산으로? 자네도?...》

수일은 반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난 거기 가면 안됩니까? 그거야 꼭 해야 할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에라, 안해가 할 말을 내가 다 해보자. 안해대신 내가 이 왕고집쟁이처럼감하고 붙어보자.

《그런데라니요? 그걸 알았으면 벌써 했어야지요. 올봉산거름원천을 찾아놓고 만세를 부르지 벌써 몇년입니까. 만세만 부르면 단가요? 그건 오분열도란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면 무조건 해야 한단 말입니다. 군대들은 바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입에 익숙치 않은 말을 그것도 목청을 돋구어 하다니니 숨이 가빠지여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엄두칠반장의 입에서 벼락처럼 쏟아져 나올 노한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반장은 입을 꼭 다문채 그를 놀란 눈으로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그때 반장뒤에서 난데없이 꺾꺾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

반장의 뒤를 넘겨다본 수일은 깜짝 놀랐다. 리당비서가 꺾꺾 웃으며 서있었던것이다.

《오늘 반장동무가 수일동무네 부부한테 땀을 빼는구만, 수일동무, 거 반장동무를 좀 더 두드려대오. 정신이 번쩍 들게 말이지.》

수일은 멍해서 서있었다. 얼굴이 저절로 붉어졌다. 그런데 엄두칠반장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허허 웃었다.

《이 사람 수일이, 자네 장가를 참 잘 갔네. 차돌처럼 여무진 너자한테 장가들었으니 말일세.》

《...》

《우리가 찾아놓고도 몇년동안 끌어온 일을 자네 안해가 대리분조장을 할 때 하겠다고 나서니 정말 놀랍데. 하면 하는거지. 그런데 망설이고만 있었거든. 시간이 많을 때 하자고 하니까 자네

안해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우리에게 언제 한가한 시간이 있을수 있어요. 매년엔 올해보다 더 바쁠거예요.〉 하더라 말일세.》

엄두칠반장은 그의 배낭에 눈길을 보내더니 의아쩍게 물었다.

《이건 뭐가?》

《꺾쇠입니다. 삭도공사에 쓸...》

다시 리당비서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잘하오. 수일동무네 부부가 반장동물 꼼짝 못하게 만들었구만. 물리설 자리가 없게 말이요, 안그렇소, 반장동무?》

《그렇습니다, 비서동지! 역시 제대군인이 다릅니다. 비록 봄향이 엄마가 너자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내들보다 얼싸 댕다고 우리 로친도 글썽 바지를 바뀌입으라나요. 하하, 바지를 바뀌입는건 둘째치구 봄향이 엄마에게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옳소. 우리는 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야 하오. 어떤 일을 해도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해야 살수 있소. 이게 혁명적군인정신이요. 이런, 벌써 나왔구만.》

울봉산기슭에는 모닥불이 타오르고있는데 그 주위에 분조원들과 청년들이 둘러앉아있었다. 삭도를 놓는다는 말을 듣고 떨쳐나선것이 분명하였다. 그들의 앞에서 하는 안해의 쟁쟁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작가소개

장편소설 《리가장의 변천》과 조수리

중국의 이름있는 작가인 조수리는 산서성 심수현의 중농가정에서 태어났다.

지주들과 고리대금업자들의 가혹한 착취로 가정이 빈궁으로 몰락된 후 중학교를 중퇴하고 농촌의 지방극단에 들어가 공연활동에 참가하였다.

1925년 산서제4사범학교에 들어갔고 학생운동에 참가하여 놈들에게 체포되었다. 그후 1930년대전반기까지 산서 각지를 류랑하면서 농촌생활과 민간문학에 친숙해졌으며 1930년대 후반기부터는 《희생구국회》의 활동에도 참가하였다.

1937년 항일전쟁이 개시되자 근거지에 들어갔다. 1940년대초에 신문 《신화일보》와 통속문예잡지 《중국민》 편집사업을 하면서 문학창작도 계속하였다.

1934년에 창작한 장편소설 《반룡산골》에서 이미 자기의 고유한 농촌유묘아적재능을 나타냈던 작가는 자기의 창작풍을 유지하면서 농촌생활을 주제로 한 단편소설 《소이흑의 결혼》과 중편소설 《리유제의 관화》를 1943년에, 장편소설 《리가장의 변천》을 1946년에 편이어 창작하였다. 이

《군대에서는 해야 할 일이면 무조건 했습니다. 가능성은 무조건 하려고 할 때 생기는 법입니다. 군대처럼 살며 일할 때 우리는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

리당비서가 다가가려는 수일과 반장을 막았다.

《우린 여기서 좀 기다립시다. 수일동무의 안해가 내가 하려는 말을 다 하고있는데...》 하고 그는 눈우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얼마나 좋소. 이제 우리 농장에 봄향이 어머니같은 사람이 한명 더 늘어나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가 말이요.》

《예?!》

엄두칠반장은 눈을 크게 뜨며 의아스런 눈길로 리당비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리당비서가 엄두칠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바로 옆에 있지 않소. 부부오누이라는데...》

두사람은 수일을 바라보며 의미깊은 미소를 빙그레지었다. 수일은 자기를 바라보는 두사람의 눈길을 어색하게 피하며 뒤더수기를 굵적거렸다.

그리고는 우등불가쪽을 바라보았다. 수일은 열정적인 태도로 무엇인가 말하고있는 안해의 모습을 이윽토록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아니겠는가.

전투적인것은 따라배우고 관조적인것은 천리밖으로 쫓아버리는 선군시대의 우리 생활!...

작품들의 창작으로써 인민작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게 되었다.

장편소설 《리가장의 변천》은 1929년부터 1945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산서성의 농촌마을인 리가장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하여 농민대중이 당을 따라 혁명투쟁의 길로 나아갈 때에만 봉건지주를 반대하는 치열한 계급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자신들의 계급적해방도 이룩할수 있음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1949년 혁명승리후 작가는 베이징에서 로사, 정령 등과 함께 새 중국의 문예발전에 헌신하다가 문학창작의 원천이었던 농촌을 떠날수 없어 다시 농촌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체험에 기초하여 단편소설들인 《결혼등록》을 1950년에, 《류이화와 왕계성》을 1955년에 썼으며 장편소설들인 《삼리만》을 1955년에, 《령천동》(1부)을 1959년에 창작하였다. 1964년말에 고향 산서로 갔다. 그곳 태원에서 세월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다. 올해에는 중국의 이름있는 작가 조수리 출생 100돐을 맞는 해이다.

상 봉

리성철

꿈이런가
생시런가
헤어져 긴긴세월
소식한장 없으시던 아버지
80고령에 백발을 날리며
이렇게 우리와 금강산에서 만났구나

세살난 이 아들의 고사리손 꼭 잡고
세밤 자면 돌아오마 약속했던 아버지
할머니생일 일흔뉘상 차려드린다고 손저으며
림진강을 건넜었던 아버지
어이하여 이제야 오셨나이까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에야

이제는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도
그리움에 타고난 재를 가슴에 안은채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살잡이 이 아들도 이제
손자들을 거느린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기러기떼 울면서 창공을 날 때면
남쪽하늘 바라보며 눈물짓는 어머니따라
말없이 그러보군 하던 아버지모습이여
문득 우편가방 멘 통신원이 와도
아버지편지가 오는것만 같아
마음앞서 달려가길 그 몇번...

그리도 긴긴세월이 흘렀으니
주고받을 이야기 끝이 있으랴
쌍이고쌍인 그리움, 나누고싶은 혈육의 정
열백밤을 지새운들 다 나누랴
눈물에 젖은 손 꼭 부여잡고 놓을줄 모르는데
이 웬말이나
만나자 또 리별이라니?

언제 만나라 이제 헤어지면
이런 기막힌 상봉을 하자고
내 그토록 눈물속에 그려왔던가
이렇듯 기약없는 리별을 하자고
내 장장세월 애타게 기다려왔던가

오오, 분계선이여, 콩크리트장벽이여
넌 어찌면 이다지도 모진것이나
어제는 젖먹이를 아버지와 갈라놓더니
오늘은 백발이 된 아버지와
반백이 된 이 아들을 또 갈라놓느냐

누구인들 바라랴
리별로 이어지는 이런 슬픈 상봉을
아, 저주가 있으랴
자식이 아버지앞에 할수 있는 효도마저
총칼로 막아서는
미제와 분렬주의자들에게 철추를 내리라

가슴터지는 리별의 이 시각
나는 울음을 삼키며 맹세다지노니
내 쓰는 글 한편한편이
민족의 심장을 더욱힐 뜨거운 불이
되게 하리라
통일렬차의 우렁찬 기적소리로 울리게 하리라

6.15의 열풍으로
분렬의 얼음장을 녹이고
이 땅우에 우리 기어이 안아오리라
갈라졌던 부모형제 얼싸안고
맘껏 울고웃을 영원한 상봉을
아, 리별없는 상봉
눈물없는 상봉을!

성구, 속담

신중성, 침착성

- 낮을 들고다니는 처녀도 선을 보아야 한다
- 무른 감도 쉬어가면서 먹어라
- 팔십로인도 세살먹은 아이한테 배울것이 있다
- 새도 가지를 가려앉는다
- 선불을 맞히면 도리어 범을 놀래운다
- 굴속에 굴이 있고 말속에 말이 있다

바 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적재부는 우리 인민의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말하여 주고있습니다.》

바둑은 동양의 우수한 지능 놀이이다. 바둑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세가지 설이 유력하게 론 의되고있다.

하나는 히말라야산줄기부근(오늘의 티베트지방)에서 바둑이 발생하였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발생하였다는 설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 즉 고조선에서 발생하여 아시아지역에 전파되었다는 설이다.

그중에서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것은 고조선에서의 발생설이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바둑평론가들과 력사학자들이 바둑의 고조선발생설을 주장하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력사자료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기에 바둑이 매우 성행하였다고 한다. 옛 기록들인 《구당서》 권 199(고려 《고구려》전)에는 고구려사람들은 다른 놀이와 함께 바둑을 좋아하였다고 하였으며 《수서》 권

81(백제편)에는 백제와 신라에서도 바둑을 즐겨하였다고 쓰여있다.

우리 선조들은 벌써 그때 외래침략자들을 쳐부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터에서 전략과 전술 그리고 유능한 군사지휘관을 선출하고 키우는데서도 지능놀이인 바둑을 널리 활용하였다.

바둑은 그 어떤 우연수를 기대할수 없다. 욕망만으로는 이길수 없으며 높은 인내력과 집중력, 빠른 계산능력과 판단력을 소유하고 여러가지 수법을 능동적으로 활용할줄 알아야 상대방을 타승할수 있다.

때문에 바둑에는 《단》과 《급》이 명백히 갈라지고있다.

바둑자체에 생활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풍부히 내포되어 있기때문에 바둑을 배우고 두는 과정에 지능발전과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바둑은 비록 자그마한 판우에서 하는 경기이지만 바둑경기에서의 전략과 전술은 군사행동의 일반법칙들과 통하는것이 많을뿐아니라 바둑격언들은 옛 병법에서 가르치는 전략전술적술어들에 많이 반영되어있

다.

그런것으로 하여 바둑은 예로부터 문관, 무관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널리 이용되어왔다.

이와 같이 우수한 바둑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동시에 성행하였는데 이 세 나라가 고조선유민들이 세운 나라들로서 언어와 피줄, 문화가 같은 단일민족이라는것을 고려해볼 때 바둑의 발생기원을 고조선시기로 보아야 한다.

바둑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깊은 련계를 가지고있다.

《바둑》이라는 말은 고유한 우리 말이다.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서 조상대대로 전해져오는 바둑과 관련한 형상적표현들도 많다.

예로부터 무연한 논판을 보고 바둑판에 비유하였고 격자무늬를 《바둑무늬》, 검은 점과 흰점이 섞인 짐승들인 개나 말을 보고도 《바둑이》, 《바둑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속지능놀이인 바둑은 현재 100여개 나라에 널리 퍼져남, 너와 나이에 관계없이 많은 경기들이 벌어지고있다.